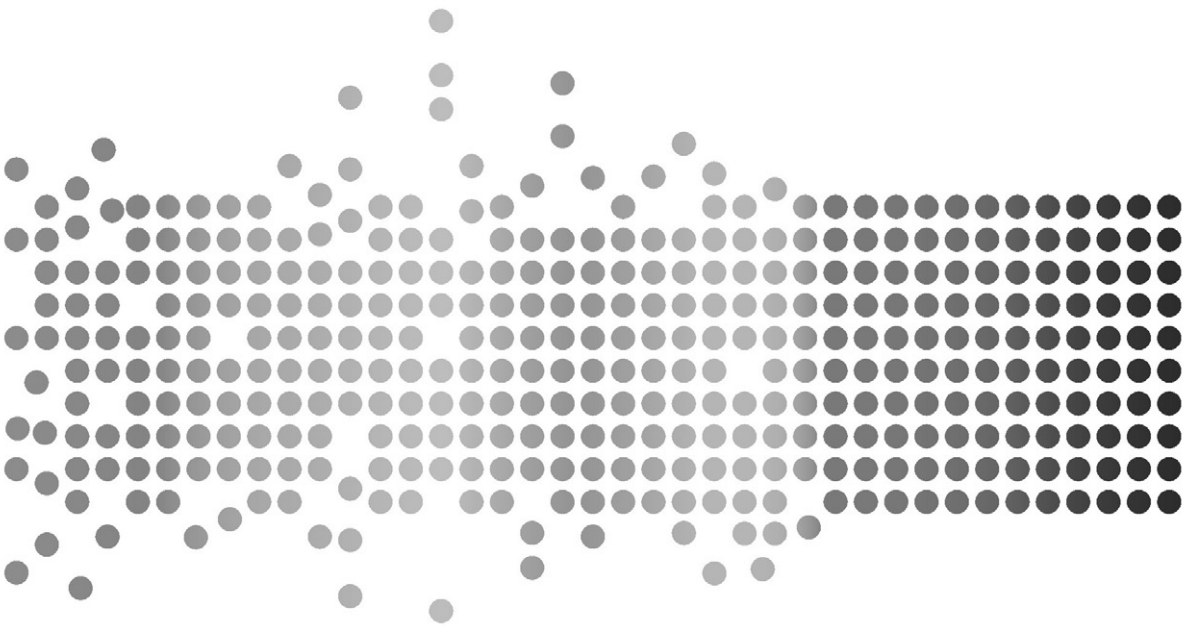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 춘천시, 안산시, 보성군, 합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Contexts of Differential Fertility :
Focusing on Four Regions-Chuncheon, Asan, Boseong, Hapcheon

박종서 · 윤여원 · 정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발 행 일 2012년
저 자 박 종 서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96-9 93330

머리말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에서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중심에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성에 대한 것이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지금까지 벌써 29년째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사회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서구사회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왔고, 그 성과로 2000년대 들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구사회가 최근에 출산수준을 회복했다 해도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주변에 머물러 있을 뿐, 3~4명까지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출산 행위의 결정 기제가 분명 전근대와 차별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현대인들의 사회관계 특성이 변했고, 가족 단위에서는 혼인 및 출산 행위부터 아동과 노인 등 가족을 둘러싼 돌봄 형식이 바뀌면서 전체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적 세계관과 출산행위도 상호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대화 이후 현대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세계화 맥락에 서 있으며, 지구촌 어느 사회와

도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 지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회가 질적 변화를 이미 거쳤고, 지금도 그 도상에 있다는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출산 행위의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 쟁점이 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문제의 제기와 분석의 방법은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조사 자료에 기초한 개인 수준의 분석이나 국가 간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지역에 초점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저출산 지역 2개와 고출산 지역 2개를 선정하고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융합하여 출산율의 작동 기재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음으로 출산 행태 분석과 관련 정책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원내의 윤여원 연구원과 원외의 한림대학교 정준영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그리고 원내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이철선 연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19

제1절 이론적 배경 ····· 19

제2절 분석틀 ····· 24

제3장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 ····· 29

제1절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추이 ····· 29

제2절 총인구의 추이와 구조 ····· 32

제3절 출생 ····· 38

제4절 혼인 ····· 50

제5절 이동 ····· 53

제4장 생활세계의 특성 ····· 57

제1절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 60

제2절 가치관에서 생활세계로 ····· 78

제5장 산업 노동의 특성 ····· 105
제1절 지역의 산업적 특성 ····· 105
제2절 경제활동인구의 총괄적 특성 ····· 110
제3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118

제6장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 ····· 139
제1절 지역의 자원 현황 ····· 139
제2절 지역의 정책적 특성 ····· 148

제7장 사례비교와 정책적 함의 ····· 161
제1절 지역 사례의 비교 분석 ····· 161
제2절 정책적 함의 ····· 176

제8장 결론 ····· 185

참고문헌 ····· 189

부 록 ····· 195

표 목차

〈표 1-1〉 사례로 선정된 4개 지역의 주요 지표(2010년) ……14
〈표 3-1〉 가임여성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34
〈표 3-2〉 가임여성의 연령별 구성비 ……36
〈표 3-3〉 합계출산율 추이 ……38
〈표 3-4〉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47
〈표 3-5〉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간격 ……48
〈표 3-6〉 출산순위에 따른 성별 구성비 ……49
〈표 3-7〉 연령별 미혼율 ……52
〈표 4-1〉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정의 정도 ……73
〈표 4-2〉 지역 주민의 협동에 대한 신뢰 정도 ……74
〈표 4-3〉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정의 정도 ……75
〈표 4-4〉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3
〈표 4-5〉 갈등이혼의 찬성 정도 ……85
〈표 4-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정도 …87
〈표 4-7〉 자녀의 필요성 ……89
〈표 4-8〉 이상자녀수 ……90
〈표 4-9〉 향후출산계획 ……92
〈표 4-10〉 가사분담의 공평성 ……94
〈표 4-11〉 가사 분담방식 ……96
〈표 4-12〉 부인 가사노동시간평균 ……97
〈표 4-13〉 남편 가사노동시간평균 ……98
〈표 4-14〉 성역할에 대한 인식(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 ……99
〈표 4-15〉 성역할에 대한 인식(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 ·101

〈표 5-1〉 지역별 사업체 조직형태(2010) ·····106
〈표 5-2〉 지역별 사업체 구분형태 ·····106
〈표 5-3〉 산업별 사업체 분포 ·····107
〈표 5-4〉 지역별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Ⅰ) ·····108
〈표 5-5〉 지역별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Ⅱ) ·····109
〈표 5-6〉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110
〈표 5-7〉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111
〈표 5-8〉 산업별 취업자 비율 ·····112
〈표 5-9〉 직업별 취업자 비율 ·····113
〈표 5-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114
〈표 5-11〉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 ·····115
〈표 5-12〉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116
〈표 5-13〉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117
〈표 5-1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연령별 구성비 ·····119
〈표 5-1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21
〈표 5-16〉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123
〈표 5-17〉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산업분포 ·····125
〈표 5-18〉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산업분포 ·····126
〈표 5-19〉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직업분포 ·····128
〈표 5-20〉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직업분포 ·····129
〈표 5-21〉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종사상지위 분포 ·····131
〈표 5-22〉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율 ·····133
〈표 5-23〉 종사상지위별 평균 임금 및 남녀임금격차 ·····135
〈표 6-1〉 보육시설 현황(2010년) ·····140
〈표 6-2〉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2010) ·····140

〈표 6-3〉 보육형태 ·····141
〈표 6-4〉 성별, 취업여부 별 보육형태 ·····143
〈표 6-5〉 의료기관 현황 ·····144
〈표 6-6〉 학교 현황 ·····146
〈표 6-7〉 사설 학원 현황 ·····147
〈표 6-8〉 지역별 자체 사업 현황 ·····149
〈표 7-1〉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요소 ·····163
〈표 7-2〉 지역별 생활세계 구조의 특성 요소 ·····165
〈표 7-3〉 지역별 산업노동 구조의 특성 요소 ·····167
〈표 7-4〉 지역별 지역자원 및 정책의 특성 요소 ·····169
〈표 7-5〉 고출산 지역의 유형적 특성 ·····173
〈표 7-6〉 저출산 지역의 유형적 특성 ·····175

그림 목차

[그림 2-1]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모형 ·····21
[그림 2-2] 연구모형 ·····24
[그림 3-1]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30
[그림 3-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추이 ·····31
[그림 3-3] 총인구 추이(춘천시, 아산시) ·····32
[그림 3-4] 총인구 추이(보성군, 합천군) ·····33
[그림 3-5] 전체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의 비율 ·····35
[그림 3-6] 가임여성 연령별 구성비(2010년) ·····37
[그림 3-7] 출산율 추이 ·····39
[그림 3-8]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4, 25~29) ·····40

[그림 3-9] 모의 연령별 출산율(30~34, 35~39) ·····41
[그림 3-10] 출산 순위 별 출생아수 구성비(춘천시, 아산시) ·····42
[그림 3-11] 출산 순위 별 출생아수 구성비(보성군, 합천군) ·····43
[그림 3-12] 첫째아 출생아수 비중 ·····44
[그림 3-13] 둘째아 출생아수 비중 ·····45
[그림 3-14] 세째아 이상 출생아수 비중 ·····45
[그림 3-15] 평균초혼 연령 ·····50
[그림 3-16] 연령별 미혼율 ·····51
[그림 3-17] 혼인 중 재혼과 외국인 아내의 비율 ·····52
[그림 3-18] 주 가임연령층의 인구 순이동(춘천시, 아산시) ·····53
[그림 3-19] 주 가임연령층의 인구 순이동(보성군, 합천군) ·····54
[그림 5-1]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2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Contexts of Differential Fertility : focusing on four regions–*Chuncheon, Asan, Boseong, Hapcheon*

Birthrate in Korea has been lower than replacement level fo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1983. Regional gap in birthrate is also gaping and has been so without much fluctuation for long. Although a number of research work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causes and fabrics of the low birthrate issue and policy studies to up birthrate have exuberantly been done, there is not much sign of improvement of it.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infer that a new approach on this matter is required.

By far, most researches into birthrate set their unit for analysis on individuals and focused on empirical assay based on other research materials, those that analyzed structural context of regions are hard to find. Additionally, as to policy directions,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childbirth support apply a nationwide uniform standard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Proper policy measures regarding these differences, unsurprisingly, are not materialized yet, despite the stark regional gap in birthrate.

Under this background,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relation between regional gap in childbirth capability and structural context of each reg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derive future policy directions per each type of region.

The study targeted a pair of cities, one with high birthrate, Asan-si, and another with low birthrate, Chuncheon-si, and another pair of towns, one with high birthrate, Boseong-gun, and another with low birthrate region, Hapcheon-gun. And we compared structural context of targeted regions that could affect birthrate. We divided and analyzed four aspects of the structural context : demographic structure; industry and labor market structure; features of people's daily lives; and features of regional resource and polici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Chuncheon-si had a closed city structure, stagnant population and industrial labor market structure. Possibility of birthrate recovery in Chuncheon-si seemed to be very low. Thus, we believe the city needs an immediate improvement in economic environmen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by securing jobs first.

On the other hand, Asan-si, a dynamically developing city, had higher rate of female employment and more job opportunities. Yet, since most of those jobs for female workers were simple labor, only a handful of women who were in the early age of childbearing period were economically active. Asan-si, therefore, needs policy measures that can encourage more women to work. Furthermore, betterment of work-life balance and structural overhaul for gender equality are another issues to be handled regarding women's economic activity.

Boseong-gun, albeit its closed town structure, showed high participation ratio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had a widely-believed gender equality mindset due to its development of

local industry and tourism. However, considering the hefty ratio of non-salary workers in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amo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town is required to seek more suitable childrearing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its type of employment.

Lastly, Hapcheon-gun had an open structure and maintained vigorous interactions with neighboring large cities. That said, residents possessed rather conservative family values and limited sense of gender equality. Naturally, we believe the town needs education and publicity programs that can broaden gender equality mentalit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upgrade corporate culture. Plus, regarding the high non-salary worker ratio among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Hapcheon-gun also needs to come up with maternal support policies and financial aid measures for familial support.

The most meaningful lesson of this study is that regional gap in birthrate stems from different structural fabric of each region. This lesson tells us that one or two uniformly applied measures for childbirth support will not be so beneficial. An across-the-board approach, such as enhancing awareness of industries, labor market, and the public,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developing proper policy measures. All in all, it is necessary to set a new direction for the low birthrate issue that overhauls the structural context of a given region comprehensively through systematic policy measures.

*Keywords: Differential Fertility, Local Context, Comparative Study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1983년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대 초반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일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제 지역별 출산율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실정이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고, 지역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출산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구조, 생활세계 구조,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지역자원과 정책이 그것이다.

4 가지 영역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 및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귀납적 접근을 통한 지역 특성 일반화를 시도한 바 있다.

II. 주요 연구결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구조적 특성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적 맥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출산율 차이가 이와 같은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시의 경우 인구증가는 정체되어 있고, 인구구조 또한 고령화되어 있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매우 높고 가임여성의 미혼율도 높은 편이다. 도심지와 주변 농촌지역의 분절이 심한 편이며, 생활세계에서 도심지와 농촌지역의 분절이 관찰된다. 생활세계의 분절은 일상생활의 안정을 떨어뜨려 미래설계에 대한 의식적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고, 임신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일가족양립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나 공공서비스 등의 지역자원은 잘 발달해 있지만, 아동의 보육 인프라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과 친인척 의존성이 높았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 또한 높다고 하기 어렵다.

아산시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도시로써, 최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점차 더 발달한 첨단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조성될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매우 개방적 구조와 발전지속형 도시로서 그 특성이 안정화되고 있다. 인구증가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인구구조도 비교적 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혼인행태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혼인하는 경향이 있고, 출산 또한 조기에 종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아산시는 확장도시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도심과 주변

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 일상생활 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안정은 출산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최근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의식이 부정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가족가치관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여성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남녀 고용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아 근로여건이 취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출산을 종료한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특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너무 미약하며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 시설이 비교적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육형태에서 부모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은 지리적으로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자체 산업의 발달을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구유출이 감소하는 등 인구의 안정화를 찾고 있다. 가임여성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이 높아서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참가율이 매우 높고, 주로 비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세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보수적이고 가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평등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성군이 가족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세계가 통합되어 있어 높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도, 보육형태에서 부모나 친인척 의존성이 낮고, 시설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천군은 교통이 발달했고, 인근 다른 도시와 밀접한 지형으로 매우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동인구 많다는 점과 인구 유출입의 변동이 커서

지역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인구구조는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가족가치에서 부정적이고 특히 가사분담이나 성역할에서 매우 성불평등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활세계의 분절이 나타날 수 있어 출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만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남녀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신 및 출산 시기와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비율이 매우 높고 이탈 지속기간도 매우 길게 나타난다. 합천군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 커브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었다. 다른 한편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 보육형태에서 친인척 의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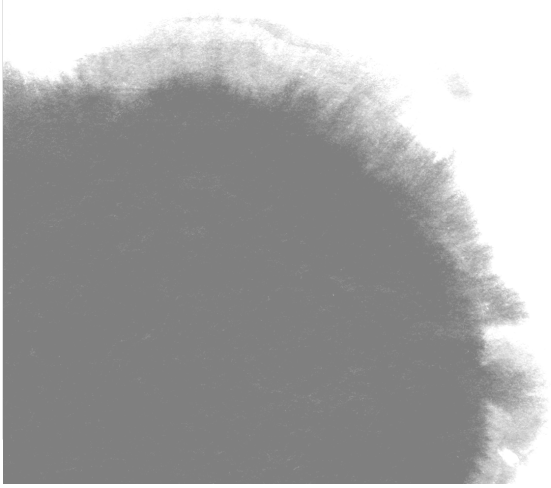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II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지역의 출산율 격차가 각각의 서로 다른 구조적 짜임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출산지원 정책이 일부 한 두 가지 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노동시장, 생활세계와 인식의 개선, 지역자원의 활용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용어: 차별출산력, 지역의 구조적 맥락, 비교연구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낮은 지역도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이 특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조적 요인을 발견하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 관련 기존 연구는 사회조사나 거시적 지표를 이용하여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주로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 개인(또는 가구)의 연령, 혼인상태, 소득,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등과 출산력의 관계를 분석해왔다. 이런 연구방법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출산 및 양육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전국의 일반적 경향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 특성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전국적 일반성과 특성 집단 간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단위 분석에서는 거주 지역 구분을 명목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범주별 차이를 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분석의 내용 또한 정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진행된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은 주로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 또는 시도별 차별성 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정책적으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이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2007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본격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출산과 양육 부문의 지원 정책을 강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구조가 취약하고 제도적 자율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대상 확대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2006년 이후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다른 한편 정책적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정책이 개발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례 비교를 통하여 출산율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발견하고, 이 구조적

차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으로써 인구구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 생활세계의 특성, 지역자원과 정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하여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4개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부문별 특성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지역별 특성을 유형화한다. 이를 기초로 지역 유형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에 해당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 방법

가. 지역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의 일환으로 사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연구에서 사용되는 두가 방법은 일치법과 차이법이다(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1990). 일치법은 공통된 현상을 띠는 사례들이 모두 공통된 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상이한 경우들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다. 차이법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여러 갈래로 가정한 연후에 서로 다른 현상을 낳은 중요한 원인들을 대조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다른 점에서 비슷하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4개 지역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문헌자료, 통계청의 인구추계, 인구동태, 지역별 고용조사,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전화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사례의 선정

분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4개 지역은 각각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4개 사례는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가임여성인구, 가임여성유배우자비율, 가임여성비율 4개 변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특성이 최대한 유사하면서 합계출산율의 격차가 약 0.5이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시 지역에 강원도 춘천시와 충남의 아산시, 군 지역에서 전남 보성군과 경남 합천군이다.

〈표 1-1〉 사례로 선정된 4개 지역의 주요 지표(2010년)

구 분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Obs	Mean	Std. Dev.
출산율	1.16	2.00	1.23	1.73	230	1.3	0.3
가임여성인구	5737	5312	72488	73991	230	55369.6	60057.2
가임여성유배우자비율	63.43	64.93	50.94	54.47	230	57.6	7.3
가임여성비율	24.26	24.56	52.25	55.93	230	44.9	11.3
총인구	43386	39963	274220	272282	230	208655.5	204283.7
남성총인구	19735	18332	135482	139990	230	103656.1	101821.5
여성총인구	23651	21631	138738	132292	230	104999.4	102526.3
전체여성유배우자인구	11799	10816	64510	60142	230	50469.8	48692.4
가임여성유배우자인구	3639	3449	36927	40301	230	30084.9	32515.5
성비	83.4	84.7	97.7	105.8	230	97.7	6.3
출생건수	257	438	2276	3830	230	2044.2	2140.6
조출생율	5	9	8.6	14.7	230	8.6	2.2
여성평균초혼연령	28.57	29.18	29	27.78	230	28.9	0.6
혼인건수 (건)	212	235	1545	2239	230	1380.8	1421.3
조혼인율	4.1	4.8	5.8	8.6	230	5.9	1.2
이혼건수 (건)	97	100	576	628	230	491.5	470.3
조이혼율	1.9	2.1	2.2	2.4	230	2.3	0.4

다. 주민 의식 조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서 생활세계 영역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주민 의식에 관한 것이다. 분석 대상지역 주민의 출산관련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전화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현재까지 시군구 단위에서 출산 관련 가치관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관련 가치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인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인식조사」를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4개 지역의 읍면별, 인구수비례,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최종적으로 춘천시와 아산시에서 각 500명, 보성군과 합천군에서 각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항목, 경제활동, 결혼인식, 출산인식, 가사분담 및 성역할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주요 내용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밝히는 것이다. 구조적 맥락은 인구구조, 생활세계, 산업과 노동시장, 지역자원과 정책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한다. 각 영역에 대한 분석에 앞서 제2장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에서 출산율 분석을 위한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분석 방법론으로써 사례의 비교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사례의 선정과정과 선정된 사례에 대한 소개를 덧붙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

시된 전화면접 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 지역의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인구구조를 분석하였다. 인구구조는 총인구 변화추이와 혼인, 출생, 인구 이동 분야별로 4개 지역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은 생활세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주로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적 측면으로 가족 가치관과 지역의 안전 및 신뢰에 대한 주민 인식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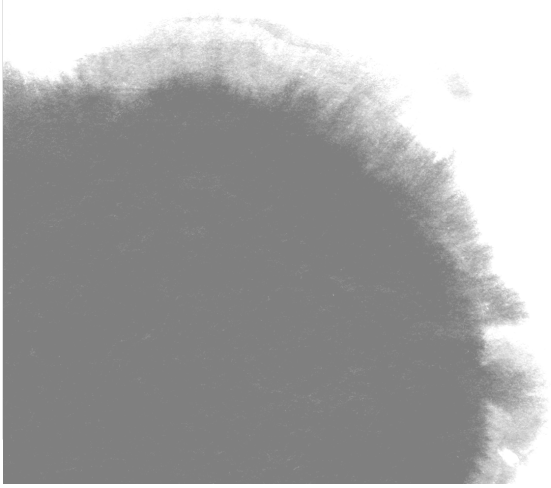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제5장은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분석으로써, 지역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경제활동참가자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분포와 종사상 지위 특성 등을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의 영향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6장은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역 자원 현황을 살펴보고, 각 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7장은 4개 지역에 대한 인구, 생활세계, 산업노동, 지역자원과 정책의 영역별 특성을 요약하고, 4개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지역적 특성을 일반화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일반화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지역 유형별로 정책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8장 결론은 요약과 함의를 설명한다.

KIHASA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배경

1. 차별 출산력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는 차별출산력 개념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차별 출산력이란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과 출산력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이희연, 1990).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산력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권태환, 김두섭, 1990: 104). 이때 개인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변인 가운데 지역, 교육, 수입, 직업, 종교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된다.

지역의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별 차별 출산력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차별출산력을 분석할 수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이라는 거주지의 특성이 출산력의 감소정도 및 속도와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여, 출산력 감소의 기제를 이해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은기수, 1997).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90년도까지 출산력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차별출산력이 존재하여 군부의 출산력 수준이 시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도별 차별출산력도 1990년도까지 여전히 존재하며, 특별히 전라도지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서울과 부산이 매우 낮은

출산력을 보이고 있다(은기수, 1997).

그동안 지역별 차별출산력은 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출산력 차이에 집중하면서, 농촌 거주자는 전통적인 사회관습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가족제도 가치의 수용력이 떨어지는 반면 도시지역 거주자는 이동성이 크고 도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도시와 농촌의 출산력 격차는 점차 작아지는 추세지만 이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된다(이희연, 1990).

그러나 기존연구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범주로 이용하여 출산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 따라서 차이의 유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구분 범주로 보는 관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구조적 맥락과 출산율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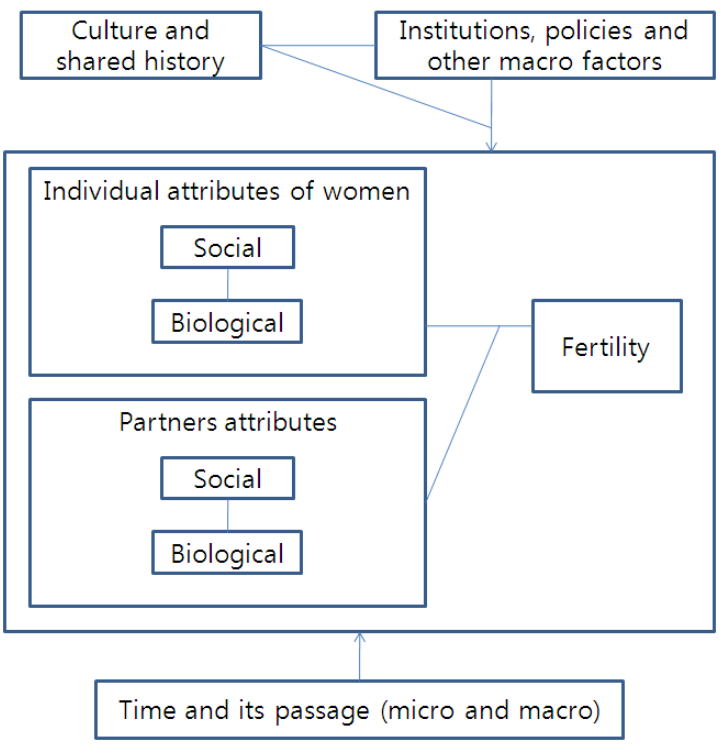
2. 지역의 구조적 맥락

차별출산력의 개념을 출산율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으로 확대하면, 출산율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형성되는 특정한 지역의 유형적 특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력의 공간적 분포와 관련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출산율 수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이희연, 1990). 그러나 대륙별 특성을 다시 살펴보면,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출산율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의 출산력 격차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가 지역의 구조적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 맥락의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맥락에서 제도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 연구는 중요함 함의를 갖는다. 제도적 요인

이 바로 구조적 맥락을 구체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요인을 고려한 최근의 한 연구 모형은 이런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Rindfuss(2012)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제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영향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 노동시장, 아동 돌봄, 주거, 교통, 양성평등, 복지정책의 7개 영역에서 각각 미시적 변수와 제도적 변수를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제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모형



출처: Ronald Rindfuss, 2012, Why such Wide Fertility Variation among Low Fertility Countr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of Low Fertility to Socio-economic Environments.

예를 들어 분야별로 제시된 제도적 요인의 예를 들면, 교육분야에서 이용가능성, 개방성, 운영시간 등을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실업률, 차별, 시간제 이용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 돌봄 분야에서 시설 가용성, 접근성, 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주거 분야에서 주택시장, 주거 인프라, 안전성 등을 제시하였다. 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 보행자 친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분야에서 법적 측면, 규범적 측면을 제시하였고, 복지 정책 분야에서 가족수당, 조세지원, 고용보험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역의 구조적 맥락과 연계한 분석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서독의 지역별 출산력 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Hank(2001)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동안 일반적인 출산력 감소 경향이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지역의 지리적 유형을 보고한 바 있다. Hank는 1990년대에서도 인구밀도, 가족 이주, 직업 구조 등이 지역의 합계출산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ank(2001)는 서독 지역을 75개 지역(*Raumordnungsregionen*)으로 구분하여 1984년부터 1995년까지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수준에서 관찰되는 출산력의 차이가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s)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지역적 변이의 대부분은 개인적 특성의 공간적 분포 차이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때 고려된 지역수준 변인은 도시화 정도, 보육시설, 노동시장 구조 등이었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3가지 변수로 측정되는데 지역 내 취업자 수,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그리고 개인수준 변수는 연령, 첫째아 출산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외국인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다른 한편 출산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관계를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집합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지역의 구조적 맥락으로 지역의 노동시장구조(local labour market structure)를 분석한 사례가 그것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개입하려는 속성으로 인하여 노동기회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출산력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보육 시설의 이용가능성은 또한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ravdal, 1996; Kreyenfeld and Hank , 2000). 공공 보육시설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육아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Stolzenberg and Waite(1984)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에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긴장은 작아진다.

지역 내 고용은 특히 여성에게 경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산의 기회비용은 사무직 직업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 충분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높아질 수도 있다(Blossfeld, 1987). 그리고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잘 확인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좋은 상태로 인식된다면, 여성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Hank,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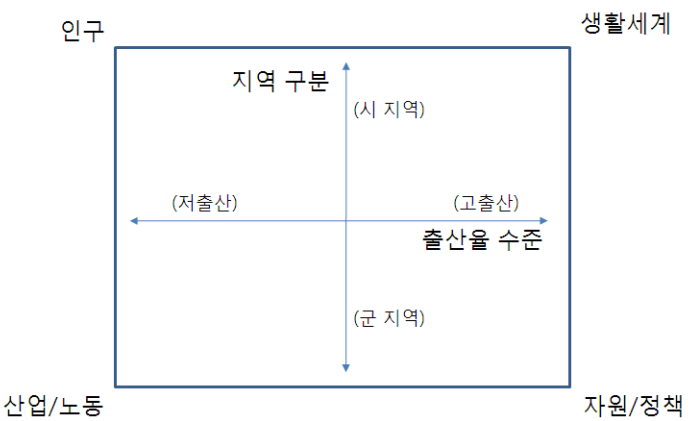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지역 내 고유한 생활세계(every day life)와 지역의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나 종교와 문화적 전통 역시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형성한다.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 사람들은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영역을 생활세계로 분류하였다. 종교나 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전통 역시 가치관과 의식의 특성을 결정하고 출산에 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자녀 수, 자녀의 필요성,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은 가치관이 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구조 중에서 젠더 구조는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으로, 젠더 구조와 출산율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젠더 구조화는 가족생활에서 가사분담 형태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또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제2절 분석틀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인구, 생활세계, 산업과 노동시장, 지역자원과 정책이라는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을 분석한다. 지역은 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각각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 4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농어촌 지역은 출산력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율의 차이는 시 지역 내에서도 크게 나타나며, 군 지역 내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같은 시 지역이라도 출산력 격차가 나타나며, 같은 군 지역이라도 출산력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출산력 격차와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분석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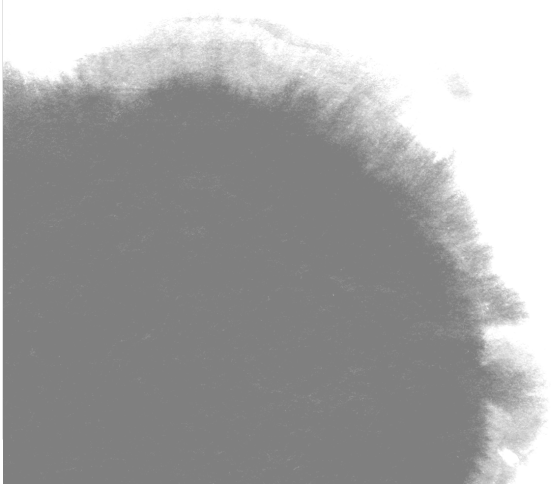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으로 설정한 4개 영역별로 출산율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가 지역간 출산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생활세계의 구조로서 가족가치의 차이와 젠더 구조의 차이가 지역간 출산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 노동의 구조로서 사업체 특성별 구성비,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등이 지역간 출산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 민간자원의 분포와 정책적 요소가 지역간 출산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출산율 격차의 지역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KIHASA

3장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



제3장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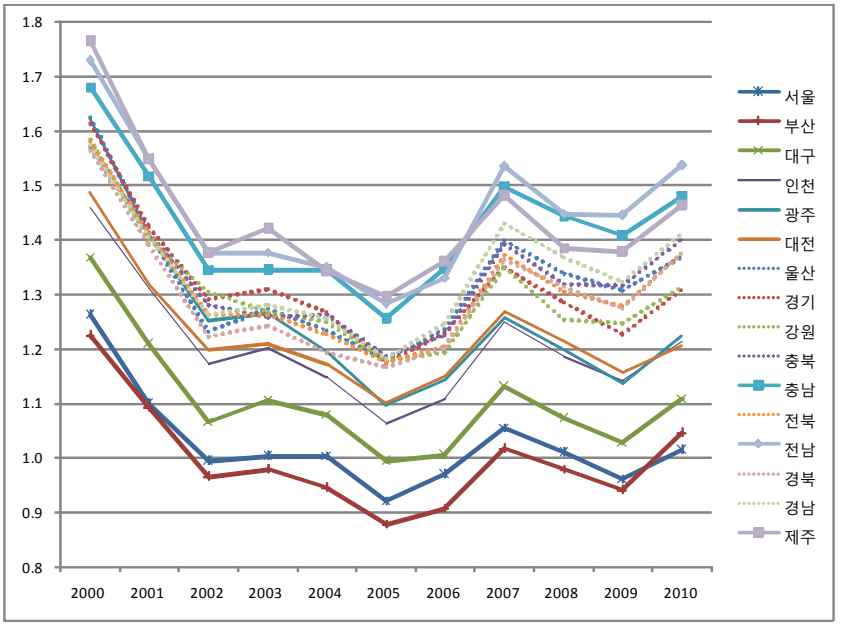
제1절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추이

1.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추이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 2.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230개 시군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출산율 수준이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지역 간 출산율 격차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54명 수준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1.01명 수준이다. 16개 시도를 비교할 때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집단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이고, 높은 지역은 경남, 제주, 충남, 전남 등 지방에 해당한다.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격차가 지속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별로 고유한 출산력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이 고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지역적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각년도.

2. 기초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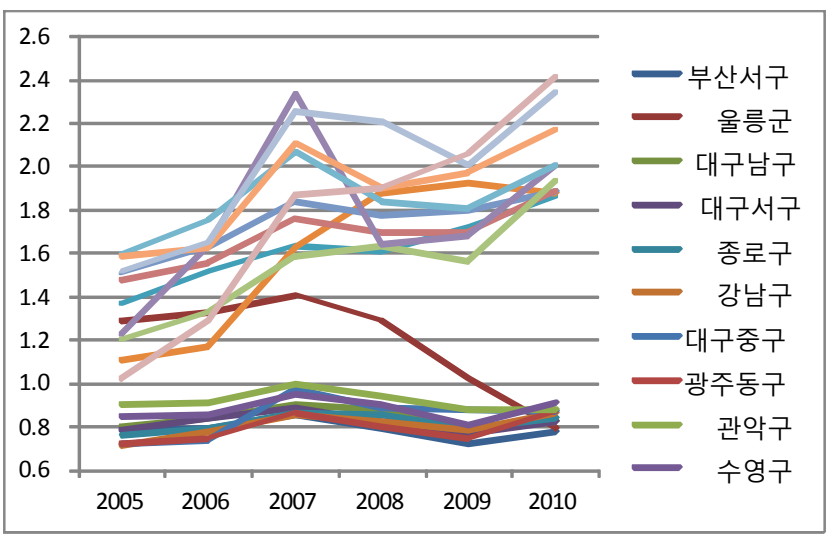
지역별 출산율의 격차는 시도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구조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도별 차이보다는 시군구의 차이가 더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구조적 맥락이 독립적으로 지역의 차별성을 구조화할 수 있는 단위는 시도보다는 시군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단위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균질적인 구조적 특성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시군구 단위는 생활 공동체로서 좀 더 균질한 특성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별 출산율의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의 격차를 비교해보면 시도 비교의 특성과 마찬가지

로 지역 간 격차가 지난 5년간 대체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는 부산서구, 울릉군, 대구남구, 대구서구, 종로구, 강남구, 대구중구, 광주동구, 관악구, 수영구이다. 반면 상위 10개 시군구는 완주군, 임실군, 거제시, 광양시, 봉화군, 보성군, 인제군, 영암군, 강진군, 진안군이다. 울릉군의 예외적 변화를 제외하고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은 서로 교차 없이 지난 5년간 격차가 유지되었다.

이런 격차는 시도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특성에 의한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3-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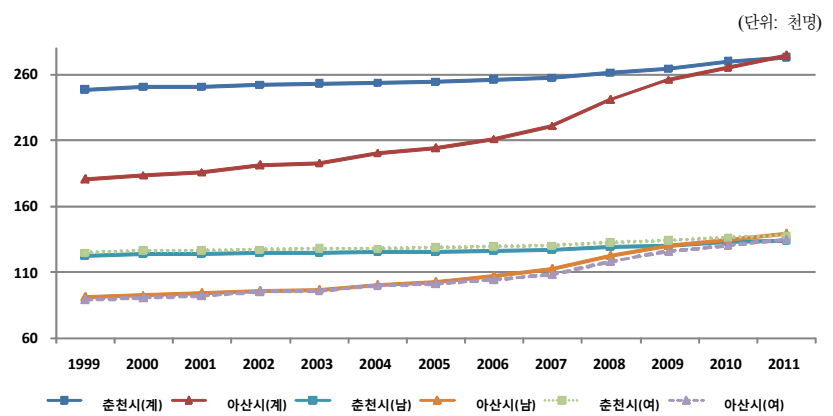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각년도.

제2절 총인구의 추이와 구조

춘천시 총인구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아산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면서 전체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성별에 다른 차이에서 춘천시는 남자 인구보다 여자 인구가 대체로 많은 상황이고 아산시는 여자 인구보다 남자 인구가 더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변화가 인구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춘천의 경우 공공서비스가 발달하여 종사자 및 학생 등의 유입에서 여자가 다수일 수 있고, 아산시는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남자 인구의 유입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3〕 총인구 추이(춘천시,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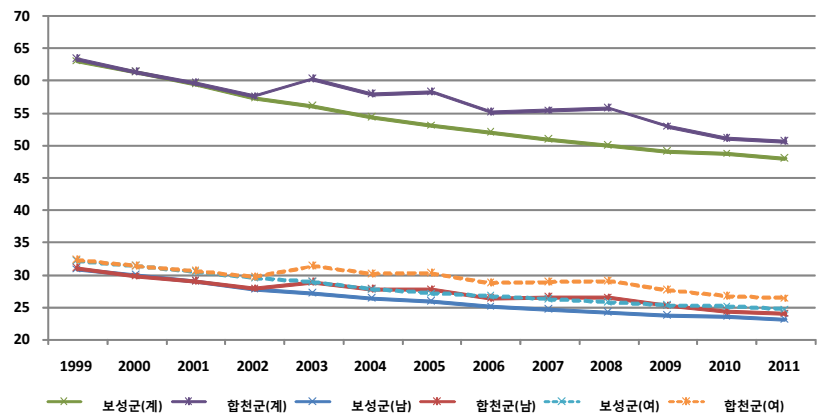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보성군과 합천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낸 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것은 발전하는 도시형 특성과 달리 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을 알

수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변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서도 남자 인구보다 여자 인구가 더 많다는 점에서 보성군과 합천군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총인구 추이(보성군, 합천군)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가임여성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가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가임여성의 규모가 아산시를 제외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2000년에 71천명에서 2010년에 69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2000년에 동일하게 18천명에서 2010년에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아산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임여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00년 가임여성규모가 49천명에서 2010년 무려 70천명까지 증가하였다. 춘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에 2천명이 감소하였고, 보성군과 합천군은 5천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아산시의 21천명 증가는 아주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전체 인구에서 가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산시를 포함하여 4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춘천시는

2000년에 가임여성비율이 28.3%로써 전국 28.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0년에는 25.7%롤 나타내 전국 26.5%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0년 사이에 2.6%p 감소한 것이다. 아산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다소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가임여성비율은 26.4%에서 2004년 27.7%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 다시 26.3%까지 하락하였다.

군 지역의 경우 시 지역과 달리 가임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 가임여성비율은 28.8% 수준인 반면, 보성군은 20.5%, 합천군은 20.4%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가임여성비율은 26.5%인 반면, 보성군은 16.7%, 합천군은 16.0%를 나타내고 있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임여성비율의 감소 추세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50세 이상 여성의 인구규모에 비해 15~49세 가임여성 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그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의 가임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더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3-1〉 가임여성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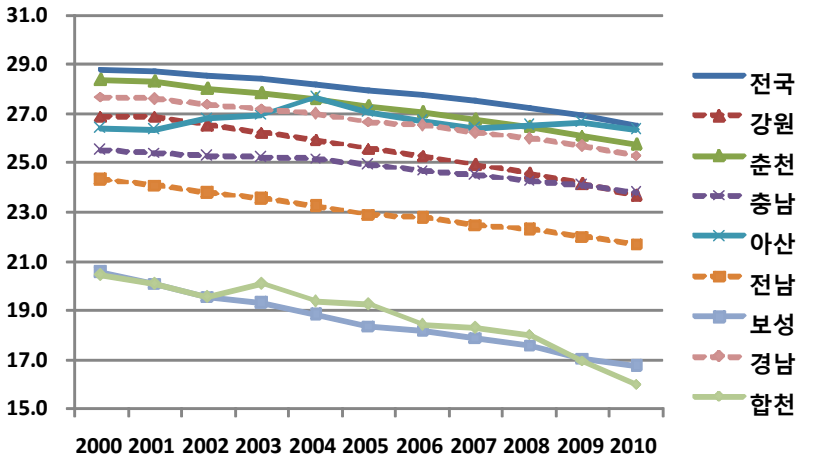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전국	13,748	28.8	13,769	28.5	13,712	28.2	13,602	27.8	13,507	27.3	13,402	26.5
강원	418	26.9	408	26.5	395	26.0	381	25.3	370	24.5	362	23.6
춘천시	71	28.3	71	28.0	70	27.6	69	27.0	69	26.5	69	25.7
충남	490	25.5	482	25.3	492	25.2	488	24.7	490	24.3	493	23.8
아산시	49	26.4	51	26.8	56	27.7	57	26.7	64	26.5	70	26.3
전남	518	24.3	488	23.8	461	23.2	442	22.7	428	22.3	417	21.7
보성군	13	20.5	11	19.6	10	18.8	9	18.2	9	17.6	8	16.7
경남	857	27.7	855	27.4	849	27.0	841	26.5	838	26.0	832	25.3
합천군	13	20.4	11	19.6	11	19.4	10	18.4	10	18.0	8	16.0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그림 3-5〕 전체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의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가임여성의 인구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임 연령층 내의 구성비일 것이다. 우리나라 일반적 특성을 보면 출산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가임여성의 연령 구성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체 여성 중 가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가임여성 연령 구성비를 살펴보면, 40~44세까지 연령층이 1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는 전국의 구성비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산시는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는데, 30대 연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40대 연령층의 비중은 30대 연령층의 비중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주 가임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여성이 많다는 것을 나

타내며, 출산율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의 경우는 가임여성 중 40대의 비중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가임여성 내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가임여성의 연령별 구성비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5 - 19세	13.1	12.3	11.5	11.0	10.9	10.9	11.2	11.5	11.8	12.2	12.5
	20 - 24세	14.0	14.2	14.3	14.4	13.8	13.2	12.4	11.7	11.2	11.2	11.1
	25 - 29세	15.7	15.0	14.6	13.9	13.8	14.0	14.3	14.5	14.7	14.1	13.5
	30 - 34세	16.0	16.5	16.5	16.3	16.1	15.7	15.1	14.8	14.1	14.2	14.4
	35 - 39세	15.4	14.9	14.9	15.4	15.7	16.0	16.6	16.6	16.6	16.4	16.1
	40 - 44세	14.8	15.5	15.8	15.8	15.6	15.4	14.9	15.0	15.6	16.0	16.5
	45 - 49세	10.9	11.7	12.3	13.1	14.0	14.7	15.5	15.9	16.0	15.9	15.9
	가임여성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춘천시	15 - 19세	13.4	12.6	12.0	11.8	11.8	11.8	12.2	12.5	12.7	12.9	13.2
	20 - 24세	14.6	14.7	14.7	14.6	14.0	13.5	12.9	12.4	12.1	11.9	11.7
	25 - 29세	15.1	14.0	13.6	12.7	12.5	12.5	12.5	13.0	13.2	13.1	12.6
	30 - 34세	15.0	15.4	15.5	15.2	14.8	14.8	14.1	13.4	13.0	13.0	13.1
	35 - 39세	15.4	14.5	14.5	15.0	15.3	15.7	16.3	16.4	16.2	16.0	16.0
	40 - 44세	15.7	16.4	16.7	16.4	16.4	16.1	15.3	15.2	15.8	16.4	16.7
	45 - 49세	10.8	12.4	13.1	14.2	15.1	15.7	16.7	17.0	17.0	16.8	16.6
	가임여성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산시	15 - 19세	12.6	11.9	11.7	11.4	14.2	12.4	10.7	10.3	10.8	11.9	11.4
	20 - 24세	15.1	14.8	16.9	17.3	18.0	17.3	16.9	15.2	13.7	12.8	13.2
	25 - 29세	17.6	16.8	16.1	15.0	13.9	14.4	15.0	15.8	16.4	15.6	14.7
	30 - 34세	17.0	17.8	17.1	16.8	15.7	15.9	16.0	16.5	16.5	16.8	17.1
	35 - 39세	14.6	14.1	13.6	14.4	13.9	14.7	15.7	16.1	16.2	16.6	16.8
	40 - 44세	13.1	14.1	14.0	13.8	12.9	13.0	12.5	12.7	13.3	13.7	14.2
	45 - 49세	9.9	10.6	10.7	11.3	11.4	12.3	13.2	13.5	13.0	12.6	12.6
	가임여성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성군	15 - 19세	19.5	18.6	17.0	15.9	15.0	14.3	13.5	13.4	13.3	13.6	13.8
	20 - 24세	18.0	18.3	17.9	17.6	16.5	15.6	15.2	13.7	13.5	13.4	12.9
	25 - 29세	11.2	10.9	11.1	11.3	11.4	12.4	13.1	13.6	13.7	13.7	13.0
	30 - 34세	11.4	11.6	11.8	11.6	11.7	11.2	11.6	12.2	12.4	12.6	13.6
	35 - 39세	12.5	12.4	12.6	12.5	12.7	12.7	12.6	13.1	13.1	13.1	12.6
	40 - 44세	14.1	14.8	15.6	16.1	15.5	15.5	15.1	14.8	14.4	14.8	15.1
	45 - 49세	13.3	13.5	14.1	15.1	17.2	18.2	18.8	19.2	19.5	18.9	19.0
	가임여성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천군	15 - 19세	17.3	16.0	14.7	13.1	12.0	11.6	11.2	11.2	11.3	11.8	12.7
	20 - 24세	16.9	17.0	17.1	17.5	16.9	16.1	14.8	14.1	12.9	12.5	11.9
	25 - 29세	12.0	11.9	12.1	12.5	12.4	13.4	14.2	14.7	14.9	14.2	13.2
	30 - 34세	12.3	12.2	12.1	12.9	12.7	11.9	11.5	11.4	11.7	12.0	12.6
	35 - 39세	13.0	12.0	12.0	12.3	13.2	13.6	13.8	14.0	14.0	13.4	12.7
	40 - 44세	14.7	16.3	16.9	16.5	15.9	15.1	14.3	13.9	14.4	15.7	16.8
	45 - 49세	13.8	14.5	15.2	15.2	16.9	18.2	20.2	20.7	20.8	20.4	20.2
	가임여성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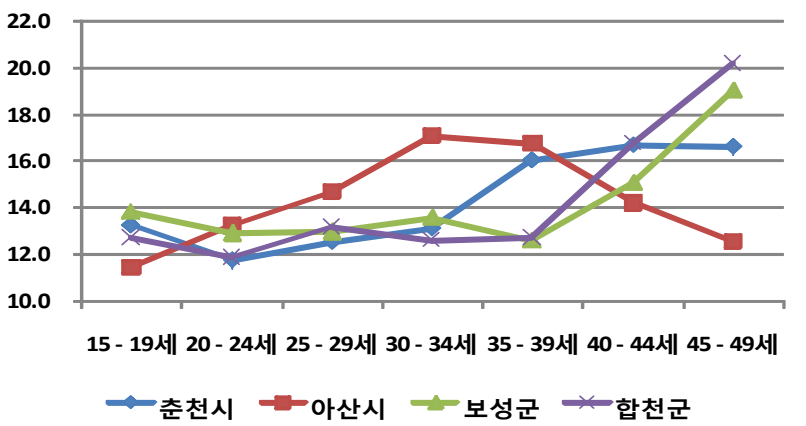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아래 그림은 가임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산율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30대 초반 연령층의 비중이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후반 연령층의 비중이 14.7%, 30대 후반 연령층의 비중이 16.8%로 높게 나타났다. 춘천시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16%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도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15~2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시와 아산시는 연령 구성비에서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이 서로 다른 유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군 지역에 해당하는 보성군과 합천군은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 모두 유사한 유형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즉 가임여성의 구성비만으로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른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6〕 가임여성 연령별 구성비(2010년)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제3절 출생

2005년 이후 4개 지역의 출생아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부침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상승추세로 판단된다. 출산율이 역대로 가장 낮았던 2005년 춘천시 출생아수 2,148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256명 증가한 2,404명을 기록했다. 아산시의 출생아수는 명확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 또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성군은 2011년에 431명을 기록하여 2005년보다 130명 증가했다. 다만 합천군은 2005년 이후 약간의 증감이 있었지만 큰 차이 없이 지체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수준은 2011년을 기준으로 보성군이 2.0으로 가장 높다. 다음은 아산시 1.8, 춘천시가 1.3, 합천군은 1.4를 기록했다. 같은 시 지역이지만 춘천시와 아산시의 출산율 격차가 0.5이고, 같은 군 지역이지만 보성군과 합천군의 출산율 격차는 0.6으로 같은 행정구역 분류에서도 출산율의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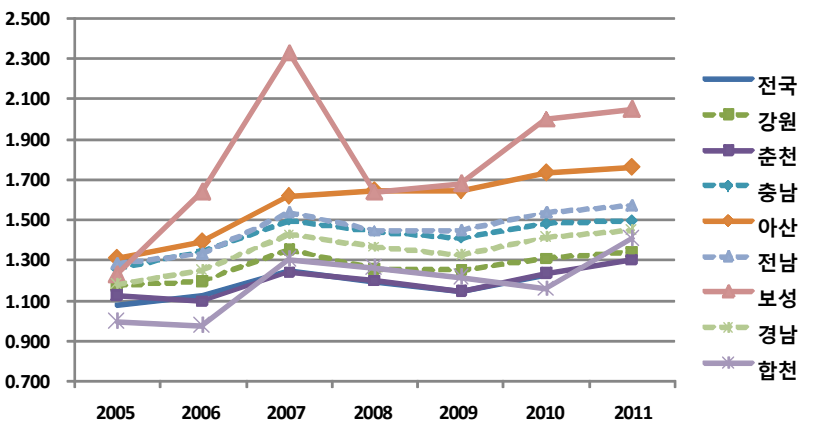
〈표 3-3〉 합계출산율 추이

시군구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강원	1.177	1.194	1.349	1.253	1.248	1.313	1.338
춘천시	1.125	1.101	1.245	1.204	1.144	1.233	1.307
(출생아수)	(2,148)	(2,066)	(2,304)	(2,220)	(2,113)	(2,276)	(2,404)
충남	1.256	1.347	1.497	1.444	1.408	1.479	1.496
아산시	1.309	1.394	1.619	1.646	1.645	1.733	1.759
(출생아수)	(2,181)	(2,380)	(2,908)	(3,218)	(3,501)	(3,830)	(3,905)
전남	1.282	1.330	1.534	1.449	1.445	1.537	1.568
보성군	1.229	1.638	2.332	1.641	1.679	2.003	2.049
(출생아수)	(301)	(389)	(549)	(385)	(382)	(438)	(431)
경남	1.182	1.247	1.429	1.368	1.323	1.413	1.446
합천군	0.994	0.974	1.304	1.260	1.216	1.162	1.406
(출생아수)	(289)	(266)	(341)	(333)	(306)	(257)	(284)

주: 출생아수는 출생통계 원자료 분석결과로 2010년까지 공개됨.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징적 현상은 출산율의 지역 격차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 지역으로 춘천시와 아산시의 격차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0.4 수준에서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보성군과 합천군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0.6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4개 지역 중에서 춘천시의 경우 전국 수준과 거의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성군은 전국의 변화 양상이 극대화된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2007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 보성군은 2.3까지 매우 크게 증가하고, 다시 2010년 전국의 출산율이 증가하는데, 역시 보성군은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보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율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합천군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특징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다. 지역별 변동 추이는 서로 다르지만, 지역 간 출산율 격차는 일정 간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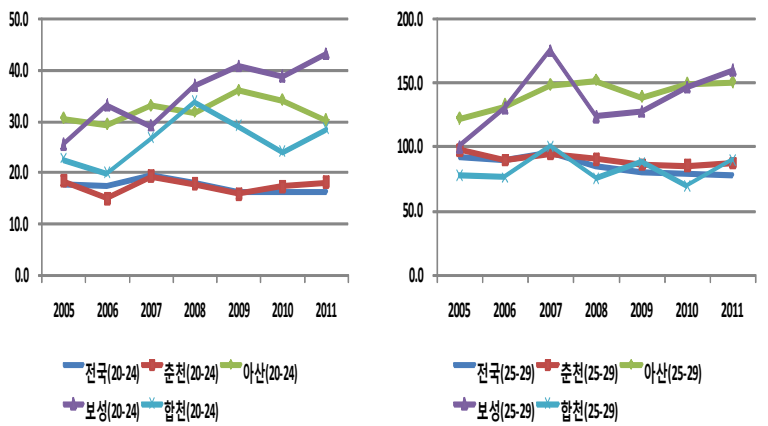
〔그림 3-7〕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4개의 지역별로 출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보성군, 아산시, 합천군, 춘천시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춘천시는 저출산 수준인 전국 수준과 유사한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보성군과 아산시 그리고 합천군은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출산율을 나타낸다.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보성군과 아산시가 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춘천시와 합천군은 전국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보면 20대 후반 출산율에서 아산시와 보성군 같은 고출산 지역과 춘천시와 합천군 같은 저출산 지역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4, 2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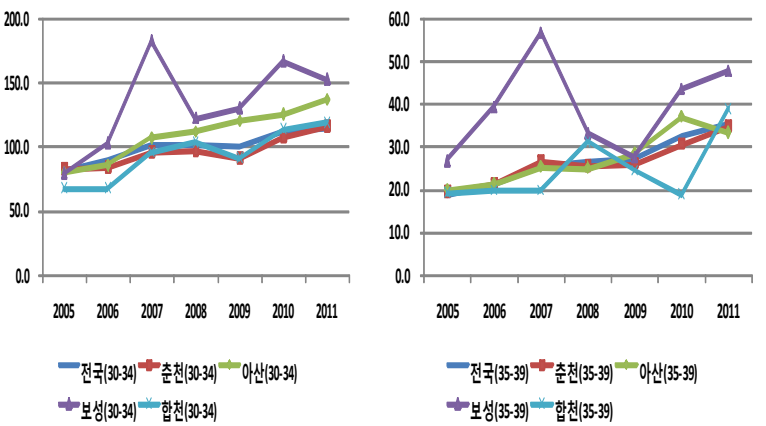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보성군이 유독 저출산 수준인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고 아산시는 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춘천시와 합천군은 전국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에서 보성군은 2009년을 제외하고 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산시는 전국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2009년과 2010년에 전국 수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춘천시는 전국 수준에 비해 약간 낮게 유지되고 있고, 합천군은 전국 수준을 상회했다 하회했다 유동적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보면 30대 초반 연령층의 출산율에서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모의 연령별 출산율(30~34,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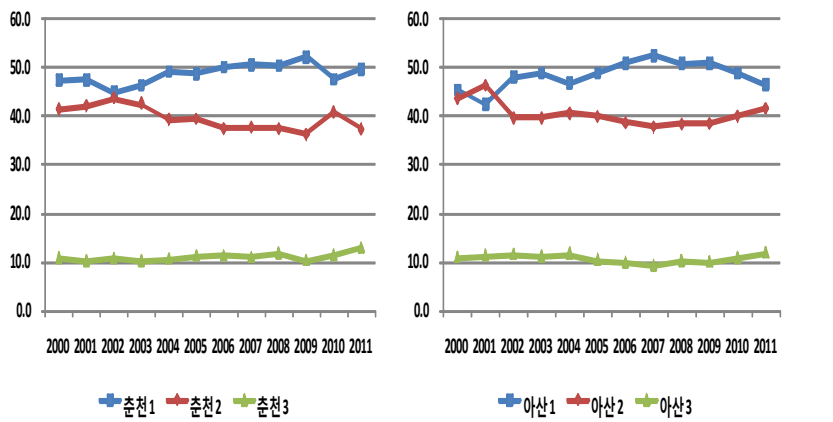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연령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은 20대 후반 연령층과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이는 주 출산 연령층에 해당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이 전체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을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대 후반 연령층과 30대 초반 연령층의 생활유형과 관련된 제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자녀양육 실태, 가용한 자원의 분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출산율 수준 측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후 이들의 경제활동 특성과 지역별 노동시장 구조, 생활세계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체 출생의 출생순위별 출생아수의 비중에서는 춘천시와 아산시는 큰 특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두 지역의 공동점으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비중이 높고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차이점은 첫째아와 둘째아의 비중 변화에서 나타난다. 춘천시의 첫째아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둘째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아산시의 첫째아의 비중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둘째아 비중은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최근 3년 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산시에서 둘째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비중의 크기도 춘천시에 비해서 아산시가 더 크다. 이런 변화가 출산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0] 출산 순위 별 출생아수 구성비(춘천시, 아산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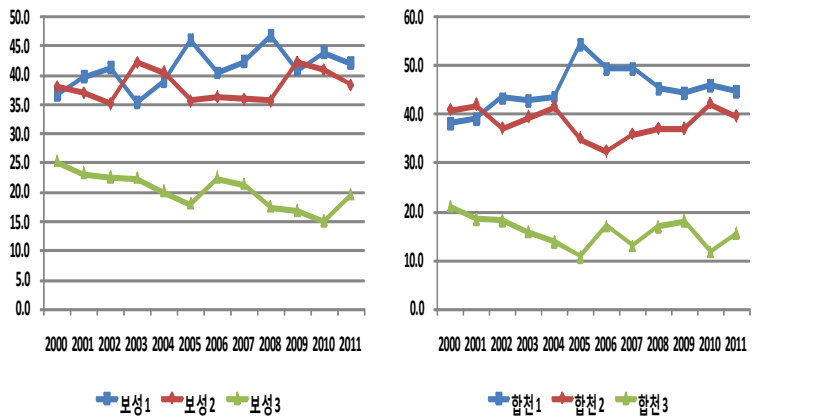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보성군과 합천군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유사점은 전체적으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비중은 높고, 셋째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보성군이 첫째아 출산 비중과 둘째아 출산 비중의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합천군은 첫째아 출산 비중과 둘째아 출산 비중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다만 최근 2년 동안 그 격차가 작아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둘

째아 출산의 비중 감소폭이 보성군에 비해서 합천군이 더 큰 것으로써, 둘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합천보다 보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합천군보다 보성군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합천군에 비해서 보성군이 셋째아까지 출산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출산 순위 별 출생아수 구성비(보성군, 합천군)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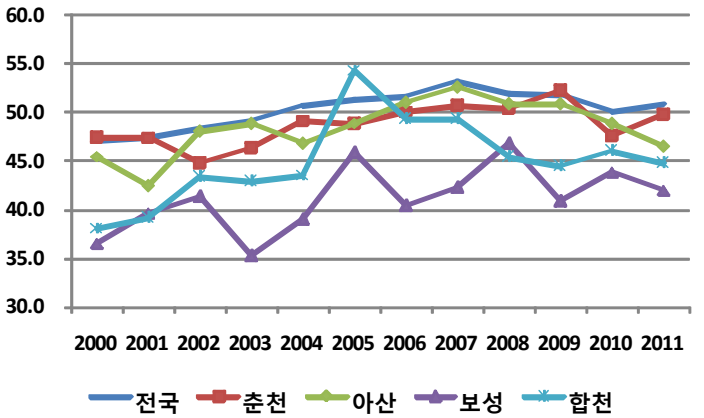
앞에서는 지역별로 출산 순위별 구성비를 살펴보았지만, 출산순위별로 비중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특성이 더 명료해질 수 있다. 우선 첫째아 비중을 지역 별로 비교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시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시와 아산시의 경우 전국 수준에 비해 약간 낮지만 군 지역에 비해서 대체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은 전국 수준에 비해 그리고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보성군은 첫째아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둘째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 지역의 둘재아 이상 출산 비중이 낮아질 것이

며, 반면 보성군과 같이 첫째아 비중이 낮은 경우는 둘째아 이상의 출산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첫째아 출산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 첫째아 출생아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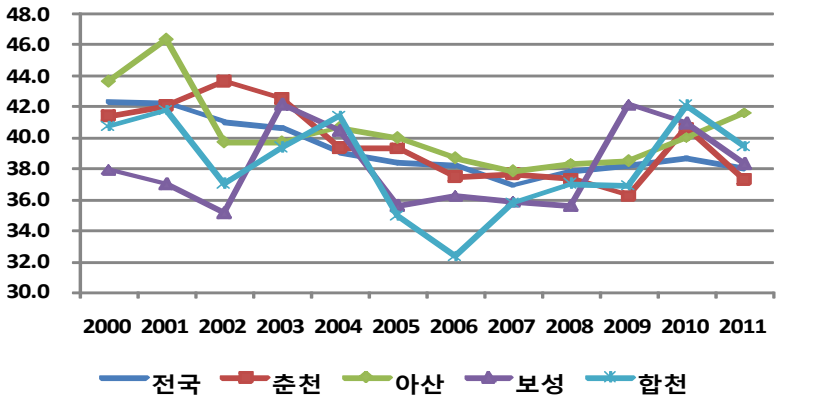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둘째아 비중만 지역 간 비교해 보면, 춘천시는 전국 수준과 유사하고, 아산시는 전국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고출산지역인 아산시가 저출산지역인 춘천시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아산시에서 둘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춘천시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대체로 전국수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전국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보성군과 합천군의 둘째아 출산 비율의 격차는 서로 높고 낮은 상태를 반복하고 있어 뚜렷한 유형을 찾기는 힘들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둘째아 출산 비율의 평균을 구해보면, 보성군은 38.1%, 합천군은 38.2%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은 합천군의 둘째아 출산 비율이 보성군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3〕 둘째아 출생아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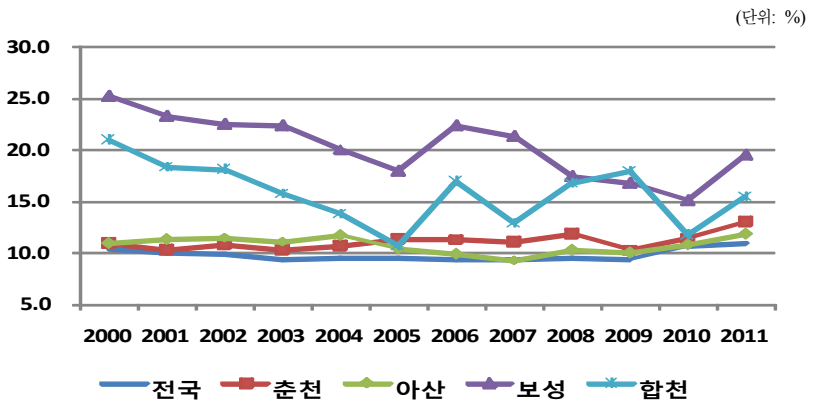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의 비중을 지역 간 비교해보면, 보성군의 경우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합천군이 보성군보다는 낮지만 춘천시와 아산시보다 높고 전국 수준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춘천시와 아산시는 전국 수준보다 높지만 군 지역에 비해서는 낮게 안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림 3-14〕 세째아 이상 출생아수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출생, 각년도.

출산행태와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춘천시는 첫째아 출산의 비중이 높지만 둘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낮고, 셋째아 이상의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아산시는 첫째 출산과 둘째아 출산의 비중이 높아 첫째아 출산 이후 둘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고, 다만 셋째아 이상의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보성군은 첫째아 출산 비중은 낮지만 둘째아와 셋째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합천군은 첫째아 출산 비중이 낮고 둘째아 출산 비중도 낮고 셋째아 출산 비중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늦은 출산은 많지만 젊은 층의 출산이 높지 않다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다음은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29.3세, 아산시는 28.5세, 보성군은 28.7세, 합천군은 28.4세로 나타났다.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는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에 비해서 0.8세 빠르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큰 차이로 보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이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보다 0.3세 빠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모의 평균연령 차이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둘째아 출산 평균 연령에서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는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에 비해서 0.7세 더 빠르다. 그리고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은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보다 0.7세 더 빠르다. 셋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는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에 비해서 1.5세 더 빠르다. 그리고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은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보다 1세 더 빠르다.

요컨대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은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에 비해서 모이 평균연령이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고출산 지역의 여성들이 저출산 지역의 여성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출산을 시작하고 종료함을 알 수 있다.

〈표 3-4〉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단위: 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춘천시	1명	27.2	27.5	27.8	27.8	28.4	28.4	28.6	28.7	28.8	29.0	29.3	28.3
	2명	29.1	29.6	29.6	30.0	30.3	30.5	30.8	31.1	31.3	31.3	31.3	30.3
	3명이상	32.1	32.3	32.5	32.1	32.8	32.7	33.5	33.5	33.8	33.5	34.3	33.0
	합계	28.5	28.9	29.1	29.2	29.6	29.7	30.0	30.2	30.3	30.3	30.7	29.6
아산시	1명	26.3	26.6	26.6	27.1	27.2	27.6	27.6	27.8	28.2	28.3	28.5	27.6
	2명	28.1	28.2	28.8	29.0	29.1	29.4	29.7	30.0	29.9	30.3	30.6	29.4
	3명이상	31.1	31.5	32.0	31.5	31.7	32.7	32.2	32.5	32.4	32.9	32.8	32.1
	합계	27.6	27.9	28.1	28.4	28.5	28.9	28.9	29.1	29.3	29.6	29.8	28.8
보성군	1명	26.1	26.8	26.4	27.1	27.5	27.5	27.2	28.0	27.7	28.1	28.7	27.4
	2명	27.9	28.1	27.8	28.7	29.2	29.8	29.7	30.4	29.8	29.4	30.1	29.2
	3명이상	31.2	31.4	31.0	32.6	32.3	31.4	32.6	33.0	32.7	32.4	32.3	32.0
	합계	28.1	28.4	28.0	29.0	29.2	29.1	29.3	29.9	29.3	29.3	29.8	29.0
합천군	1명	26.6	26.7	26.9	27.5	27.8	27.8	27.1	27.2	28.0	28.1	28.4	27.4
	2명	28.6	28.0	29.6	29.3	29.7	30.5	30.1	30.0	29.9	29.4	30.8	29.5
	3명이상	31.7	32.0	32.0	32.8	30.6	33.6	32.4	32.7	32.9	32.9	33.3	32.3
	합계	28.5	28.2	28.9	29.1	29.0	29.4	29.0	28.9	29.6	29.4	30.0	29.0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원자료, 각년도.

다음은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간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결혼시점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출산 간격은 춘천시가 13.9개월, 아산시는 13.7개월, 보성군은 11.6개월, 합천군은 14.1개월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에 비해서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가 더 짧게 나타나고, 군 지역의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에 비해서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이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출산 지역이 여성들이 저출산 지역의 여성들보다 결혼 후 더 빨리 첫째아를 출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후부터 둘째아 출산까지의 간격, 그리고 결혼 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까지의 간격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결혼 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까지 걸리는 총 기간은 춘천시가 91.7개월, 아산시가 82.5개월, 보성군은 83.2개월, 합천군은 96.2개월이었다.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이 특히 길고,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간격

(단위: 월)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춘천시	1명	13.4	14.7	14.3	15.2	15.5	14.0	15.4	14.5	13.2	13.8	13.9	14.3
	2명	42.9	43.9	43.8	45.6	46.2	49.1	49.3	50.3	50.4	48.5	47.3	46.6
	3명이상	90.6	83.4	86.8	82.8	83.5	87.0	93.4	91.4	92.9	81.3	91.7	87.9
	합계	34.1	34.1	35.2	35.3	35.0	36.2	37.3	36.8	36.7	33.6	36.5	35.4
아산시	1명	12.6	13.9	13.1	13.3	12.3	13.9	12.5	12.6	12.2	13.4	13.7	13.0
	2명	40.3	38.8	42.1	43.5	42.8	44.9	43.3	44.7	44.1	45.3	44.4	43.1
	3명이상	75.9	85.9	77.9	78.2	84.0	83.0	82.1	84.3	79.9	84.4	82.5	81.7
	합계	31.6	33.6	32.2	32.6	33.2	33.6	31.4	31.5	31.5	32.9	33.5	32.5
보성군	1명	11.2	12.5	10.8	13.9	11.8	13.8	10.5	11.3	11.6	13.1	11.6	11.9
	2명	37.9	36.3	35.6	38.5	39.7	42.0	42.1	41.8	38.5	40.0	38.9	39.2
	3명이상	85.5	83.2	76.2	94.2	73.6	80.1	83.6	88.6	84.7	90.0	83.2	84.3
	합계	40.2	37.9	34.5	42.6	35.6	35.8	38.4	38.9	34.1	37.4	33.7	37.4
합천군	1명	12.6	11.7	11.0	12.5	13.3	11.9	11.5	8.8	15.1	13.1	14.1	12.3
	2명	38.4	39.3	43.5	41.6	44.6	44.9	41.1	43.3	42.3	42.2	47.4	42.2
	3명이상	86.9	90.6	89.2	91.9	71.7	96.6	73.9	91.0	94.3	94.1	96.2	88.7
	합계	38.5	37.9	37.6	36.8	34.5	32.9	31.5	32.3	38.7	38.6	37.9	36.3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원자료, 각년도.

다음은 지역별로 출생아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출생성비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화 초기 남아 선별 출산 경향이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난 바가 있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서 관찰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선별 출산의 경향성을 찾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셋째아의 성별 분포는 남자 52.1%, 여자 47.9%였고, 아산시는 남자 53.5%, 여자 46.2%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남자 48.5%, 여자 51.5%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남자 56.7%, 여자 43.3%로 나타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4개 지역 모두 남자가 60%수준, 여자가 40% 수준을 보였던 점과 비교하면, 2010년의 경우 남아 선별 출산의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합천의 경우 다소 남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일부 남아 선별 출산의 경향을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표 3-6〉 출산순위에 따른 성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춘천시	1명	남자	52.2	52.9	53.3	51.7	52.0	53.9	53.9	50.8	51.2	49.9	53.4
		여자	47.8	47.1	46.7	48.3	48.0	46.1	46.1	49.2	48.8	50.1	46.6
	2명	남자	54.2	50.5	51.1	51.0	53.6	49.6	51.1	49.7	51.0	52.0	50.6
		여자	45.8	49.5	48.9	49.0	46.4	50.4	48.9	50.3	49.0	48.0	49.4
	3명이상	남자	58.8	52.4	60.7	55.9	59.7	58.3	58.3	51.8	54.0	54.1	52.1
		여자	41.2	47.6	39.3	44.1	40.3	41.7	41.7	48.2	46.0	45.9	47.9
	전체	남자	53.7	51.8	53.1	51.8	53.5	52.7	53.4	50.5	51.4	51.1	52.1
		여자	46.3	48.2	46.9	48.2	46.5	47.3	46.6	49.5	48.6	48.9	47.9
아산시	1명	남자	52.9	50.4	48.0	50.8	47.6	51.6	51.8	52.3	50.2	49.4	53.0
		여자	47.1	49.6	52.0	49.2	52.4	48.4	48.2	47.7	49.8	50.6	47.0
	2명	남자	51.2	51.0	50.4	51.4	51.2	50.4	49.9	49.9	52.1	51.4	51.2
		여자	48.8	49.0	49.6	48.6	48.8	49.6	50.1	50.1	47.9	48.6	48.8
	3명이상	남자	61.7	54.2	55.8	59.5	61.6	56.6	54.9	58.9	48.9	55.7	53.5
		여자	38.3	45.8	44.2	40.5	38.4	43.4	45.1	41.1	51.1	44.3	46.5
	전체	남자	53.1	51.1	49.8	52.0	50.7	51.7	51.4	52.0	50.8	50.8	52.3
		여자	46.9	48.9	50.2	48.0	49.3	48.3	48.6	48.0	49.2	49.2	47.7
보성군	1명	남자	51.2	50.3	48.3	51.2	59.0	51.4	45.9	58.2	46.1	55.1	44.8
		여자	48.8	49.7	51.7	48.8	41.0	48.6	54.1	41.8	53.9	44.9	55.2
	2명	남자	48.3	48.9	46.4	52.4	51.8	51.4	50.4	52.8	46.7	48.4	50.3
		여자	51.7	51.1	53.6	47.6	48.2	48.6	49.6	47.2	53.3	51.6	49.7
	3명이상	남자	62.9	51.3	50.0	55.1	50.7	51.9	55.2	49.6	46.3	54.7	48.5
		여자	37.1	48.7	50.0	44.9	49.3	48.1	44.8	50.4	53.7	45.3	51.5
	전체	남자	53.1	50.0	48.0	52.6	54.4	51.5	49.6	54.4	46.4	52.2	47.6
		여자	46.9	50.0	52.0	47.4	45.6	48.5	50.4	45.6	53.6	47.8	52.4
합천군	1명	남자	53.8	49.4	47.0	57.2	49.3	49.0	43.5	53.6	53.0	52.2	50.8
		여자	46.2	50.6	53.0	42.8	50.7	51.0	56.5	46.4	47.0	47.8	49.2
	2명	남자	54.1	57.2	51.9	56.6	45.2	47.5	57.0	54.9	53.7	48.7	48.1
		여자	45.9	42.8	48.1	43.4	54.8	52.5	43.0	45.1	46.3	51.3	51.9
	3명이상	남자	60.0	63.2	69.8	62.3	44.4	54.8	62.2	56.8	60.7	36.4	56.7
		여자	40.0	36.8	30.2	37.7	55.6	45.2	37.8	43.2	39.3	63.6	43.3
	전체	남자	55.2	55.2	53.1	57.8	46.9	49.1	51.1	54.5	54.5	48.0	50.4
		여자	44.8	44.8	46.9	42.2	53.1	50.9	48.9	45.5	45.5	52.0	49.6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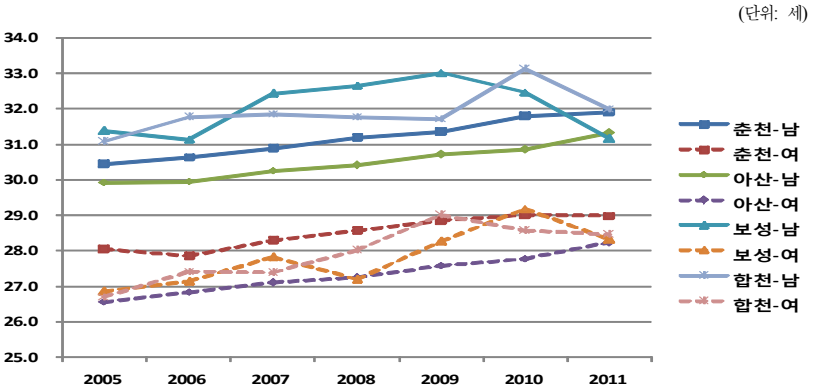
제4절 혼인

혼인행태에서 지역 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산시였다. 다음은 춘천시였고, 보성군과 합천군은 서로 수준이 교차하지만 춘천시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최근 2년 동안 두 지역 모두 감소하여 보성군은 아산시와 유사한 수준이고 합천군은 춘천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11년을 기준으로 군지역의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은 시 지역의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유사해졌고, 군 지역의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은 시 지역의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유사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출산 지역 남자 평균 초혼연령과 저출산 지역 남자 평균 초혼연령이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춘천시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고 아산시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게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은 변동이 크고 합천군보다는 보성군의 여성 평균 초혼연령이 대체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3-15〕 평균초혼 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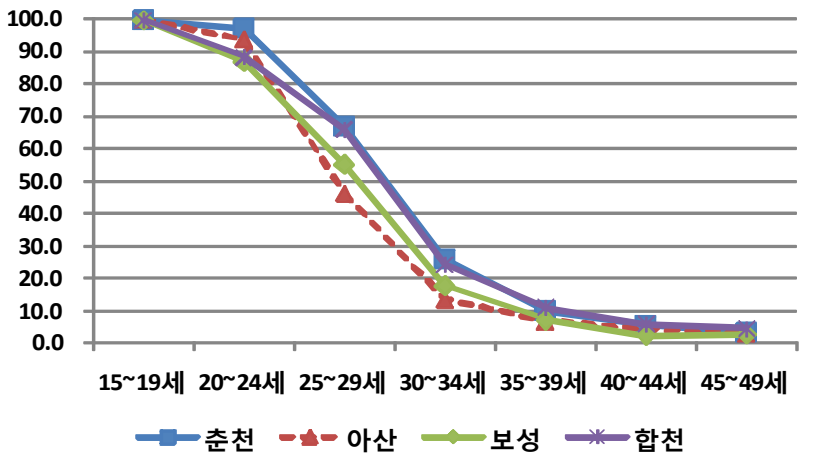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혼인, 각년도.

연령별 미혼율을 분석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매우 낮다. 즉 국내 전체 출산 건수의 절대 다수가 법적 혼인상태의 출산으로써, 출산율 예측에서 혼인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찰될 수 있다. 지역별로 연령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의 차이가 특히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5~29세 연령층의 경우 고출산 지역에 해당하는 아산시는 46.3%, 보성군은 55.1%로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 66.9%, 합천군 66.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미혼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혼율이 높은 것은 지역의 출산율에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의 특성 차이는 2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30~34세 연령층의 경우도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이 각각 13.5%, 17.8%인 반면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은 26.0%, 24.3%로 나타나 이 같은 경향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3-16〕 연령별 미혼율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 인구주택 총조사, 2010년.

〈표 3-7〉 연령별 미혼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99.6	96.0	69.3	29.1	12.6	6.2	3.3
춘천	99.7	97.0	66.9	26.0	10.2	5.7	3.4
아산	99.6	93.7	46.3	13.5	6.7	4.5	2.8
보성	99.6	86.9	55.1	17.8	7.1	2.5	2.8
합천	99.6	88.2	66.0	24.3	11.1	6.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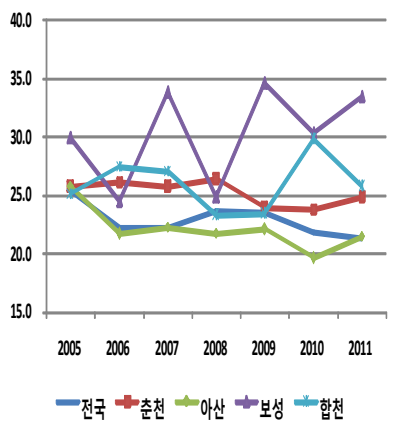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주택 총조사, 2010년.

혼인 종류에 따른 차이에서는 보성군과 합천군의 재혼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전국 수준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성군의 경우 재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군 지역에서 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높은 것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아내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성군과 합천군이 15~25% 범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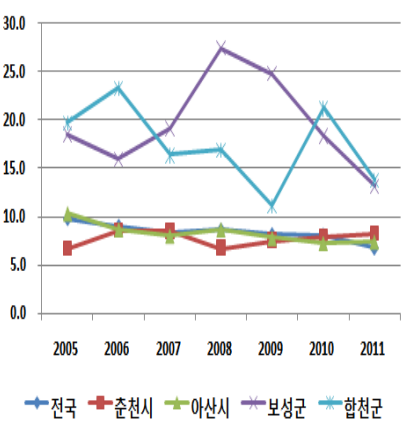
〔그림 3-17〕 혼인 중 재혼과 외국인 아내의 비율

(단위: %)

<재혼>



<외국인아내>



자료: 통계청(KOSIS), 인구동태-혼인,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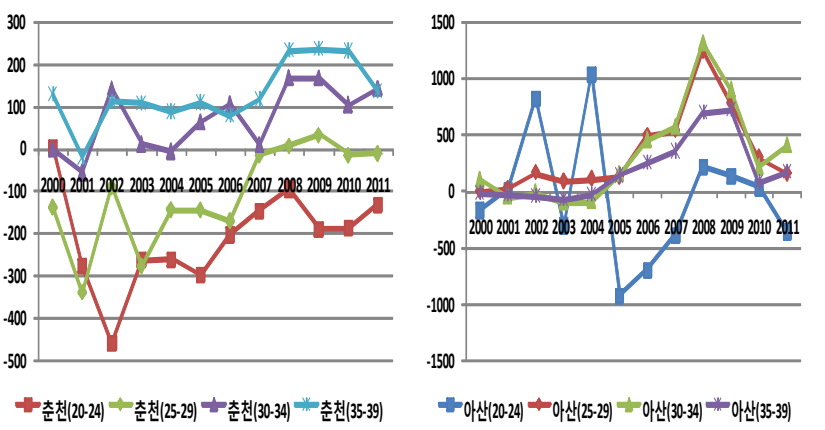
제5절 이동

가임연령층의 인구이동은 출산율의 변동에 용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인구이동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춘천시의 경우 20~24세 연령층은 순유출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2006년을 기점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30대의 경우 대체로 순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춘천시의 경우 도청 소재지로서 교육 및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였고, 이런 점이 25세 이상 가임여성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산시는 최근 5년 동안 25~39세까지 모두 순유입되었고, 20~24세 연령층은 순유출이 컸으나 최근 5년 동안 순유출과 순유입을 반복하였다. 아산시의 젊은 층 인구이동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발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산시는 최근 몇 년동안 이와 같은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8〕 주 가임연령층의 인구 순이동(춘천시, 아산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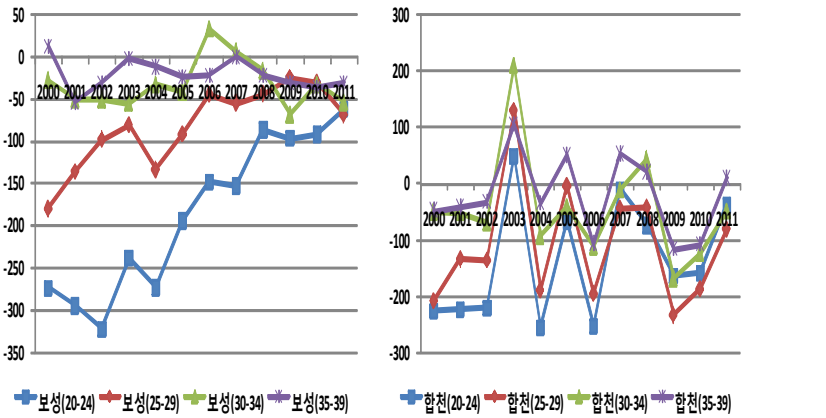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이동, 각년도.

보성군은 비교적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데, 20~24세 연령층의 순유출이 2000년 초반에는 매우 컸으나 최근 순유출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25~29세 연령층도 2000년대 초반에 순유출이 큰 편이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30~34세 연령층은 대체로 변동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순유출되고 있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층이 순유출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합천군은 20~24세 연령층, 25~29세 연령층, 30~34세 연령층이 대체로 순유출되고 있고 그 규모의 변동이 매우 크다. 35~39세 연령층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체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순이동에서 유출과 유입을 반복함으로써 도시의 인구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19〕 주 가임연령층의 인구 순이동(보성군, 합천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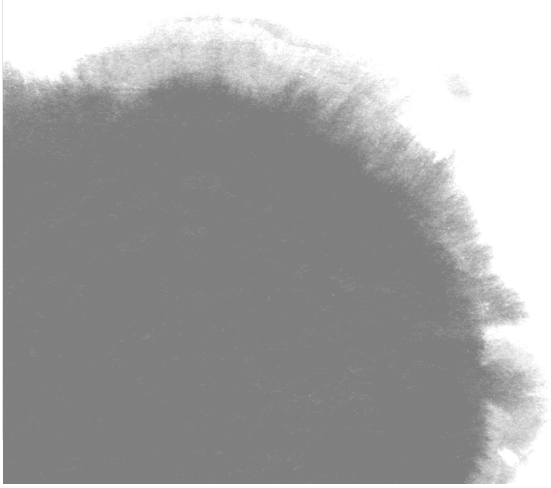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인구이동, 각년도.

KIHASA

4장

생활세계의 특성



제4장 생활세계의 특성

이 장에서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출산율 차이의 문제를 지역 생활세계의 구조변동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국적 수준에서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역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출산율의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며, 특히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관련해서는 인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 문제를 주로 인구학적 차원에서나 경제학적 차원에서 분석해왔던 기존 연구 경향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Preston, 1987; Lesthaeghe and Surkyn, 1988; Pollak and Watkins, 1993; 이삼식, 2005). 기존 연구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유용하지만, 집단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 출산율의 변화가 경제적인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를 보완하여 개인의 가치관, 구체적으로는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타났다.

이삼식·신인철·조남훈의 연구(2005)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수준의 상승,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만혼이나 비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삼식(2005)은 같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조사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가치관이 실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결혼과 출산의 행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별도의 논고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이행의향 및 결혼계획 연령에 대한 분석모형에서 개인의 가치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약화, 성역할에 관한 남녀의 의식괴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방영이(2010)도 마찬 가지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적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책적 관점에서 '재발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정책이 주로 사회인구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확실히 이들 연구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설명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측면을 '가치관'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여, 출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개인 수준의 가치관 변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치관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객관적 지표로 설정하고, 조사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결혼과 출산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과연 정책적 실효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기존 연구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가치관은 이들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한 출산장려정책은 한계가 명확해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시도라는 것도 비우호적인 가치관을 만들어낸 축적된 역사적 토대, 생활세계적인 이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관의 변화라는 문제는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종속변수라고 할 것이다. 즉 가치관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낳는 생활세계의 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별, 계층별, 성별로 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가의 문제, 더 나아가 가치관의 차이가 실제 지역별로 확인되는 출산율의 차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가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현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적 수준에서는 출산율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며, 더욱이 지난 10년간 이런 지역적 차이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지역별 출산력의 격차현상은 문화적으로는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먼저 각 지역의 생활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들을 인문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같이 겪으면서도 인문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사회변화의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재 지역의 생활세계에 반영되어 있다. 우선은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의 지역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의 생활세계가 가진 차이점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결혼, 자녀, 성역할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치관을 사례지역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종전까지 출산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전국적 수준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지역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개인의 출산가치관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전국적 수준에서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치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생겨난다. 이 장에서는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징들을 검토하면서 정리된 몇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치관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제1절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1. 도시화와 도시·농촌의 생활세계

이미 많은 고전적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출산을 통한 노동인구의 집적은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수단 중 하나였다. 기술의 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은 기후와 토지의 크기 및 질에 좌우되기 마련이었는데, 가족 단위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사회규범들이 대체로 출산, 특히 남아의 출산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출산가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가진 영향력이 지적되어 왔지만(Kwon, 1977), 사실 이 유교주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농업이 주가 되었던 전통사회의 생활세계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았다. 생산과 노동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생활세계의 조건 속에서 출산, 특히 남아의 출산이 당연히 강조되었고,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규범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 또한 이러한 가족의 가치 속에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출산가치는 비단 유교주의의 동양사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농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

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했다(Gillis, Tilly, Levie, 1992). 우리사회에서 유교주의가 전통적 가족가치의 원천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이 이념체계가 이러한 농경사회 특유의 생활세계 규범과 관련해서 베버(Max Weber)적인 의미에서의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은 이렇게 개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동체적인 생활세계가 해체 또는 약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생활세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으로 도시화를 수반하게 된다. 출산에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이 대체로 조사지역이 도시이냐 농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도시화가 야기한 생활세계의 변화가 개인의 출산가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도 도시화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던 중요한 사회적 과정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집중적 투자하는 국가주도 자본주의화를 추진했다. 이와 같은 발전국가 전략은 고도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당시 사회의 다수를 점했던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 불균형과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생계와 생활을 위해 사람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몰려들었으며, 반대급부로 농촌지역은 줄어들고 농촌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생활세계의 차원에서도 도시화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기존의 농촌마을에서 행해져왔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극단적으로는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적 조직인 마을 주민조직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김태연 외, 2008). 도시 또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익명성의 강화, 생활환경의 악화, 공간의 위계적 분화 등에 의해 생활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 양쪽 다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했고, 지역별 경제·사회 문제와 더불어 출산력 격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후술하겠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적 규범체계가 약화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출산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점차 생존을 위한 전략의 차원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이다(장경섭, 2009).

하지만 도시화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또 이를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화의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들이 대체로 거시적 측면이 강해서 생활세계에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을 가늠하는 데 쉽지 않고, 또 행정의 경계가 자주 바뀌면서, 도시와 농촌 자체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부터 지방행정 개편으로 시와 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 시가 탄생된 이후에는 단순히 행정적 단위로 도시와 농촌을 판별하기도 어려워졌다. 물론 이와 같은 행정 개편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와 격차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는 시와 군의 통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비교우위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다(홍준현, 2005; 박지형 외, 2007 재인용). 세계화와 지역화의 국면 속에서 지역 간 공간상 상대적 역학관계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급속도의 변화 속에서 지역 별로 다양한 도시개발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민말순, 2007; 조명래, 2000; 전영옥, 2004, 2006; 이웅규, 2009 재인용). 1995년 이후 총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탄생하며, 행정비용의 절감, 공공서비스 생산의 규모경제 실현, 지역균형개발 효과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이성로, 2003). 하지만 농촌과 도시의 행정적인 통합이 농촌지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이후 농촌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 증대 등의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1] 농촌의 생활세계는 더욱더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박대식 외, 2007).

그렇다면 도시와 농어촌은 어떻게 구별될까. 공간의 행정적 구분과는 별도로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은 주로 지역의 주산업과 직업 종류의 비율 등에 따라 구분된다(김은설 외, 2007).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에 더해서 공업개발 여건, 주산업 및 인구구조 등 상이한 주요성장(결정)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다. 도시화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반면 전형적인 농촌이나 어촌, 산촌의 전통적인 산업에 치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김은설 외, 2007).

도시화를 지역발전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경우(박범조, 1998; 조상필, 1995)에는 인구, 산업(제조업), 3차 산업 등 도시화의 변수를 지역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하창현, 2007). 그 중 산업지표는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는데, 하창현(2002)은 경상남도의 시·군 간 지역발전을 분석하면서 인구 및 산업요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9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농어촌에 적용하여 그 유형을 분석한 연구도 나타났는데, 이동필(1996)은 공업개발의 여건을 측정하는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단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을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은 도시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되며, 특히 1995년 이후 도농복합시가 탄생하면서는 단지 행정단위 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지게 되었다. 예컨대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시 단위에서 춘천시와 아산시, 군 단위에서 보성군과 합천군을 사례로 선정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춘천과 아산을 도시, 보성과 합천을 농촌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춘천시의 경우, 도심부는 오랫동안 주변 지역과 고립되어 발전해

---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년 제정, 2005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왔지만, 1995년 1월 1일부로 춘천군과 통합되어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되었다(김원동, 2009). 이후 춘천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심부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켰으며(이석권 외, 2008), 2009년 8월 경춘 고속국도 개통,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을 계기로 도시의 경제구조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을 보인다(최석호, 2008). 하지만 이런 춘천시의 발전이 도심부 밖의 농촌지역까지 파급되어 애초 도농복합의 정책의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도시 발전은 도심부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춘천시 내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농촌적인 특징이 강하며 오히려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원동, 2006; 김원동, 2009 재인용).

따라서 행정구역을 근간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획하거나 도시화의 정도를 지역발전의 기준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 출산율의 차이를 낳게 되는 실질적인 생활세계가 결국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각 지역의 생활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지역 생활세계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역의 수준에서 출산율의 지역별 차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 사례를 비교했을 때, 왜 같은 도시임에도 아산시는 춘천시보다 높은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같은 농촌이라고 해도 합천군은 보성군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사례지역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는 역사적으

로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이며, 근대적 도시화의 역사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된 지역이다. 춘천시의 연혁을 추적해 보면, 춘천시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졌다. 『삼국사기』를 보면 춘천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맥국의 수도"였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춘천 일대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이후에도 춘천은 군사적 요충지로써 항상 중앙정부가 중시했던 지역이었고, 중앙정부가 파견한 주둔군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행정 중심지의 역할 또한 겸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춘천은 고구려와 신라의 변경지대에 속했고, 따라서 양국 다 춘천을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삼았다.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가 등장한 이후에도 춘천의 군사적 가치는 계속 유지되었는데, 춘천은 여전히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주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변경이 북쪽으로 확장된 조선시대에도 춘천은 강원도의 중요한 행정 도시로 여전히 중요했다. 특히 조선 말 외세의 도전이 거세어졌을 당시 조선 왕실은 춘천에 이궁(離宮)의 설립을 시도했을 정도였다. 화서학파로 불리는 위정척사파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춘천 일대였다.

이런 춘천의 도시적 가치는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제가 지방통치를 실시할 당시에도 춘천을 강원도의 행정적 중심지로 삼았고, 일본인들의 거류도 활발했다. 해방 이후 춘천은 몇 차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거쳐 1946년 시로 승격되었다. 이미 해방초기부터 강원도의 행정중심지라는 위상을 계속 이어 다른 도시들보다 한발 빠르게 '도시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춘천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큰 시련을 겪는다. 격렬한 전투로 기존의 시가지는 거의 파괴되었고, 재건과정에서 월남민이 대거 거주하고 미군부대도 주둔하게 되면서 도시의 구조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춘천의 도심지역이 주변지역의 경제, 문화권과 단절되면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경제와 중앙정부에서 부여받은 관청소재지로서 고립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춘천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근 지역의

전통적 생활세계와 단절되는 양상을 겪게 된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대단히 오랜 기원과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들이 그러한 지역적 공동체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면서 개별화, 익명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춘천은 도시적 발전에서 있어서 애초부터 산업적 기반이 크지 않았다. 1950년대 원조경제의 여파로 융성했던 적은 있지만, 주변의 지역과 연계성이 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도시의 발전은 거점의 중요성을 중시했던 중앙정부의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춘천은 1950년대 군사도시에서 1960년대 춘천댐, 의암댐으로 호반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군사경기가 쇠퇴한 이후에는 강원도의 행정중심지이자 교육의 중심지로써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도시 내부의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도시구조의 이질성, 도시주민의 외래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석권, 2009).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5년 춘천시는 주변의 춘천군과 통합하여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도심과 농촌이 행정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사실에 그쳤을 뿐,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까지에 이르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춘천시의 발전이 인근 농촌지역과는 단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발전 또한 외부의 투자가 도심지역의 개발만을 추동했을 뿐, 도심과 농촌을 아우르는 공통된 생활세계의 기반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 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농촌적 색채가 강한 채로 남아있는 반면, 춘천의 도심은 이러한 농촌지역과는 별개로 행정서비스, 교육, 그리고 관광을 산업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의 고립은 춘천이 2000년대 이후 관광레저 산업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춘 고속국도의 개통과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은 춘천과 수도권 사이의 시간적 제약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심의 생활세계가 훨씬 더 수도권의 도시형 생활세계와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상의 변천과정을 통해 춘천시의 생활세계가 가진 특징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춘천시는 전국적 수준에서도 거점도시로서 일찍이 성장해왔으며, 한국전쟁과 이후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주변 지역의 농촌형 생활세계와 고립된 도시형 생활세계를 발전시켜왔다. 도심부와 농촌은 산업의 측면에서도 공동된 생활기반을 가지지 않은 채 분리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 도농복합형의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서비스와 교육이 중심이었던 춘천시는 전통적인 농업기반 산업도,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 등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합을 넘어서는 도농지역의 사회통합 및 경제적 발전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춘천시는 2000년대 들어 관광레저도시로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도심과 농촌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에서 오히려 도심부의 생활세계를 수도권과 더욱 긴밀히 연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도심부의 생활은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생활세계의 연장선상에서 특징을 공유하게 되는 반면, 주변 농촌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아산시는 춘천의 생활세계 형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수도권의 평균과 비슷한 춘천시의 낮은 출산율과는 달리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산시 일대도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연원이 깊다. 전형적인 촌락도시인 아산시 일대는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했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환경이 농업생산에 적합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했는데, 아산시의 모태가 되는 온양읍은 이 지역의 풍부한 생산물들이 집결하는 거점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재지사족들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현재 아산시의 행정적 경계가 대략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일제 시대였는데, 온양읍을 중심으로 한 아산군이 이때 획정되었다. 해방 이후 얼마지 않아 시로 승격

했던 춘천과는 달리, 아산은 1980년대까지도 농촌촌락으로 존속하면서 농어촌 중심의 생활세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아산은 전형적인 농어촌 촌락이었지만(김태연 외, 2008), 농업, 어업 물산이 비교적 풍부하였고 온천 등 전국적인 관광자원도 갖추고 있었다. 풍부한 농업, 어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생활경제도 비교적 충실한 편이었는데, 농촌의 피폐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농촌지역 조직이 건재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즉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농촌의 생활세계 구조가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채, 주민생활의 기초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단일조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환경농업 생산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485농가의 참여)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산은 현충사를 비롯하여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외암민속마을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지로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관광산업 또한 이러한 생활세계를 지탱하는 주요한 산업적 원천으로 작동했다(김태연 외, 2008).

아산군의 중심지인 온양읍은 198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양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온양시는 1995년 도농복합 형태의 행정개편으로 아산군과 다시 통합하여 아산시가 되었다. 춘천시가 비교적 일찍부터 도심이 주변의 농촌지역과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과 격차가 컸던 것과 달리, 아산시는 온양시의 승격 당시에도 관광휴양도시와 농촌 촌락도시의 특징이 강했고, 비교적 주변 농촌지역과 생활세계적인 기반을 같이 공유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도농복합의 취지가 비교적 효과를 발휘했던 지역이 바로 아산시였던 것이다.

게다가 아산시는 1990년대 중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아산시에 대기업의 산업시설이 유치되면서 제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은 400% 이상 성장했고, 같은 시기 인구도 2배 이상 성장했다. 이러한 산업성

장이 인근의 주민 및 도시화로 아산시를 떠났었던 취업인구를 끌어들이면서 최근의 지역도시로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지역 내의 경제적 위상도 높아져서 이미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는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이형상, 2011). 최근 아산시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의 정책목표에 따라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첨단 미래도시 건설, 산·학·연·등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 건설 및 업무·교육·문화공간이 마련된 아산만광역권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활동이 활발해지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공간적, 기능적 연담화로 경기 남부권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양지수, 2008).

물론, 이러한 급격한 산업발전은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생활세계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생활환경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농간의 연계가 완전히 파괴된 춘천시와 달리 아산시는 아직도 일정 정도 전통적인 생활세계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구조와 더불어 아산시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요컨대, 아산시는 춘천시와는 달리 주변의 농촌 및 어촌, 그리고 관광휴양 자원 등을 기반으로 촌락도시의 형태로 완만하게 성장했으며, 최근 첨단산업공단의 유치를 통해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측면에서도 도심부와 주변 농어촌 지역 사이의 단절은 춘천만큼 강하지 않고, 주변의 농촌지역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농촌조직을 운영할 만큼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시 자체가 공동체적 기반을 일정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산업발전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기반을 급속도로 붕괴시키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 인구의 유인이라는 점에서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산시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시의 산업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지역산업의 발전이 주민의 소득수준을 올렸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으로 바탕으로 출산율

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성장률의 바탕에는 애초 아산시가 농촌공동체에 기반을 둔 생활세계가 오랫동안 존속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구의 유입이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 초기의 공업도시들에 비해 기존의 생활세계가 붕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촌의 생활조직이 아직도 일정정도 건재하고, 지역산업을 통해 생활세계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은 출산율이 높은 농촌인 보성군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중앙 최남단에 입지한 농어촌지역으로, 보통 개발의 혜택에서 벗어난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손준수, 2002). 하지만, 보성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차(茶)로 대표되는 지역산업이 충실한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산과 바다, 호수의 고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되어 관광자원이 발달되어 있고, 이에 더불어 21세기의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 보성군은 백제시대부터 차를 생산해 온 전통 산지로서, 일제시대인 1939년 경성화학주식회사가 30ha 규모의 대규모 다원을 조성하면서 재배차가 도입되었다. 그 후 영역을 확장해가며 1990년대 후반부터 “범군민 차밭조성 10개년 계획”(10년간 300ha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차밭 복구 및 조성에 주력하였다(김정호 외, 2004). 이를 통해 녹차 관련 상품이 관광 상품으로서 각광받으며 보성군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녹차 산업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며 관광객 유치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보성군은 전국적 차원에서는 농촌지역의 낙후, 인구의 유출, 노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고유성(Authenticity)을 특화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지역사례가 될 수 있었다(박창규, 2006). 특히 관광자원의 특징과 행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

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이후 전라남도의 관광객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보성군은 31.1%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손준수, 2002). 이처럼 보성군은 농촌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활성화시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는 곧 지역 공동체 유지 및 지역발전에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발전이 정체된 지역이었던 보성군은 농촌기반의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켰고,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천군의 입지조건은 도심인 광주와 산업단지인 광양만 사이에 끼어 있는 보성군과 비슷하게, 근처에 대구라는 도심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경상남도 중에서도 가장 큰 지방행정단위이지만,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협소한 경지면적 때문에 농업의 규모도 영세한 편이다. 농촌기반의 관광사업,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보성군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합천군은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인근 도시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합천군은 1시간 거리에 대구가 인접해 있어서 많은 인구이동이 있는 지역이다. 이는 2010년도 합천군 12세 이상 인구 39,895명 중 27,621명이 통근 또는 통학을 하는 실태를 통해, 주변 대도시 권역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 자체가 1960년대 울산공업단지 조성과 1970년대 창원공업기지 건설 등 우리나라의 공업화 정책에 따른 국가공업정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서 개발된 대표적인 지역(하창현, 2007)이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 내부의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세계의 해체 정도가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합천군이 보성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

3. 지역의 안전과 신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생활세계의 지역적 특징은 주민들의 가치관, 더 나아가 출산율의 차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일까. 사례지역의 출산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가치관의 측면에서 사례지역들은 몇 가지 구별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우선, 도시지역 중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조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결혼의 유지와 관련해서도 자녀나 가족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전국의 평균치를 따르지만, 향후의 출산계획의 측면에서는 다른 조사지역에 비해 적극적이며, 특히 여성의 적극적 응답률이 주목된다. 성별가치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으로, 성역할의 고정적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춘천의 결혼, 자녀, 성역할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 두는 경향이 강하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우리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춘천시의 주민들은 42.3%의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15% 남짓에 불과한 농촌지역과도 뚜렷하게 대비될 뿐만 아니라, 도시인 아산시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표 4-1〉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정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체	42.3	100.0(421)	29.3	100.0(441)	16.3	100.0(270)	15.1	100.0(279)
성별								
남	41.6	100.0(178)	24.9	100.0(173)	15.1	100.0(126)	15.0	100.0(113)
여	42.8	100.0(243)	32.1	100.0(268)	17.4	100.0(144)	15.1	100.0(166)
연령								
20대	45.7	100.0(116)	32.7	100.0(98)	19.1	100.0(47)	14.3	100.0(49)
30대	45.2	100.0(135)	34.3	100.0(172)	17.6	100.0(91)	12.8	100.0(86)
40대	37.6	100.0(170)	22.2	100.0(171)	14.4	100.0(132)	16.7	100.0(144)
혼인상태								
기혼	44.3	100.0(271)	29.5	100.0(312)	16.8	100.0(190)	15.1	100.0(205)
미혼	38.7	100.0(150)	28.7	100.0(129)	15.0	100.0(80)	14.9	100.0(74)
취업상태								
취업	42.2	100.0(277)	28.5	100.0(333)	17.1	100.0(210)	13.6	100.0(214)
비취업	42.4	100.0(144)	31.5	100.0(108)	13.3	100.0(60)	20.0	100.0(65)
자녀수								
0명	40.5	100.0(163)	29.9	100.0(144)	15.6	100.0(96)	14.0	100.0(86)
1명	42.1	100.0(57)	33.9	100.0(62)	41.2	100.0(17)	25.8	100.0(31)
2명이상	43.8	100.0(201)	27.7	100.0(235)	14.0	100.0(157)	13.6	100.0(162)
가구소득								
200미만	48.6	100.0(35)	20.0	100.0(30)	10.8	100.0(37)	18.9	100.0(37)
200-299	35.9	100.0(64)	19.0	100.0(63)	22.2	100.0(45)	20.7	100.0(58)
300-399	48.4	100.0(93)	33.7	100.0(101)	17.6	100.0(51)	12.3	100.0(65)
400-499	43.1	100.0(58)	33.8	100.0(74)	18.2	100.0(33)	19.4	100.0(31)
500이상	35.9	100.0(103)	25.7	100.0(105)	16.0	100.0(50)	8.0	100.0(50)

주: "우리 마을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을 합하여 집계한 비율임

더욱이 춘천시의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필요한 경우 서로 도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률이 35.7%로 조사지역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다. 농촌지역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정적 견해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구조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주민들은 급격하게 공업도시로 변모해가는 아산시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다.

〈표 4-2〉 지역 주민의 협동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체	35.7	100.0(471)	33.9	100.0(463)	18.6	100.0(291)	16.4	100.0(292)
성별								
남	34.9	100.0(195)	33.1	100.0(181)	20.6	100.0(131)	22.2	100.0(117)
여	36.2	100.0(276)	34.4	100.0(282)	16.9	100.0(160)	12.6	100.0(175)
연령								
20대	28.8	100.0(125)	34.9	100.0(106)	18.0	100.0(50)	13.2	100.0(53)
30대	40.4	100.0(151)	35.2	100.0(182)	13.5	100.0(96)	23.3	100.0(86)
40대	36.4	100.0(195)	32.0	100.0(175)	22.1	100.0(145)	13.7	100.0(153)
혼인상태								
기혼	38.9	100.0(303)	34.3	100.0(327)	18.8	100.0(207)	17.9	100.0(212)
미혼	29.8	100.0(168)	33.1	100.0(136)	17.9	100.0(84)	12.5	100.0(80)
취업상태								
취업	36.8	100.0(304)	36.0	100.0(353)	18.5	100.0(227)	15.8	100.0(222)
비취업	33.5	100.0(167)	27.3	100.0(110)	18.8	100.0(64)	18.6	100.0(70)
자녀수								
0명	30.8	100.0(182)	31.4	100.0(156)	16.8	100.0(101)	13.2	100.0(91)
1명	42.4	100.0(66)	32.3	100.0(62)	22.2	100.0(18)	20.0	100.0(30)
2명이상	37.7	100.0(223)	35.9	100.0(245)	19.2	100.0(172)	17.5	100.0(171)
가구소득								
200미만	46.2	100.0(39)	37.5	100.0(32)	7.9	100.0(38)	18.4	100.0(38)
200-299	33.3	100.0(75)	29.4	100.0(68)	22.4	100.0(49)	20.0	100.0(60)
300-399	48.5	100.0(97)	26.2	100.0(107)	20.4	100.0(54)	15.2	100.0(66)
400-499	35.5	100.0(62)	40.0	100.0(80)	18.9	100.0(37)	16.1	100.0(31)
500이상	28.7	100.0(115)	41.7	100.0(103)	22.2	100.0(54)	15.7	100.0(51)

주: "우리 지역 또는 우리 마을 주민은 필요한 경우 서로 도울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을 합하여 집계한 비율임

이것은 춘천시의 생활환경, 특히 출산과 육아환경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민들도 평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인상적이다. 춘천시의 주민들은 "자녀를 키우기 안전한 곳"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23.5%만이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 주민들의 30.8%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표 4-3〉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정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체	23.5	100.0(480)	30.8	100.0(480)	18.0	100.0(289)	16.4	100.0(293)
성별								
남	23.9	100.0(197)	33.0	100.0(182)	19.5	100.0(128)	17.2	100.0(116)
여	23.3	100.0(283)	29.5	100.0(298)	16.8	100.0(161)	15.8	100.0(177)
연령								
20대	28.5	100.0(123)	34.3	100.0(108)	20.0	100.0(50)	9.3	100.0(54)
30대	16.2	100.0(154)	28.6	100.0(189)	15.6	100.0(96)	20.9	100.0(86)
40대	26.1	100.0(203)	31.1	100.0(183)	18.9	100.0(143)	16.3	100.0(153)
혼인상태								
기혼	24.1	100.0(316)	30.7	100.0(342)	17.6	100.0(204)	18.1	100.0(215)
미혼	22.6	100.0(164)	31.2	100.0(138)	18.8	100.0(85)	11.5	100.0(78)
취업상태								
취업	24.3	100.0(309)	34.1	100.0(361)	19.9	100.0(226)	16.1	100.0(223)
비취업	22.2	100.0(171)	21.0	100.0(119)	11.1	100.0(63)	17.1	100.0(70)
자녀수								
0명	21.9	100.0(178)	30.8	100.0(156)	18.6	100.0(102)	12.2	100.0(90)
1명	31.3	100.0(67)	36.9	100.0(65)	23.5	100.0(17)	19.4	100.0(31)
2명이상	22.6	100.0(235)	29.3	100.0(259)	17.1	100.0(170)	18.0	100.0(172)
가구소득								
200미만	38.5	100.0(39)	34.4	100.0(32)	21.1	100.0(38)	18.9	100.0(37)
200-299	25.3	100.0(75)	34.2	100.0(73)	31.4	100.0(51)	23.0	100.0(61)
300-399	29.9	100.0(97)	31.5	100.0(108)	18.9	100.0(53)	10.4	100.0(67)
400-499	21.9	100.0(64)	27.5	100.0(80)	0.0	100.0(36)	19.4	100.0(31)
500이상	15.3	100.0(118)	32.4	100.0(111)	18.9	100.0(53)	13.5	100.0(52)

주: "우리 마을은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곳이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을 합하여 집계한 비율임

결론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동체적 특징들이 자녀의 출산

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약하며, 거주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문화적 정체성도 높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춘천시의 생활세계가 가진 특징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다. 춘천시는 도심부와 주변 농촌지역이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발전해왔으며,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생활구조와는 별도로 도심의 생활세계는 오히려 수도권 도시들의 생활세계와 연동해서 발전해왔다. 춘천 주민들이 춘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지 않고, 지역의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양육공간으로서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생활이 각박한 수도권에 비해서 춘천의 생활환경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춘천 도심의 거주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 거주 편의의 관점에서 춘천의 생활세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이들의 가치가 대체로 수도권의 평균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아산시 주민의 입장은 철저하게 '도시민'의 입장에 서있는 춘천시 주민들의 가치관과 다소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산시는 도시화의 정도가 비교적 늦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농어업 기반의 지역산업이 활발해서 도시화가 진척된 이후에도 전통적인 생활세계가 상당히 온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90년대 급속한 첨단 산업부문의 발달은 기존의 생활세계를 상당히 해체시키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인구의 유입, 안정적인 취업인구의 증가, 도시개발 등 출산율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도 했다.

아산시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시의 산업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지역산업의 발전이 주민의 소득수준을 올렸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으로 바탕으로 출산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성장률의 바탕에는 애초 아산시가 농촌공동체에 기반을 둔 생활세계가 오랫동안 존속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구의

유입이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 초기의 공업도시들에 비해 기존의 생활세계가 붕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에서 70%에 가까운 주민들(71.7%)이 아산시의 역사와 전통을 긍정하고 있으며, 도시구조 또한 주변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이형상, 2011). 급격한 발전을 겪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기존의 시가지와 별도로 외래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주지와 시가지가 만들어져 도심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반해(이것은 춘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아산시의 경우 기존의 시가지가 균형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가 춘천시에 비해 결혼의 유지에 있어서 개인적 가치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것도, 물론 경제적 안정성이 결정적이라고 하겠지만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세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동시에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지역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급격하게 늘었고(표 4-3에서 아산시 주민들의 30.8%가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도울 것이라는 의견도 춘천시의 경우보다는 높았지만 보성군, 합천군 등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향후 출산계획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26.6%,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 낮은 19.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아산시의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에 걸 맞는 공동체적 환경의 보존이 당면한 과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보성군과 합천군의 사례는 급속하게 전통적인 생활세계가 무너져가는 농촌 거주자들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크고,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 공동체가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도 있으며, 지역 환경이 도시

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산율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대체로 생활세계의 경제적 기반의 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산업의 기반이 있는 보성군의 경우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합천군은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조사에서 합천군과 보성군의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현실의 출산율 차이와 상관없이 농촌사회에 대한 전망은 보성군 주민이나 합천군 주민이나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았으며, 이것은 가치관의 차원에서 출산율이 향후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성군과 합천군의 차이를 미묘하게 따져보면, 보성군에 비해 합천군이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미묘하게 균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도 적지 않다. 전통적 규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합천군은 보성군에 비해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비쳤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절 가치관에서 생활세계로

앞부분에서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가 가지는 의미, 출산율과 생활세계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다. 특히 도시화가 단순히 인구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따라서 가족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노동과 생산의 장(場)이 되었던 가족은 작업의 공간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교육, 유희 등 가족이 더불어 해소해주었던 여러 사회적 기능 또한 별도의 사회제도로 분화되었다. 가족은 노동을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자녀 출산 또한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의 생산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출산의 도구적 의미가 약화되는 대신

육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돌봄의 의미가 강화되었으며, 양육과 부양의 비용이 커짐에 따라 출산을 당연히 여기는 대신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는 시각도 강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과 출산의 가치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 출산을 당연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출산보다는 부모 개인의 사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 가족모델의 해체, 이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해체와 변화가 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이다. 전통적 가족주의의 해체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겪었던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체와 변화의 양상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심지어 일정 시기에는 가족주의의 해체과정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해체와 변화과정의 독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적 사례 중 하나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서 '가족적 가치'가 오히려 강화되는 독특한 역사적 이력을 보여왔다(장경섭, 2011a; 2011b).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지향했던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의 와중에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개인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특정 산업의 성장 극대화에 모든 재원을 투입하여 성장의 극대화를 꾀하는 반면, 농업(농촌) 등 여기에서 밀려난 산업부문이나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정망의 정비와 복지체제의 확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는 가운데, 주택을 확보하고 의료를 대비하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 또는 가족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회재생산의 부담을 철저하게 가족주의의 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했다. 성장에 수반된 전반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국가의 개발주의에

저항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개발주의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보수적 정치경제 질서에 나름의 방식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해왔던" (장경섭, 2009: 8)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전통적 가족모델에 입각한 가족주의가 해체되기 마련인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국면에서 한국사회는 오히려 가족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활세계가 재구조화되는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보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생활세계가 급격하게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가족이 일종의 생존단위(survival unit)로 등장하고 가족주의가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은 전통적인 생활세계에서 생산의 단위로서 존재했고 따라서 가족주의가 강조되었던 것과는 맥락과 구조를 완전히 달리한다. 하지만 혈연을 중시하고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가족을 지향하며 남아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가족가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동원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개발자유주의'(장경섭, 2011a) 하에서의 가족주의가 대체로 비슷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장경섭에 따르면, 이러한 생존단위로서의 가족주의는 1990년대 중반 들어 '신자유주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된 상황에서 터진 'IMF 경제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중산층의 경제적 몰락을 야기하면서 기존 사회재생산의 기본적인 물적 조건과 전제를 와해시키기 시작했다(Chang, 2011). 그리고 생활세계의 차원에서 생계의 위기와 불안정성이 가중되자 생존단위로서 가족의 역할 또한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족주의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1970~90년대 '해체'의 과정에 있었어야 마땅했던 가족주의적 가치가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이렇게 강력했던 것이 최근 들어 맥없이 무너지면서 '위험가족'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보이는 독특한 역사적 궤적, 다시 말해 전통적 가족

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존단위로서 가족(개발)주의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또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속에서 해체되는 과정은 단순히 몇 가지 '가치관'의 지표만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지표상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배후에 놓여있는 생활세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령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 문제를 다루었을 경우, 기존의 인구학적이고 경제학적 접근방식, 심지어 개인의 가치관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질문될 수 없었던 새로운 의문꺼리가 떠오른다. 고도 성장기에도 지속되었던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농경사회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출산억제정책이 1980년대 들어 인구대체 출산수준(replacement level, 합계출산율 2.1)에 도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도달했던 것은 '생존단위'로서의 가족주의가 낳은 '전략적인'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 국가가 사회적 재생산의 비용을 가족에게 떠넘긴 상황에서, 전반적인 소득수준 상승을 기반으로 증가되는 재생산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생존단위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저출산 전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면, 저출산의 경향 속에서도 남아선호 등 가족주의 특유의 가치관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일정정도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출산율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늘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이 또한 가족주의의 해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 아닐까. 신자유주의 도래에 따라 가족이 생존단위로서의 존속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출산과 결혼의 부담을 줄여가는 가족주의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리고 최근 확인되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붕괴는 이러한 전략적 가족주의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출산억제정책은 국가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반대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최근 상

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의 다양한 시도에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딜레마를 이해하는 하나의 고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단순히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에 작용하는 문화적 요인을 생활세계의 구조변동이라는 거시적 과정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 출산가치의 추이 속에서 해당 생활세계의 특성을 읽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장에서 단순히 가치관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특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 결혼가치관

먼저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와 보성군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각각 56.4%, 56.3%로 비슷하게 나온 반면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와 합천군은 54.8%와 52.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혼관의 지역별 차이는 남녀별로 보면 여성들의 결혼관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긍정적 응답은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와 무관해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와 합천군은 각각 43.6%와 43.1%로 나타나는 반면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와 보성군은 각각 46.8%와 45.2%로 나타나 2~3%p의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합천군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67.2%에 불과해 다른 조사지역 남성들에 비해 3~4%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의 답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은 긍정적 답변이 각각 61.3%, 58.4%로 20대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의 춘천시 54.3%, 합천군 51.6%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40대의 연령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결혼생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비중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결혼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경험에 입각한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다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반드시/하는편이좋음	계(N)	반드시/하는편이좋음	계(N)	반드시/하는편이좋음	계(N)	반드시/하는편이좋음	계(N)
전체	54.8	100.0(500)	56.4	100.0(500)	56.3	100.0(300)	52.7	100.0(300)
성별								
남	71.1	100.0(204)	72.1	100.0(137)	70.1	100.0(134)	67.2	100.0(119)
여	43.6	100.0(296)	46.8	100.0(310)	45.2	100.0(166)	43.1	100.0(181)
연령								
20대	56.5	100.0(131)	54.0	100.0(113)	57.7	100.0(52)	58.9	100.0(56)
30대	54.1	100.0(159)	52.8	100.0(193)	52.5	100.0(99)	50.6	100.0(155)
40대	54.3	100.0(210)	61.3	100.0(194)	58.4	100.0(149)	51.6	100.0(300)
혼인상태								
기혼	55.6	100.0(324)	57.3	100.0(356)	57.3	100.0(213)	52.3	100.0(216)
미혼	53.4	100.0(176)	54.2	100.0(144)	54.0	100.0(87)	53.6	100.0(84)
취업상태								
취업	57.4	100.0(324)	57.7	100.0(378)	58.4	100.0(233)	51.5	100.0(229)
비취업	50.0	100.0(176)	52.5	100.0(122)	49.3	100.0(67)	56.3	100.0(71)
자녀수								
0명	53.7	100.0(190)	53.9	100.0(165)	52.3	100.0(107)	55.2	100.0(96)
1명	51.4	100.0(70)	63.2	100.0(68)	42.1	100.0(19)	54.8	100.0(31)
2명이상	56.7	100.0(240)	56.2	100.0(267)	60.3	100.0(174)	50.9	100.0(173)
가구소득								
200미만	58.1	100.0(43)	57.1	100.0(35)	56.1	100.0(41)	61.5	100.0(39)
200-299	60.3	100.0(78)	60.0	100.0(75)	48.1	100.0(52)	67.7	100.0(62)
300-399	49.0	100.0(104)	55.4	100.0(112)	59.3	100.0(54)	50.7	100.0(67)
400-499	60.9	100.0(64)	53.5	100.0(86)	59.5	100.0(37)	48.4	100.0(31)
500이상	57.5	100.0(120)	60.7	100.0(112)	61.1	100.0(54)	38.5	100.0(52)

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하고, "반드시 해야함"과 "하는 편이 좋음"을 합하여 긍정의 답변으로 집계하였음.

전반적으로는 미혼남녀의 전반적인 결혼관이 기혼남녀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혼율의 저하와 이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출산에 직접 관련이 되는 가임여성의 결혼관, 실제 결혼생활을 영위할 개연성이 높은 40대의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대체로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화응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합천군의 응답패턴이다. 합천군의 경우 다른 지역사례에 비해 남성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뿐 아니라, 20대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30, 40대의 긍정적 응답비율보다 8%p 이상 높게 나왔다. 또 미혼이 기혼에 비해, 비취업이 취업에 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결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의 패턴은 다른 지역사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것은 합천군 사람들의 결혼가치가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제 결혼생활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합천의 가족주의 규범이 생활세계의 구조변동 과정에서 다른 지역사례와는 차별화된 궤적을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결혼가치와 개인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춘천시와 아산시가 각각 57.4%, 56.4%로 보성군의 51.3%, 남성의 긍정적 답변이 유난히 높았던 합천군의 55.7%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는 여성의 응답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춘천시와 아산시가 각각 66.6%, 64.5%로 65% 안팎으로 결혼보다 개인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이 56.6%, 59.1%로 60% 미만으로 도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

은 합천을 제외하고는 기혼남여가 미혼남녀에 비해 뚜렷이 강한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는 결혼가치와 개인가치의 실제 충돌을 경험한 기혼남녀의 경우가 이런 갈등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미혼남녀는 이 문제를 다소 관념적으로 인지하여 가족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갈등이혼의 찬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찬성	계(N)	찬성	계(N)	찬성	계(N)	찬성	계(N)
전체	57.4	100.0(500)	56.4	100.0(500)	51.3	100.0(300)	55.7	100.0(300)
성별								
남	44.1	100.0(204)	43.2	100.0(190)	44.8	100.0(134)	50.4	100.0(119)
여	66.6	100.0(296)	64.5	100.0(310)	56.6	100.0(166)	59.1	100.0(181)
연령								
20대	48.1	100.0(131)	56.6	100.0(113)	44.2	100.0(52)	58.9	100.0(56)
30대	63.5	100.0(159)	60.1	100.0(193)	50.5	100.0(99)	55.1	100.0(89)
40대	58.6	100.0(210)	52.6	100.0(194)	54.4	100.0(149)	54.8	100.0(155)
혼인상태								
기혼	60.2	100.0(324)	57.9	100.0(356)	53.5	100.0(213)	54.2	100.0(216)
미혼	52.3	100.0(176)	52.8	100.0(144)	46.0	100.0(87)	59.5	100.0(84)
취업상태								
취업	57.7	100.0(324)	56.3	100.0(378)	49.8	100.0(233)	53.3	100.0(229)
비취업	56.8	100.0(176)	56.6	100.0(122)	56.7	100.0(67)	63.4	100.0(71)
자녀수								
0명	53.2	100.0(190)	57.0	100.0(165)	44.9	100.0(107)	57.3	100.0(96)
1명	68.6	100.0(70)	55.9	100.0(68)	63.2	100.0(19)	51.6	100.0(31)
2명이상	57.5	100.0(240)	56.2	100.0(267)	54.0	100.0(174)	55.5	100.0(173)
가구소득								
200미만	51.2	100.0(43)	45.7	100.0(35)	51.2	100.0(41)	51.3	100.0(39)
200-299	55.1	100.0(78)	52.0	100.0(75)	61.5	100.0(52)	58.1	100.0(62)
300-399	61.5	100.0(104)	61.6	100.0(112)	53.7	100.0(54)	50.7	100.0(67)
400-499	45.3	100.0(64)	61.6	100.0(86)	62.2	100.0(37)	48.4	100.0(31)
500이상	60.0	100.0(120)	56.3	100.0(112)	50.0	100.0(54)	65.4	100.0(52)

주: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전적으로 찬성"과 "대체로 찬성"을 합하여 긍정의 답변으로 집계하였음.

한편, 취업의 형태에서 보면 도시의 경우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응답이 나오는 반면, 농촌의 경우 취업을 한 사람이 취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가족형태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 가내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개인보다는 결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가치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 질문은 앞의 '갈등-결혼'의 질문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개인가치를 결혼가치의 우위에 둘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답변의 패턴은 대체로 <표 4-5>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개인가치를 옹호하여 찬성한 사람의 비율은 앞의 질문에 비해 8~9%p 가까이 떨어진다. 자녀의 출산이 결혼 및 가족의 유지에 강력한 규정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남성의 찬성 비율이 다른 지역사례보다 현격하게 높은 합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도농(都農)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춘천시와 아산시의 경우, 32~33% 선에 머무는 남성의 찬성 응답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춘천 59.5%, 아산 56.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51%대에 머무는 농촌여성의 찬성응답에 비해 훨씬 높은 것과 비교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농촌남성이 도시남성에 비해 이혼찬성이 2%p이상 높게 나타나며, 합천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찬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녀-이혼 문제가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생활의 실제 위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같은 결혼가치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결혼의 이상(理想)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이혼 등 결혼의 현실(現實)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반응은 출산율의 차이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현실적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찬성	계(N)	찬성	계(N)	찬성	계(N)	찬성	계(N)
전체	48.8	100.0(500)	47.2	100.0(500)	44.3	100.0(300)	47.7	100.0(300)
성별								
남	33.3	100.0(204)	32.6	100.0(190)	35.1	100.0(134)	41.2	100.0(119)
여	59.5	100.0(296)	56.1	100.0(310)	51.8	100.0(166)	51.9	100.0(181)
연령								
20대	41.2	100.0(131)	40.7	100.0(113)	40.4	100.0(52)	53.6	100.0(56)
30대	50.3	100.0(159)	48.2	100.0(193)	39.4	100.0(99)	50.6	100.0(89)
40대	52.4	100.0(210)	50.0	100.0(194)	49.0	100.0(149)	43.9	100.0(155)
혼인상태								
기혼	50.9	100.0(324)	48.9	100.0(356)	46.0	100.0(213)	46.8	100.0(216)
미혼	44.9	100.0(176)	43.1	100.0(144)	40.2	100.0(87)	50.0	100.0(84)
취업상태								
취업	50.0	100.0(324)	47.6	100.0(378)	44.2	100.0(233)	48.5	100.0(229)
비취업	46.6	100.0(176)	45.9	100.0(122)	44.8	100.0(67)	45.1	100.0(71)
자녀수								
0명	42.6	100.0(190)	45.5	100.0(165)	36.4	100.0(107)	47.9	100.0(96)
1명	60.0	100.0(70)	51.5	100.0(68)	47.4	100.0(19)	48.4	100.0(31)
2명이상	50.4	100.0(240)	47.2	100.0(367)	48.9	100.0(174)	47.4	100.0(173)
가구소득								
200미만	44.2	100.0(43)	28.6	100.0(35)	43.9	100.0(41)	30.8	100.0(39)
200-299	47.4	100.0(78)	48.0	100.0(75)	50.0	100.0(52)	41.9	100.0(62)
300-399	53.8	100.0(104)	52.7	100.0(112)	48.1	100.0(54)	52.2	100.0(67)
400-499	53.1	100.0(64)	47.7	100.0(86)	48.6	100.0(37)	48.4	100.0(31)
500이상	50.0	100.0(120)	48.2	100.0(112)	51.9	100.0(54)	53.8	100.0(52)

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전적으로 찬성"과 "대체로 찬성"을 합하여 긍정의 답변으로 집계하였음.

2. 자녀가치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에 상관없이 대체로 80% 전후의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도 다소간 발견되는데, 남성의

경우 춘천시 87.3%, 아산시 87.8%의 도시지역이 보성군 81.8%, 합천군 81.5%의 농촌지역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춘천시 73.5%, 아산시 74.5%의 도시지역이 보성군 79.5%, 합천군 76.8%의 농촌지역보다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가사 및 양육부담을 맡지 않는 남성들의 자녀관이 다소간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여성들은 자녀관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다소 현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결과는 도시라는 환경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대체로 높은 것은 전국적 수준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미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자녀출산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는데, 이는 기혼보다도 미혼이, 기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혼 남녀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이 70.4%와 67.4%로 낮은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의 71.6%, 72.6%보다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무자녀 기혼 남녀의 경우에도 아산시와 보성군은 69.3%와 67.0%로 춘천시와 합천군의 71.6%, 72.9%보다 낮다.

출산율의 지역별 차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미혼남녀와 결혼 초기의 무자녀 기혼남녀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출산율의 반등이 자연적으로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이런 분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지역별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차이도 다른 정책적 조치가 부재할 경우 점차 저출산의 방향으로 수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득에 따른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 결과에서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지는 않는데, 이는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가구소득의 분류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구소득의 분류에는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자녀수 등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7〉 자녀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필요함	계(N)	필요함	계(N)	필요함	계(N)	필요함	계(N)
전체	79.0	100.0(499)	79.5	100.0(498)	80.5	100.0(298)	78.7	100.0(300)
성별								
남	87.3	100.0(204)	87.8	100.0(188)	81.8	100.0(132)	81.5	100.0(119)
여	73.2	100.0(295)	74.5	100.0(310)	79.5	100.0(166)	76.8	100.0(181)
연령								
20대	74.0	100.0(131)	72.6	100.0(113)	73.1	100.0(52)	76.8	100.0(56)
30대	80.5	100.0(159)	79.2	100.0(192)	81.6	100.0(98)	77.5	100.0(89)
40대	80.9	100.0(209)	83.9	100.0(193)	82.4	100.0(148)	80.0	100.0(155)
혼인상태								
기혼	83.0	100.0(323)	83.1	100.0(356)	85.8	100.0(212)	81.0	100.0(216)
미혼	71.6	100.0(176)	70.4	100.0(142)	67.4	100.0(86)	72.6	100.0(84)
취업상태								
취업	78.6	100.0(323)	79.0	100.0(377)	80.2	100.0(232)	76.9	100.0(229)
비취업	79.5	100.0(176)	81.0	100.0(121)	81.8	100.0(66)	84.5	100.0(71)
자녀수								
0명	71.6	100.0(190)	69.3	100.0(163)	67.0	100.0(106)	72.9	100.0(96)
1명	78.6	100.0(70)	85.3	100.0(68)	78.9	100.0(19)	83.9	100.0(31)
2명이상	84.9	100.0(239)	84.3	100.0(267)	89.0	100.0(173)	80.9	100.0(173)
가구소득								
200미만	76.7	100.0(43)	77.1	100.0(35)	79.5	100.0(39)	74.4	100.0(39)
200-299	83.3	100.0(78)	84.0	100.0(75)	76.9	100.0(52)	82.3	100.0(62)
300-399	75.0	100.0(104)	77.7	100.0(112)	85.2	100.0(54)	85.1	100.0(67)
400-499	84.4	100.0(64)	82.6	100.0(86)	85.2	100.0(37)	87.1	100.0(31)
500이상	84.2	100.0(120)	82.1	100.0(112)	82.6	100.0(54)	67.3	100.0(52)

주: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으로 응답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함"과 "갖는 것이 좋음"을 합하여 집계하였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몇 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응답에서도 출산율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는 대체로 1.9명 정도가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답했다. 자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지역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 국가의 출산정책이 캠페인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일정정도 반영한다.

〈표 4-8〉 이상자녀수

(단위: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전체	1.9	496	1.9	492	1.9	290	1.9	296
성별								
남	1.9	204	1.9	186	1.9	131	1.9	116
여	2.0	292	1.9	306	1.9	159	1.9	180
연령								
20대	1.9	129	1.9	110	1.9	48	1.9	55
30대	1.9	158	1.9	192	1.9	97	1.9	87
40대	2.0	209	1.9	190	1.9	145	1.9	154
혼인상태								
기혼	2.0	322	1.9	353	1.9	211	1.9	214
미혼	1.9	174	1.9	139	1.9	79	1.9	82
취업상태								
취업	2.0	323	1.9	370	1.9	225	1.9	226
비취업	1.9	173	1.9	122	1.9	65	2.0	70
자녀수								
0명	1.9	188	1.9	160	1.9	98	1.9	94
1명	1.9	70	1.8	68	1.6	19	1.9	31
2명이상	2.0	238	1.9	264	1.9	173	1.9	171
가구소득								
200미만	1.9	43	1.9	34	1.8	40	1.9	38
200-299	2.0	78	1.9	75	2.0	50	2.0	62
300-399	1.9	103	1.9	111	1.9	53	1.9	67
400-499	2.0	63	1.9	86	1.9	37	1.9	30
5000이상	2.0	120	1.9	112	1.9	53	1.9	52

자녀가치관과 관련해서 지역적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출산계획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비율로 보았을 때, 도시가 농촌보다 향후 출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춘천시와 아산시가 각각 29.2%, 26.6%로 보성군과 합천군의 23.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감당할 여성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수준에서 확인되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현격하게 줄어든다. 농촌의 여성은 출산율의 고저와 상관없이 22%의 내외이며, 도시의 여성도 이 수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의 경우,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이 38.4%로 4개의 조사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긍정적 응답은 19.4%로 가장 낮다. 이것은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가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23.0%로 조사지역 중 가장 높은 것과 대조된다. 이것은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춘천 특유의 취업구조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녀가치관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응답은 대체로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가치관의 수준을 보여준다. 대체로 80% 내외의 수준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자녀의 수는 1.9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출산계획에 대한 응답은 농촌은 23% 안팎, 도시는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조차도 26%에 불과했다. 자녀가 없는 기혼남녀들조차 40% 이상이 출산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출산가치관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실히 나타났던 것이다.

지역 별로 보았을 때, 자녀의 필요성, 자녀출산계획 등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도시가 농촌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남성들의 응답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응답은 전문직, 사무직 등 고용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춘천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출산의 당위가 실제 계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조건이 필

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표 4-9〉 향후출산계획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있음	계(N)	있음	계(N)	있음	계(N)	있음	계(N)
전체	29.2	100.0(500)	26.6	100.0(500)	23.7	100.0(300)	23.7	100.0(300)
성별								
남	38.2	100.0(204)	38.4	100.0(190)	24.6	100.0(134)	26.1	100.0(119)
여	23.0	100.0(296)	19.4	100.0(310)	22.9	100.0(166)	22.1	100.0(181)
연령								
20대	61.1	100.0(131)	55.8	100.0(113)	53.8	100.0(52)	53.6	100.0(56)
30대	34.6	100.0(159)	31.1	100.0(193)	32.3	100.0(99)	33.7	100.0(89)
40대	5.2	100.0(210)	5.2	100.0(194)	7.4	100.0(149)	7.1	100.0(155)
혼인상태								
기혼	14.5	100.0(324)	15.4	100.0(356)	16.4	100.0(213)	12.5	100.0(216)
미혼	56.3	100.0(176)	54.2	100.0(144)	41.4	100.0(87)	52.4	100.0(84)
취업상태								
취업	28.1	100.0(324)	27.8	100.0(378)	24.0	100.0(233)	23.6	100.0(229)
비취업	31.3	100.0(176)	23.0	100.0(122)	22.4	100.0(67)	23.9	100.0(71)
자녀수								
0명	58.4	100.0(190)	58.8	100.0(165)	48.6	100.0(107)	56.3	100.0(96)
1명	37.1	100.0(70)	44.1	100.0(68)	21.1	100.0(19)	32.3	100.0(31)
2명이상	3.8	100.0(240)	2.2	100.0(267)	8.6	100.0(174)	4.0	100.0(173)
가구소득								
200미만	37.2	100.0(43)	42.9	100.0(35)	14.6	100.0(41)	30.8	100.0(39)
200-299	26.9	100.0(78)	29.3	100.0(75)	19.2	100.0(52)	22.6	100.0(62)
300-399	22.1	100.0(104)	23.2	100.0(112)	25.9	100.0(54)	23.9	100.0(67)
400-499	23.4	100.0(64)	24.4	100.0(86)	18.9	100.0(37)	22.6	100.0(31)
500이상	26.7	100.0(120)	18.8	100.0(112)	22.2	100.0(54)	15.4	100.0(52)

3. 성역할가치관

여기서 성별 가사노동의 실상 및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여성은 출산의 당사자이며, 자녀의 육아에 있어서도 대체로 부담

이 크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 등 가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문제 이외에도 부부 사이의 가사노동 분담정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출산율의 고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같은 경제적 상황이라면,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원활하고 이런 분담에 관한 가치관이 가족 사이에서 공유될수록 여성의 출산 및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개의 조사지역은 성역할가치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까.

먼저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가사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도시와 농촌,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출산율이 낮은 지역 사이의 차이를 그다지 드러내지 않는다. 가사분담이 대체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출산율이 낮은 도시인 춘천시가 63.9%, 농촌인 합천군이 62.8%인 반면, 출산율이 높은 도시인 아산시가 60.0%, 농촌인 보성군이 67.9%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남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4개 조사지역에서 70% 이상의 남성이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65.6%인 보성군을 제외하면, 긍정적 응답이 60% 미만으로 10%p 이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사노동의 비율이 큰 여성들의 응답이 현실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여성만으로 한정해 보면 출산율이 높은 농촌 지역인 보성군 여성의 응답이 65.6%인 반면, 출산율이 낮은 합천군 여성의 응답은 58.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보성군과 합천군은 취업자의 직업에서 농업이 55%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농업은 일의 특성상 가족사업의 형태가 많다. 가사노동도 직업노동과 크게 분리되지 않는 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사분담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가사부담은 도시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10〉 가사분담의 공평성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매우/대체로 그렇다	계(N)	매우/대체로 그렇다	계(N)	매우/대체로 그렇다	계(N)	매우/대체로 그렇다	계(N)
전체	63.9	100.0(316)	60.0	100.0(355)	67.9	100.0(209)	62.8	100.0(207)
성별								
남	72.9	100.0(107)	70.5	100.0(112)	71.6	100.0(81)	71.8	100.0(71)
여	59.3	100.0(209)	55.1	100.0(243)	65.6	100.0(128)	58.1	100.0(136)
연령								
20대	83.3	100.0(12)	77.8	100.0(18)	55.6	100.0(9)	62.5	100.0(8)
30대	61.1	100.0(113)	53.0	100.0(151)	71.4	100.0(70)	69.5	100.0(59)
40대	64.4	100.0(191)	64.0	100.0(186)	66.9	100.0(130)	60.0	100.0(140)
취업상태								
취업	68.5	100.0(222)	62.1	100.0(269)	68.5	100.0(165)	60.8	100.0(166)
비취업	53.2	100.0(94)	53.5	100.0(86)	65.9	100.0(44)	70.7	100.0(41)
자녀수								
0명	69.2	100.0(13)	95.2	100.0(21)	94.7	100.0(19)	54.5	100.0(11)
1명	71.6	100.0(67)	62.7	100.0(67)	62.5	100.0(16)	82.1	100.0(28)
2명이상	61.4	100.0(236)	56.6	100.0(267)	65.5	100.0(174)	60.1	100.0(168)
가구소득								
200미만	60.0	100.0(20)	69.2	100.0(13)	56.5	100.0(23)	77.3	100.0(22)
200-299	58.7	100.0(46)	59.3	100.0(54)	57.5	100.0(40)	62.8	100.0(43)
300-399	60.0	100.0(80)	55.7	100.0(97)	69.8	100.0(43)	67.8	100.0(59)
400-499	72.0	100.0(50)	63.9	100.0(72)	62.5	100.0(32)	58.3	100.0(24)
500이상	70.3	100.0(91)	61.1	100.0(90)	76.1	100.0(46)	48.6	100.0(37)

주: "귀하는 평소 남편과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4점 척도로 조사한 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합을 긍정적 답변으로 집계하였음.

한편, 도시들 사이의 비교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가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보다 가사분담이 다소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아산시 여성의 경우, 55.1%만이 가사분담이 대체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던 반면, 춘천시 여성은 59.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남성의 응답도 아산시 70.5%, 춘천시 72.9%로 춘천시가 전체적으로 가사분담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높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아산시가 높게 나왔는데, 이것도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산시는 90년대 들어

대규모 산업시설이 유치되면서 급격히 성장했는데, 이것은 산업·노동관련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산업분포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춘천시에 비해, 아산시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아산시 71.9%와 춘천시 66.4%로 5%p 이상 차이가 나며 특히 남성고용율의 경우에는 아산시 75.5%, 춘천시 60.0%로 15%p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산시는 행정, 교육 등 3차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춘천시와는 달리 남성-제조업-임금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2차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남성생계부양의 가족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강한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비록 가족 내의 가사분담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지만, 출산 및 양육의 기반이 되는 경제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아산시가 춘천시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세계적인 차이와는 별개로,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가사노동의 분담정도와 더불어 고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며, 실제 가사노동의 분담상황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사분담의 방식, 부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가사분담의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와 보성군이 각각 64.8%, 62.2%의 비율로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한다고 답한 반면, 춘천시와 합천군의 답변은 65.5%, 67.1%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큰 것이 확인된다. 특히, 자녀가 없는 기혼남녀의 응답을 보면 아산시와 보성군이 각각 38.1%, 42.1%로, 춘천시의 46.2%, 합천군의 63.6%에 비해 도시별, 농촌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 집단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출산율의 실질적 차이로 연결될 개연성이 무척 높다.

〈표 4-11〉 가사 분담방식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부인	계(N)	부인	계(N)	부인	계(N)	부인	계(N)
전체	65.5	100.0(316)	64.8	100.0(355)	62.2	100.0(207)	67.1	100.0(209)
성별								
남	57.9	100.0(107)	57.1	100.0(112)	61.7	100.0(81)	62.0	100.0(71)
여	69.4	100.0(209)	68.3	100.0(243)	62.5	100.0(128)	69.9	100.0(136)
연령								
20대	41.7	100.0(12)	38.9	100.0(18)	44.4	100.0(9)	25.0	100.0(8)
30대	64.6	100.0(113)	72.2	100.0(151)	57.1	100.0(70)	57.6	100.0(59)
40대	67.5	100.0(191)	61.3	100.0(186)	66.2	100.0(130)	73.6	100.0(140)
취업상태								
취업	57.7	100.0(222)	59.1	100.0(269)	61.8	100.0(165)	68.7	100.0(166)
비취업	84.0	100.0(94)	82.6	100.0(86)	63.6	100.0(44)	61.0	100.0(41)
자녀수								
0명	46.2	100.0(13)	38.1	100.0(21)	42.1	100.0(19)	63.6	100.0(11)
1명	56.7	100.0(67)	61.2	100.0(67)	56.3	100.0(16)	60.7	100.0(28)
2명이상	69.1	100.0(236)	67.8	100.0(267)	64.9	100.0(174)	68.5	100.0(168)
가구소득								
200미만	70.0	100.0(20)	46.2	100.0(13)	73.9	100.0(23)	68.2	100.0(22)
200-299	71.7	100.0(46)	72.2	100.0(54)	75.0	100.0(40)	62.8	100.0(43)
300-399	66.3	100.0(80)	68.0	100.0(97)	58.1	100.0(43)	67.8	100.0(59)
400-499	68.0	100.0(50)	63.9	100.0(72)	65.6	100.0(32)	70.8	100.0(24)
500이상	57.1	100.0(91)	61.1	100.0(91)	56.5	100.0(46)	70.3	100.0(37)

주: "귀하는 평소 남편과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이"와 "대체로 부인이"를 합하여 집계함.

이것은 부인의 실질적인 평균가사노동을 묻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도시 중에서는 아산시가 부인들의 평균 가사노동을 218분으로 답한 반면, 춘천시는 236분으로 답하고 있다. 가사노동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춘천시가 오히려 공평하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별가치관의 측면에서 아산시가 춘천시에 비해 다소 성별 평등관이 높다고도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부인의 가사전담 정도가 낮고, 평균 가사노동시간도 적은 아산시에서 오히려 가사공평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그만큼 가사공평성에 대한 지역

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표 4-12〉 부인 가사노동시간평균

(단위: 분,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전체	236.6	313	218.0	351	232.3	206	238.1	205
성별								
남	244.0	104	226.8	108	229.2	78	270.1	70
여	232.9	209	214.1	243	234.1	128	221.6	135
연령								
20대	197.5	12	181.7	18	230.0	9	176.3	8
30대	263.3	113	232.6	151	236.1	70	241.2	59
40대	223.1	188	209.5	182	230.3	127	240.4	138
취업상태								
취업	204.6	219	192.8	265	210.9	163	228.5	164
비취업	311.2	94	295.8	86	313.3	43	276.6	41
자녀수								
0명	179.2	13	153.3	21	185.0	18	129.1	11
1명	233.0	67	187.8	67	254.0	15	222.9	28
2명이상	240.9	233	230.9	263	235.3	173	248.0	166
가구소득								
200미만	313.5	20	243.1	13	396.5	23	321.8	22
200-299	282.4	46	260.6	53	255.4	39	272.9	42
300-399	231.3	80	222.9	96	227.4	43	207.1	58
400-499	221.9	48	191.4	71	195.0	32	195.0	24
5000이상	194.7	90	198.3	90	178.0	46	223.0	37

그런데,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은 부인의 응답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농촌지역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도시보다 주 15시간 이상 높게 나타난다. 보성군은 78.5분, 합천군은 77.8분이며 춘천시는 60.3분, 아산시는 58.1분이다. 하지만 남녀의 응답을 나누어보면, 부인들의 생각은 남편과는 다른 모양이다. 남편들이 자기가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부인들이 생각하는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그것의 60%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응답을 통해서도

농촌의 남편들이 대체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의 산업기반 및 생활세계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농촌이 도시보다 성역할 가치관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4-13〉 남편 가사노동시간평균

(단위: 분,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전체	60.3	315	58.1	353	78.5	206	77.8	209
성별								
남	84.1	107	81.5	110	113.6	81	107.0	71
여	48.1	208	47.4	243	56.3	128	62.5	135
연령								
20대	93.3	12	91.7	18	73.3	9	123.8	8
30대	57.8	112	49.2	151	75.3	70	71.2	59
40대	59.7	191	62.1	184	80.6	130	78.0	139
취업상태								
취업	67.6	222	62.9	267	84.2	165	78.2	165
비취업	43.0	93	43.0	86	57.2	44	76.6	41
자녀수								
0명	66.9	13	64.8	21	96.8	19	55.5	11
1명	75.2	67	66.7	67	51.4	16	93.6	28
2명이상	55.7	235	55.4	265	79.0	174	76.6	167
가구소득								
200미만	63.5	20	93.1	13	89.8	23	138.2	22
200-299	48.3	46	53.8	53	46.6	40	84.7	43
300-399	62.3	80	53.8	96	84.7	43	75.8	58
400-499	70.0	50	59.7	72	69.8	32	51.3	24
5000이상	59.4	91	51.2	90	94.3	46	45.4	37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는가에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도시여성이 농촌여성에 비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와 아산시의 여성들 중 69.7%와 65.5%가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의 여성들 중 부

정적 입장은 63.5%와 61.9%로 도시보다는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로 농촌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패턴을 보인다.

〈표 4-14〉 성역할에 대한 인식(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

(단위: %, 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체	65.8	100.0(310)	60.7	100.0(346)	60.7	100.0(206)	56.6	100.0(205)
성별								
남	57.8	100.0(102)	50.0	100.0(108)	56.3	100.0(80)	46.5	100.0(71)
여	69.7	100.0(208)	65.5	100.0(238)	63.5	100.0(126)	61.9	100.0(134)
연령								
20대	100.0	100.0(12)	66.7	100.0(18)	66.7	100.0(9)	62.5	100.0(8)
30대	65.5	100.0(110)	64.6	100.0(147)	57.1	100.0(70)	64.4	100.0(59)
40대	63.8	100.0(188)	56.9	100.0(181)	62.2	100.0(127)	52.9	100.0(138)
취업상태								
취업	67.6	100.0(216)	65.3	100.0(262)	65.0	100.0(163)	61.0	100.0(164)
비취업	61.7	100.0(94)	46.4	100.0(84)	44.2	100.0(43)	39.0	100.0(41)
자녀수								
0명	58.3	100.0(12)	71.4	100.0(21)	44.4	100.0(18)	63.6	100.0(11)
1명	76.9	100.0(65)	69.4	100.0(62)	68.8	100.0(16)	46.4	100.0(28)
2명이상	63.1	100.0(233)	57.8	100.0(263)	61.6	100.0(172)	57.8	100.0(166)
가구소득								
200미만	80.0	100.0(20)	15.4	100.0(13)	52.2	100.0(23)	50.0	100.0(22)
200-299	46.7	100.0(45)	62.3	100.0(53)	56.4	100.0(39)	44.2	100.0(43)
300-399	74.4	100.0(78)	58.9	100.0(95)	58.1	100.0(43)	62.7	100.0(59)
400-499	59.2	100.0(49)	71.4	100.0(70)	56.3	100.0(32)	70.8	100.0(24)
500이상	70.0	100.0(90)	64.8	100.0(88)	76.1	100.0(46)	59.5	100.0(37)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찬반을 물어보았다.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이 의견에 대해서 85% 이상이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

변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합천군 주민의 의견이다. 앞선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의견에서 합천군 주민들은 56.6%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남성들은 그래도 5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로 고정된 성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합천군의 남성은 46.5%만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우선 해고에 대해서 합천군의 남성은 다른 지역 남성들에 비해 8~10%p 이상이 보수적으로 답변했으며, 여성들의 보수적인 답변(83.7%) 또한 다른 조사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및 실제 가사노동의 분담비율은 출산율의 지역적 차이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역할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합천군이 군 지역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사노동의 실제 분담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차별화되는 측면을 보이는데, 오히려 가사노동분담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아산시가 시 지역 중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제조업의 도시 유치 등으로 남성에 의한 생계부양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다른 도시, 예컨대 춘천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역할의 가치보다 가족의 경계적인 생계유지의 문제가 출산율의 변화에 더 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그 밖에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분담 정도에 대한 평가 등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편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다.

〈표 4-15〉 성역할에 대한 인식(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

(단위: %, 명, 만원)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혀/별로 찬성 안함	계(N)
전체	85.5	100.0(310)	85.9	100.0(348)	89.1	100.0(201)	80.8	100.0(203)
성별								
남	83.7	100.0(104)	83.0	100.0(106)	84.2	100.0(76)	75.0	100.0(68)
여	86.4	100.0(206)	87.2	100.0(242)	92.0	100.0(125)	83.7	100.0(135)
연령								
20대	83.3	100.0(12)	100.0	100.0(18)	88.9	100.0(9)	75.0	100.0(8)
30대	88.3	100.0(111)	84.8	100.0(151)	94.0	100.0(67)	87.9	100.0(58)
40대	84.0	100.0(187)	85.5	100.0(179)	86.4	100.0(125)	78.1	100.0(137)
취업상태								
취업	85.8	100.0(219)	84.7	100.0(262)	88.8	100.0(161)	78.4	100.0(162)
비취업	84.6	100.0(91)	89.5	100.0(86)	90.0	100.0(40)	90.2	100.0(41)
자녀수								
0명	92.3	100.0(13)	85.7	100.0(21)	88.9	100.0(18)	81.8	100.0(11)
1명	92.5	100.0(67)	88.1	100.0(67)	100.0	100.0(15)	85.7	100.0(28)
2명이상	83.0	100.0(230)	85.4	100.0(260)	88.1	100.0(168)	79.9	100.0(164)
가구소득								
200미만	89.5	100.0(19)	84.6	100.0(13)	75.0	100.0(20)	72.7	100.0(22)
200-299	83.7	100.0(43)	88.7	100.0(53)	92.1	100.0(38)	81.0	100.0(42)
300-399	88.6	100.0(79)	83.5	100.0(97)	95.2	100.0(42)	84.7	100.0(59)
400-499	78.0	100.0(50)	89.9	100.0(69)	90.6	100.0(32)	77.3	100.0(22)
500이상	85.6	100.0(90)	83.3	100.0(90)	91.1	100.0(45)	83.8	10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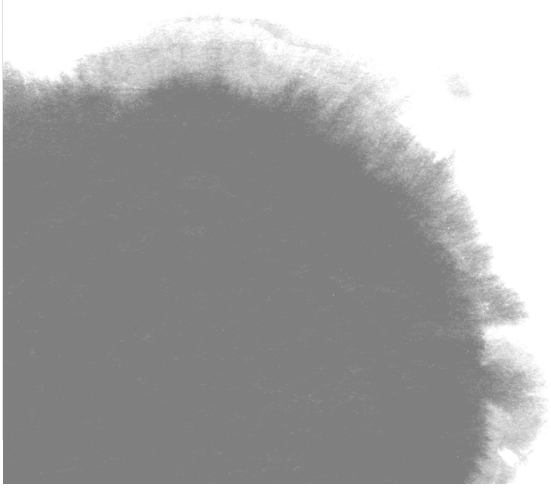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되는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 등은 대체로 전국적 수준에서의 출산율 저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생활세계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더욱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자녀수 등에 관한 이상은 지역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지만, 실제의 결혼 및 출산계획은 지역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역할의 가치관도 도시와 농촌의 생활세계적인 조건, 가사분업의

현실 등에 따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KIHASA

5장

산업 노동의 특성



제5장 산업 노동의 특성

본 장은 4개 지역의 산업 노동 분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사업체 특성을 분석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은 총괄적 특성과 여성의 가임연령층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제1절 지역의 산업적 특성

지역의 사업체 특성은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사업체 전체 개수를 살펴볼 때, 춘천시의 전체 사업체 개수는 19천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아산시 14천개, 보성과 합천은 3천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사업체 개수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개 지역의 사업체 조직형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4개 지역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체 중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춘천시의 개인 사업체 비중이 84.6%로 가장 높고, 합천군이 7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시와 아산시가 군 지역인 보성군과 합천군보다 개인사업체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특징적인 점은 아산시가 회사법인이 11.0%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성군이 회사이외의 법인이 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표 5-1〉 지역별 사업체 조직형태(2010)

(단위: 천명)

구분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춘천시	84.6	6.8	2.9	4.3	1.4	100.0(19,192)
아산시	80.6	11.0	1.6	5.3	1.5	100.0(14,406)
보성군	78.5	5.7	7.5	3.1	5.1	100.0(3,156)
합천군	78.2	6.5	4.0	6.2	5.0	100.0(3,25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010.

다른 한편 보성군과 합천군은 전체 사업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가 유사한 규모인 반면 이 지역 내 전체 사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체 구분형태를 볼 때, 4개 지역 모두 단독사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보성군의 경우 단독사업체 비율이 91.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고, 반면 지사 또는 영업소의 비중이 7.4%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성군이 지사와 영업소의 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을 빼면 사업체의 구분형태에서 다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5-2〉 지역별 사업체 구분형태

(단위: 천명)

구분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등	지사(점), 영업소 등	전체
춘천시	94.5	0.9	4.7	100.0(19,192)
아산시	94.4	1.4	4.2	100.0(14,406)
보성군	91.2	1.4	7.4	100.0(3,156)
합천군	95.5	0.6	3.8	100.0(3,25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010.

각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5.5%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이 23.0%로 다음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21.8%로 다음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도매 및 소매업이 3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9%로 나타났다. 합천군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0%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23.0%로 다음 순의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 산업별 사업체 분포

(단위: 천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농업,임업및어업		0.1	0.1	0.4	0.3
광업		0.0	0.1	0.0	0.2
제조업		4.5	11.9	9.0	10.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1	0.0	0.2	0.2
하수 ·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2	0.2	0.3	0.3
건설업		3.0	2.6	3.5	4.4
도매및소매업		23.0	21.8	32.7	26.0
운수업		10.0	9.5	6.1	5.5
숙박및음식점업		25.5	22.5	18.9	23.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7	0.3	0.6	0.7
금융및보험업		1.3	1.0	1.6	1.5
부동산업및임대업		3.4	3.7	0.6	0.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	1.2	0.9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8	0.9	0.1	0.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0.5	0.3	1.8	1.5
교육서비스업		5.4	4.7	3.8	4.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0	4.1	3.3	3.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6	3.1	2.0	1.6
협회및단체,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8	11.7	14.1	13.9
전체	사업체수	19,192	14,406	3,156	3,253
	비율	100.0	100.0	100.0	100.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010.

지역적 비교를 보면 시지역의 경우와 군지역의 경우가 차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 지역인 춘천과 아산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춘천시는 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고, 아산시의 경우 1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9.0%, 10.8%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운수업의 경우 춘천시가 1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아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부동산 임대업이 춘천시와 아산시에 다소 높은 점과 교육서비스업이 춘천시에 다소 높은 점 또한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에서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개 지역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성군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88.4%가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합천군 역시 87.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춘천시 85.4%, 아산시 82.8%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5인이상 99명이하 사업체의 비율은 아산시의 경우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춘천시 14.2%, 합천군 12.8%, 보성군 1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종사자 100명이상 299명이하 사업체도 0.6%로 가장 높고, 종사자 300명이상 사업체의 비중도 0.2%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지역별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Ⅰ)

(단위: 천명)

구분	1~4명	5~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전체
춘천시	85.4	14.2	0.3	0.1	100.0(19,192)
아산시	82.8	16.4	0.6	0.2	100.0(14,406)
보성군	88.4	11.4	0.1	0.0	100.0(3,156)
합천군	87.2	12.8	0.0	0.0	100.0(3,25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010.

아산시의 경우 4개 지역 중에서 대규모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 5인까지를 더욱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사자 1명인 사업체 비중은 보성군과 합천군이 각각 43.2%, 43.0%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춘천시가 41.9%, 아산시가 38.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역시 종사자 규모 1인이하 사업체의 비중은 아산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 5명이상인 사업체 전체의 비중은 아산시가 17.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아산시에 대규모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사규모 2명인 사업체 비중은 보성군과 합천군의 각각 32.5%, 32.0%로 춘천시나 아산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성군과 합천군의 경우 전체 사업체에서 종사자 규모 1~2명인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5〉 지역별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II)

(단위: 천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전체
춘천시	41.9	26.3	10.3	6.9	14.6	100.0(19,192)
아산시	38.3	27.2	9.8	7.5	17.2	100.0(14,406)
보성군	43.2	32.5	8.5	4.2	11.6	100.0(3,156)
합천군	43.0	32.0	7.5	4.7	12.8	100.0(3,25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010.

제2절 경제활동인구의 총괄적 특성

1. 경제활동 인구 특성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여러 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5세 이상 인구는 춘천시 214천명, 아산시는 199천명 수준이었다. 보성군은 37천명, 합천군은 42천명으로 시 지역인 춘천시와 아산시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춘천시와 보성군, 합천군은 남자 인구보다 여자 인구가 더 많고 아산시만 여자 인구보다 남자 인구가 더 많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춘천시, 아산시, 합천군의 경우 여자 경제활동인구보다 남자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다. 보성군만 남자 경제활동인구보다 여자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다. 취업자의 성별 분포 역시 춘천시, 아산시, 합천군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고, 보성군만 남자 취업자보다 여자 취업자가 더 많다.

〈표 5-6〉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행정 구역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춘천시	214.3	103.3	111.0	108.9	64.3	44.6	105.2	62.9	42.3
아산시	199.2	100.1	99.1	123.7	78.1	45.7	119.5	75.6	43.9
보성군	37.2	16.9	20.3	26.3	12.9	13.3	26.1	12.8	13.3
합천군	42.3	19.3	23.1	27.6	14.5	13.2	27.4	14.2	13.1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로 볼 때,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아산시였다. 아산시의 남자 경제활동참가율은 78.0%인 반면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은 46.1%로 31.9%p차이가 나 가장 격차가 크다. 춘천시의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1%p, 합천군의 격차는 18.2%p, 보성군의 격차는 10.8%p로 나타났다.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시 지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크고, 군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5-7〉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춘천시	105.4	39.0	66.4	50.8	62.3	40.2	49.1	60.9	38.1
아산시	75.5	22.0	53.5	62.1	78.0	46.1	60.0	75.5	44.3
보성군	10.9	4.0	7.0	70.6	76.5	65.7	70.1	75.7	65.5
합천군	14.7	4.8	9.9	65.3	75.2	57.0	64.7	74.0	56.9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춘천시의 경우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으로 44.2%를 차지하였고, 다음 순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23.0%였다. 아산시의 경우 광공업이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22.7%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차지하였다. 보성군은 농업·임업 및 어업이 5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18.8%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합천군도 보성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농업·임업 및 어업이 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19.0%로 다음 순을 나타냈다.

농업·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성군과 합천군으로 농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광공업의 경우는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춘천시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 역시 춘천시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산시는 광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으며, 취업자의 많은 수가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시는 반면 취업자의 절반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거의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5-8〉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

행정구역별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춘천시	100.0	7.0	5.5	9.0	23.0	11.2	44.2
아산시	100.0	13.4	34.4	6.8	13.6	9.1	22.7
보성군	100.0	55.2	3.4	4.6	14.2	3.8	18.8
합천군	100.0	55.8	3.6	5.1	11.7	5.1	19.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취업자의 직업에 따른 분포 또한 지역적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춘천시는 서비스·판매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로 21.1%를 나타냈다. 아산시는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단순노무종사자 14.6%, 서비스·판매종사자 14.4%로 순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5.7%로 나타났다. 합천군도 보성군의 구성비와 유사하여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자사

13.9%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산시의 경우 특정 직종 과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직종에 취업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9〉 직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

행정구역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춘천시	100.0	21.1	15.9	25.8	6.7	18.2	12.4
아산시	100.0	11.6	11.5	14.4	11.9	36.1	14.6
보성군	100.0	6.9	6.5	15.7	53.3	8.4	8.8
합천군	100.0	5.8	7.3	13.9	54.4	9.5	8.8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경제활동 특성 중 중요한 항목에 해당한다. 지역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특성이 구분되며, 각 지역 간의 차이도 두드러지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66.4%를 나타내고, 비임금근로자는 33.6%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근로자가 42.7%, 임시 일용근로자가 23.9%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28.8%인 점과 비교해보면[2], 춘천시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산시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71.9%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8.2%로 2010년 전국 수준인 28.8%에 근접해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53.9%, 임시 일용근로자는 17.9%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29.5%, 비임금근로자가 70.5%를 나타

2) 통계청의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내어 매우 높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합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합천군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7.7%에 불과했고,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72.3%를 나타냈다. 이로써 군 지역에 해당하는 보성군과 합천군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단위: %)

행정구역별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근로자	임시 · 일용 근로자	
춘천시	100.0	66.4	42.7	23.9	33.6
아산시	100.0	71.9	53.9	17.9	28.2
보성군	100.0	29.5	17.6	11.5	70.5
합천군	100.0	27.7	21.2	6.6	72.3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2.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경제활동 특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분포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4개 지역의 비경제활동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05천명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남자는 39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7.0%를 차지하고 여자 비경제활동인구는 66천명으로 6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43.8%를 차지하여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15~29세 연령층의 비중은 34.4%, 30~49세 연령층의 비중은 21.7%였다. 아산시의 전체 비경제활동인 구는 75천명수준으로 이 중에서 남자는

22천명으로 29.1%였고 여자는 53천명으로 70.9%를 차지해 여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5~29세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38%로 동일한 수준이었고, 30~49세 연령층은 2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집단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성군의 경우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11천명이었고, 이중에서 남자는 4천명으로 36.7%를 차지했고, 여자는 7천명으로 64.2%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분포에서 특징적인 것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66.1%를 차지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며, 15~29세 연령층과 30~49세 연령층은 각각 22.0%, 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합천군의 경우도 보성군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5천명 규모이고, 이 중에서 여자가 67.3%, 남자가 32.7%를 차지하여 남자에 비해 여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이 71.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1〉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비경제활동 인구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춘천시	105.4(100.0)	39(37.0)	66.4(63.0)	36.3(34.4)	22.9(21.7)	46.2(43.8)
아산시	75.5(100.0)	22(29.1)	53.5(70.9)	28.8(38.1)	17.9(23.7)	28.8(38.1)
보성군	10.9(100.0)	4(36.7)	7(64.2)	2.4(22.0)	1.3(11.9)	7.2(66.1)
합천군	14.7(100.0)	4.8(32.7)	9.9(67.3)	2.4(16.3)	1.8(12.2)	10.5(71.4)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중졸 이하가 45.4%, 고졸 40.8%, 대졸 이상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아산시의 경우도 춘천시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춘천시보다 대졸 이상 비율이 다소 낮고 중졸 이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보성군의 중졸 이하 비중이 78.0%, 고졸 17.4%, 대졸 이상 5.5%를 나타냈다. 합천군도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 분포에서 군 지역과 시 지역의 큰 차별성은 군 지역의 학력수준이 시 지역역보다 중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이었다.

〈표 5-12〉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행정구역별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춘천시	100.0	45.4	40.8	13.8
아산시	100.0	49.1	40.0	10.9
보성군	100.0	78.0	17.4	5.5
합천군	100.0	77.6	18.4	4.1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분포도 지역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는 비경제활동 이유가 육아 및 가사 때문인 비율이 37.9%이고, 재학 및 진학준비 28.9%, 연로 14.6%, 기타 18.6%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육아 및 가사 비율이 4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재학 및 진학준비 26.5%, 연로 10.5%, 기타 14.2%였다. 춘천시와 아산시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육아 및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다.

보성군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로 육아 및 가사 32.1%, 재학

및 진학준비 17.4%, 연로 29.4%로 나타났고, 합천군은 육아 및 가사 53.1%, 재학 및 진학준비 12.2%, 연로 19.7%로 나타났다. 보성군과 합천군의 공통점은 연로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반면 같은 군 지역에서도 보성군에 비해 합천군이 육아 및 가사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53.1%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춘천시와 아산시를 비교하면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육아 및 가사 집중도가 춘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성군과 합천군의 비교에서 출산율이 낮은 합천군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육아 및 가사 집중도가 보성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4 지역의 출산율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육아 및 가사집중도 비교에서 상반된 경향성을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13〉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행정구역별	계	육아, 가사	재학, 진학준비	연로	기타
춘천시	100.0	37.9	28.9	14.6	18.6
아산시	100.0	48.9	26.5	10.5	14.2
보성군	100.0	32.1	17.4	29.4	21.1
합천군	100.0	53.1	12.2	19.7	15.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제3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맥락에서 여성 경제활동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에서 전통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특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15세 이상 여성 전체 인구 중 연령별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5~29세 연령층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더 높다. 30~34세 연령층은 오히려 취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35~39세 이상에서 45~49세 연령층까지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 비중이 더 높다. 이후 50~54세 연령층부터는 취업자 비중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25~29세 연령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많았지만 30~34세 연령층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후 35세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 경우 30~34세 연령층까지는 취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다. 그러나 35~39세 연령층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 비중이 더 커진다. 이는 결혼 후 출산 시까지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유보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출산을 종료한 35세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산시는 춘천시보다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보다는 출산을 종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춘천시보다 강하게 나타는 것이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의 15세 이상 여성 전체 인구대비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24세 연령층부터 여성 비경제

활동인구보다 여성취업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이런 경향은 65~69세 연령층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 비중이 커지는 연속적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주 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25~39세 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합천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보성군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5-1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연령별 구성비

(단위: 천명)

구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구성비	비경활 인구 구성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구성비	비경활 인구 구성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구성비	비경활 인구 구성비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구성비	비경활 인구 구성비
15-19	9.65	0.2	8.3	8.32	0.4	8.0	0.86	0.3	3.9	0.69	0.2	2.8
20-24	8.74	3.1	4.5	8.41	3.4	4.8	0.60	2.0	1.0	0.54	2.0	0.3
25-29	7.90	3.9	2.8	9.48	4.3	5.0	0.55	1.6	1.1	0.76	2.1	1.2
30-34	8.14	3.2	3.8	10.66	4.3	6.5	0.80	2.8	1.1	0.90	2.3	1.6
35-39	10.42	4.7	4.3	10.59	6.6	3.8	0.87	3.3	0.8	0.90	2.4	1.4
40-44	10.86	5.3	4.4	9.01	5.9	2.9	1.02	3.4	1.6	1.18	4.6	0.5
45-49	11.16	5.8	4.1	8.36	5.6	2.6	1.41	5.9	1.1	1.56	5.8	0.9
50-54	10.66	4.8	4.8	7.82	4.3	3.4	1.77	7.2	1.5	1.98	7.2	1.4
55-59	7.72	2.5	4.3	5.72	3.2	2.4	1.67	7.6	0.6	1.93	6.1	2.3
60-64	5.83	1.3	3.9	4.98	2.1	2.8	1.72	7.0	1.5	2.14	5.6	3.7
65-69	6.47	1.5	4.3	3.48	1.7	1.8	2.15	7.8	2.8	2.77	7.4	4.7
70+	13.42	1.8	10.3	12.30	2.6	9.8	6.89	16.5	17.4	7.70	11.1	22.2
합계	110.98	38.1	59.8	99.13	44.3	53.9	20.32	65.5	34.3	23.07	56.9	43.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4개 지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춘천시의 경우 20~30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5~29세 연령층으로 60.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0~34세 연령층이 되면 갑자기 12.4%p 감소하여 47.9%를 나타낸다. 아산시의 경우도 20~3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는 연령층은 25~29세 연령층으로 47.3%로 춘천시보다 훨씬 낮게 나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30~34세 연령층에서 감소량은 7.5%p로 춘천시에 비해서 훨씬 작은 폭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감소폭이 춘천시의 경우가 아산시의 경우보다 더 급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춘천시의 경우 45~49세 연령층에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고점은 59.6%를 기록한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는 역시 45~49세 연령층에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고점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춘천시보다 훨씬 높은 69.0%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추세도 춘천시보다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아산시 여성이 춘천시 여성보다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성군의 사례는 20~3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24세 연령층으로 66.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연령층인 25~29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6.7%p 감소하여 60.0%를 나타내었다. 합천군 사례도 역시 20~3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24세 연령층으로 85.7%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 25~29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2.1p%나 감소하고 있다. 보성군에 비해서 합천군은 2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지만, 반면 20대 후반 연령층의 노동시장 이탈 폭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 지역과 군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별적 특징은 20대 초반 연령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 지역 여성들이 대체로 20대 초반에서 40%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군 지역 여성들은 20대 초반에서 60~80%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군 지역 여성들이 시 지역 여성들보다 2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춘천과 아산시의 경우 대학교 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를 살펴볼 때,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학교 재학생이 비율이 높고,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연령	춘천	아산	보성	합천
15-19	4.0	4.7	7.7	6.7
20-24	43.3	43.4	66.7	85.7
25-29	60.3	47.3	60.0	63.6
30-34	47.9	39.8	72.0	60.0
35-39	54.6	64.3	81.3	64.1
40-44	55.5	68.2	68.4	90.3
45-49	59.6	69.0	84.3	86.0
50-54	50.0	57.1	82.9	84.1
55-59	37.8	57.8	92.3	72.6
60-64	25.4	43.5	82.9	60.3
65-69	25.8	48.8	73.3	61.3
700이상	14.6	20.7	48.7	33.3
합계	40.2	46.1	65.7	57.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다음 그림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는 M 자 형태를 나타내는데, 출산과 양육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출산과 양육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함으로써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간에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M 자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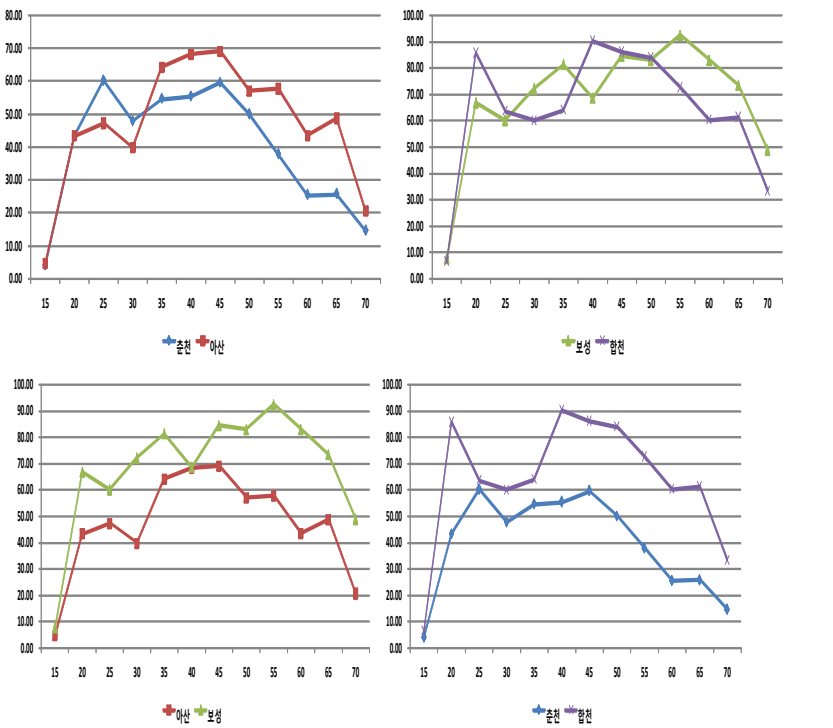
4개 지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춘천시와 아산시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M 커브를 나타내는 지역은 춘천시의 그래프이며, 아산시는 이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아산시는 20대 초반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아 M 커브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M 커브의 특징은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는 연령층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산시의 경우는 20대 초반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아서 M 커브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탈 비율도 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춘천시는 전형적인 M 커브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성군과 합천군을 비교해 보면 합천군의 경우 명확한 M 커브를 형성하고 있고 보성군은 M 커브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M 커브에서 노동시장 이탈을 나타내는 감소폭이 매우 두드러지고 감소 구간도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지역을 교차해 비교해보면 그 형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즉 아산시와 보성군은 M 커브를 나타내기 보다는 일부 노동시장 이탈 연령층이 있지만 크게는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고원형태를 닮아 있다. 반면 춘천시와 합천군은 M 커브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1〕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일반적으로 M 커브는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써, 4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와 합천군의 경우 이와 같은 M 커브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제활동 참가 유형은 출산율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서 전체 여성의 특성과 가임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차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가임 연령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 비중이 50%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혼인상태별로 구분해보면, 춘천시의 경우 미혼 취업자의 대졸이상 비율은 74.2%로 높게 나타나고 아산시는 55.0%로 나타난 점과 비교된다. 아산시의 경우 춘천시보다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16〉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단위: %)

행정구역	혼인상태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춘천시	미혼		1.1	24.7	74.2	100.0
	기혼	3.9	6.6	50.8	38.7	100.0
	전체	2.7	4.9	42.5	50.0	100.0
아산시	미혼		8.3	36.8	55.0	100.0
	기혼	3.6	10.6	59.8	26.1	100.0
	전체	2.9	10.2	55.4	31.5	100.0
보성군	미혼		7.6	4.2	88.2	100.0
	기혼	10.0	18.1	52.5	19.4	100.0
	전체	7.8	15.8	41.8	34.6	100.0
합천군	미혼		3.2	23.6	73.2	100.0
	기혼	8.7	18.2	52.9	20.1	100.0
	전체	6.5	14.4	45.5	33.6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보성군과 합천군의 경우도 미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성군은 88.2%, 합천군은 73.2%였다. 그러나 기혼자는 고졸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는 기혼자 고연령층의 학력이 낮은 점이 반영되어 나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중졸 이하 비중이 군 지역에서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일반적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산업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지역별로 흥미로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의 미혼 여성은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 여성은 절반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32.9%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산시 미혼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에 27.7%, 광공업에 42.4%가 종사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30%대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춘천시가 미혼과 기혼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산시의 경우는 미혼과 기혼 여성 모두 광공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앞의 시 지역과는 또 다른 산업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보성군 미혼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72.6%로 매우 높은 반면, 기혼 여성은 농림어업 종사자 29.4%, 도소매음식숙박업에 26.3%, 서비스업에 37.0%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합천군은 미혼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67.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혼 여성의 경우는 농림어업 24.0%,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26.1%, 서비스업에 38.1%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앞의 시 지역과 달리 미혼 여성의 경우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공통된 특성과, 기혼 여성의 경우 여러 산업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다는 차별성도 있는데, 이것은 군 지역의 고연령층 여성이 농림어업에 집중되어 나타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7〉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산업분포

(단위: %)

행정구역	혼인상태	농업, 임업및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통신, 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기타	전체
춘천시	미혼		4.4	3.9	18.6	7.7	65.4	100.0
	기혼	1.7	6.3	1.5	32.9	7.1	50.4	100.0
	전체	1.2	5.7	2.3	28.4	7.3	55.1	100.0
아산시	미혼		42.4		19.3	10.5	27.7	100.0
	기혼	5.2	32.3	1.7	21.8	5.5	33.5	100.0
	전체	4.2	34.3	1.4	21.3	6.5	32.4	100.0
보성군	미혼	3.1		4.2	7.5	12.6	72.6	100.0
	기혼	29.4	2.6	0.9	26.3	3.9	37.0	100.0
	전체	23.6	2.1	1.6	22.1	5.8	44.8	100.0
합천군	미혼	6.3			4.0	22.3	67.4	100.0
	기혼	24.0	3.3	3.2	26.1	5.4	38.1	100.0
	전체	19.5	2.4	2.4	20.5	9.7	45.5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출산행태와의 관련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산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춘천시의 20대 전체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6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30대 초반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이전 연령층 10%대에 비해 갑자기 3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세 이상 가임여성의 많은 비율이 광공업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성군은 40대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30대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합천군은 40대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고, 30대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5-18〉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산업분포

(단위: %)

행정구역		농업, 임업및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통신, 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및 기타	전체
춘천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7.7	15.4	15.4	61.5	100.0
	25-29세		11.6	2.3	11.6	7.0	67.4	100.0
	30-34세		3.2		12.9	3.2	80.6	100.0
	35-39세				38.8	10.2	51.0	100.0
	40-44세		10.2	5.1	32.2	3.4	49.1	100.0
	45-49세	5.3	7.0		40.4	7.0	40.4	100.0
	전체	1.2	5.7	2.3	28.4	7.3	55.1	100.0
아산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52.4		19.1	14.3	14.3	100.0
	25-29세		48.5	3.0	6.1	3.0	39.4	100.0
	30-34세		24.4		19.5	4.9	51.2	100.0
	35-39세	4.9	39.3	1.6	14.8	6.6	32.8	100.0
	40-44세	4.3	22.9	1.4	30.0	7.1	34.3	100.0
	45-49세	12.5	28.6	1.8	28.6	5.4	23.2	100.0
	전체	4.2	34.3	1.4	21.3	6.5	32.4	100.0
보성군	15-19세				50.0		50.0	100.0
	20-24세						100.0	100.0
	25-29세	11.2		11.2	22.1	33.3	22.1	100.0
	30-34세	16.7			33.3	11.1	38.9	100.0
	35-39세	16.0			28.0	4.0	52.0	100.0
	40-44세	23.1	7.7		19.2		50.0	100.0
	45-49세	44.2	2.4	2.4	20.9	2.4	27.9	100.0
	전체	23.6	2.1	1.7	22.1	5.8	44.8	100.0
합천군	15-19세				100.0			100.0
	20-24세						100.0	100.0
	25-29세				14.2	42.9	42.9	100.0
	30-34세	6.7	6.7	6.7	6.7	13.3	60.0	100.0
	35-39세	12.6			25.0	20.8	41.7	100.0
	40-44세	21.4	3.6		28.6	3.6	42.9	100.0
	45-49세	40.6	2.7	5.4	24.3		27.0	100.0
	전체	19.5	2.4	2.4	20.5	9.6	45.5	100.o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가임기 여성의 혼인상태별 직업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 미혼 여성은 관리자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리자 전문가의 비중이 40.6%,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40.1%로 나타났고 기타 직종에서는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관리자 전문가의 비중이 27.3%로 낮아지고, 사무종사자의 비중도 18.1%밖에 안 되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3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의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 미혼 여성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30.8%로 가장 높고,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대략 20%대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특징적 현상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미혼 여성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미혼 여성에 비해 20%p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 그 이외의 직종에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대략 18~22%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보성군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 미혼 여성은 관리자 전문가의 비중이 65.2%로 매우 높고 다음은 사무종사자 20.0%로 이 두 직종에 취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그리고 농림어업에 20%대 안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천군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 미혼 여성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50.5%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리자 전문가 비중이 37.2%로 나타나 두 직종에 밀집되어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비중이 31.2%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24.0%로 다음 순으로 높다. 사무종사자의 비중도 18.4%로 높은 편이다. 보성군에 비해서 기혼 여성 취업자의 집중도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9〉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직업분포

(단위: %)

행정구역	혼인상태	관리자, 전문가 및관련 종사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춘천시	미혼	40.6	40.1	15.7		2.6	1.1	100.0
	기혼	27.3	18.1	38.0	1.7	4.6	10.3	100.0
	전체	31.5	25.1	31.0	1.2	4.0	7.3	100.0
아산시	미혼	20.0	30.8	25.3		21.6	2.2	100.0
	기혼	18.4	14.4	22.2	3.1	19.5	22.3	100.0
	전체	18.7	17.5	22.8	2.5	19.9	18.5	100.0
보성군	미혼	65.2	20.0	11.7	3.1			100.0
	기혼	12.1	21.0	26.6	29.4	3.7	7.3	100.0
	전체	23.9	20.8	23.3	23.6	2.9	5.7	100.0
합천군	미혼	37.2	50.5	6.0	6.3			100.0
	기혼	9.3	18.4	31.2	24.0	2.2	14.9	100.0
	전체	16.4	26.5	24.8	19.5	1.6	11.1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연령별 직업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과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서비스, 판매종사자의 비율이 50%수준까지 확대된다. 아산시는 20대에 사무종사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징적인 것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점이다. 30대는 전 직종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특히 단순노무종사자가 20%대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후 40대에 들어서면 서비스,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자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취업자는 저임금직종에 과밀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보성군과 합천군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대까지 관리,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그리고 사무종사자에 집중되어 있다. 30대는 사무종사자와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확대되고, 40대에 들어서면 서비스,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종사자가 확대된다.

〈표 5-20〉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직업분포

(단위: %)

행정구역		직업코드재분류						전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춘천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46.2	42.3	7.7		3.8		100.0
	25-29세	37.2	46.5	11.6			4.7	100.0
	30-34세	32.3	58.1	9.7				100.0
	35-39세	38.8	8.2	46.9		2.0	4.1	100.0
	40-44세	32.2	15.3	30.5		11.9	10.2	100.0
	45-49세	14.0	7.0	52.6	5.3	3.5	17.5	100.0
	전체	31.5	25.1	31.0	1.2	4.0	7.4	100.0
아산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14.3	23.8	19.1		42.9		100.0
	25-29세	27.3	36.4	6.1		21.2	9.1	100.0
	30-34세	36.6	21.9	17.1		9.8	14.6	100.0
	35-39세	14.8	22.9	18.0	3.3	18.0	22.9	100.0
	40-44세	17.1	7.1	34.3	4.3	18.6	18.6	100.0
	45-49세	8.9	1.8	30.4	5.4	17.9	35.7	100.0
	전체	18.7	17.5	22.8	2.5	19.9	18.5	100.0
보성군	15-19세	50.0		50.0				100.0
	20-24세	100.0						100.0
	25-29세	33.3	33.3	22.1	11.2			100.0
	30-34세	16.7	33.3	22.2	16.7	5.6	5.6	100.0
	35-39세	20.0	32.0	28.0	16.0	4.0		100.0
	40-44세	11.6	23.0	26.9	23.0	3.9	11.6	100.0
	45-49세	7.0	11.7	25.6	44.1	2.3	9.3	100.0
	전체	23.9	20.8	23.2	23.6	2.9	5.7	100.0
합천군	15-19세		100.0					100.0
	20-24세	33.4	66.6					100.0
	25-29세	28.6	28.6	28.6			14.2	100.0
	30-34세	40.0	40.0		6.7	6.7	6.7	100.0
	35-39세	20.8	33.4	29.1	12.6		4.1	100.0
	40-44세	7.1	14.3	35.7	21.4	3.6	17.9	100.0
	45-49세	2.7	10.8	32.5	40.5		13.5	100.0
	전체	16.4	26.5	24.8	19.5	1.6	11.1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중에서 종사상지위도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여성의 출산 및 양육 활동과 가사노동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시간의 가용성이라고 할 때, 종사상지위가 시간의 가용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종사상지위 분포를 나타낸다. 춘천시 가임기 여성 중 미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87.4%로 매우 높고 기혼 여성은 70.1%로 역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미혼 여성의 59.2%인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는 44.8%로 다소 낮다. 아산시의 경우는 매우 특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혼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92.1%로 매우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가 79.8%로 매우 높다. 반면 임근로자 중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매우 낮다.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81.2%로 역시 매우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은 51.9%로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가 23.8%로 미혼 여성에 비해서 17.0%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혼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보성군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에서 미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3.2%로 매우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78.3%로 역시 높은 편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47.4%로 미혼 여성에 비해서 45.8%p 더 낮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이 36.5%로 역시 미혼 여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37.6%로 미혼 여성에 비해서 34.5%p 더 높게 나타났다. 보성군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비율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합천군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에서 미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0.6%로 매우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83.8%로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53.3%로 미혼

여성에 비해서 37.3%p 더 낮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이 41.5%로 역시 미혼 여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36.8%로 미혼 여성에 비해서 33.7%p 더 높게 나타났다. 보성군과 마찬가지로 합천군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비율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크게 차이나고 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종사상지위 분포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기혼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비율에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격차가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에서 크게 낮아지는 것도 특징적 현상이다. 이는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종사상지위의 차별성이 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5-21〉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행정구역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소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춘	미혼	87.4	59.2	24.0	4.2	1.2	11.4		100.0
천	기혼	70.1	44.8	19.6	5.7	6.6	11.3	12.0	100.0
시	전체	75.7	49.3	21.0	5.3	4.8	11.3	8.2	100.0
아	미혼	92.1	79.8	6.8	5.5	1.9	6.0		100.0
산	기혼	81.2	51.9	23.8	5.5	2.6	6.3	9.9	100.0
시	전체	83.3	57.2	20.6	5.5	2.5	6.2	8.0	100.0
보	미혼	93.2	78.3	11.1	3.8			6.8	100.0
성	기혼	47.4	36.5	8.3	2.7	2.7	12.3	37.6	100.0
군	전체	57.6	45.7	8.9	2.9	2.1	9.5	30.8	100.0
합	미혼	90.6	83.8	6.7			6.3	3.1	100.0
천	기혼	53.3	41.5	8.5	3.3	3.3	6.6	36.8	100.0
군	전체	62.7	52.3	8.1	2.4	2.5	6.5	28.3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다음 표는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종사상지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지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주기에 다라서 경제활동의 특성 변동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분석표에 따르면 춘천시의 가임기 여성 취업자 중에서 20대와 30대는 60~70% 범위에서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20~30% 범위에서 임시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다. 그런데 30대 후반 연령층으로 가면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된다. 35~49세까지 상용근로자 비율은 20~40%대로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이는 춘천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 변동이 매우 크게 관찰되는 것이고, 이런 변화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이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산시는 20대 가임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80~9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30대로 가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50%수준으로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비중이 20%수준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40대로 가면 일부 자영업부문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종사상지위 비중은 감소한다. 아산시의 경우도 상용근로자로 취업해 있다가 출산 후 임시근로자로 전환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보성군은 20대에 상용근로자 비중이 40~60%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부문 종사자가 10~20%수준까지 관찰되는 점이 특징적이고, 이후 30~40대로 가면 자영업 부문이 30~40%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합천군은 20대에서 30대까지 대략 60~80%까지 종사상지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40대 접어들어 자영업부문의 40~50%수준까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춘천시와 아산시는 종사상지위변동이 임금근로자 내에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보성군과 합천군은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로자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2〉 가임기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율

(단위: %)

행정구역		종사상지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춘천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61.5	34.6	3.8				100.0
	25-29세	69.8	18.6			11.6		100.0
	30-34세	71.0	12.9	3.2	3.2	6.4	3.2	100.0
	35-39세	42.9	26.5	2.0	6.1	14.3	8.2	100.0
	40-44세	49.2	11.9	11.9	5.1	13.6	8.5	100.0
	45-49세	24.6	24.6	3.5	10.5	15.8	21.0	100.0
	전체	49.3	21.0	5.2	4.8	11.3	8.2	100.0
아산시	15-19세		100.0					100.0
	20-24세	85.7		9.5		4.8		100.0
	25-29세	90.9	9.1					100.0
	30-34세	53.7	26.8	2.4		4.9	12.2	100.0
	35-39세	55.7	24.6	3.3	3.3	6.6	6.6	100.0
	40-44세	40.0	27.1	5.7	5.7	10.0	11.4	100.0
	45-49세	41.1	19.6	12.5	3.6	8.9	14.3	100.0
	전체	57.2	20.6	5.5	2.5	6.2	8.0	100.0
보성군	15-19세		50.0	50.0				100.0
	20-24세	100.0						100.0
	25-29세	66.5	11.2			11.2	11.2	100.0
	30-34세	44.4	11.1			11.1	33.3	100.0
	35-39세	48.0	8.0	4.0	4.0	4.0	32.0	100.0
	40-44세	42.3	11.6	3.9	3.9	3.9	34.6	100.0
	45-49세	25.6	7.0	2.3	2.3	18.6	44.1	100.0
	전체	45.7	8.9	2.9	2.1	9.6	30.8	100.0
합천군	15-19세	100.0						100.0
	20-24세	83.4	16.6					100.0
	25-29세	85.8	14.2					100.0
	30-34세	66.7	6.7	6.7		6.7	13.3	100.0
	35-39세	58.2	12.5			12.5	16.7	100.0
	40-44세	39.3	3.6	3.6	3.6	10.7	39.3	100.0
	45-49세	29.7	5.4	2.7	5.4	5.4	51.4	100.0
	전체	52.3	8.0	2.4	2.4	6.5	28.3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노동시장에 여성의 노동조건으로 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는 지난 3개월 평균임금의 종사상지위별 평균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전연령층의 여성 취업자 3개월 평균 임금을 나타내며, 자료가 가용한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것이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남자 임금대비 여자 임금의 비로 표시하였다.

춘천시의 경우 남자 임금 평균액은 217.7만원이고 여자 임금 평균액은 142.8만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라 약간의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남녀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여자 임금은 남자 임금의 65.6%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근로자의 경우 남녀의 임금격차가 가장 작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아산시의 경우는 남자 임금 평균액은 218.2만원이고 여자 임금 평균액은 137.1만원으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격차로 여자 임금은 남자 임금의 6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는 임시근로자의 경우 격차가 가장 작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는 춘천시와 아산시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임시근로자의 경우 격차가 작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다만 춘천시에 비해서 아산시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성군의 여성임금 수준은 남성의 절반수준(53.6%)밖에 안되어 전체적으로 여성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합천군은 보성군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57.7%)이지만 역시 시지역의 60%대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징적인 것은 합천군 이시근로자의 경우 남자 임금의 83.1%까지 올라가는 점이다.

요컨대, 시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군 지역 내에서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의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고출산 지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저출산 지역의 임금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3〉 종사상지위별 평균 임금 및 남녀임금격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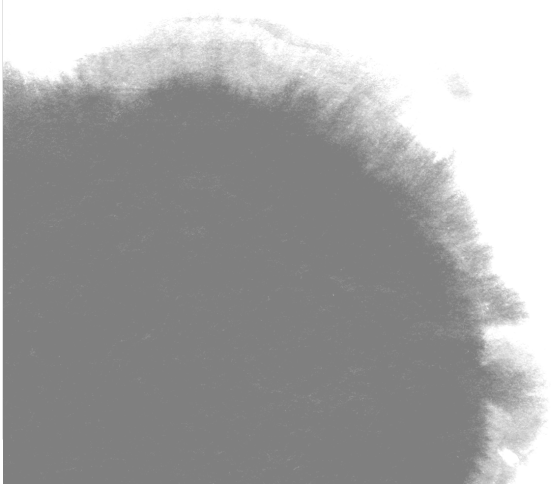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행정구역	성별	종사상지위	평균	N	표준편차	남녀임금격차
춘천시	남자	상용근로자	258.3	28647	136.2	
		임시근로자	138.4	7679	68.1	
		일용근로자	116.7	5483	55.9	
		합계	217.7	41808	132.7	
	여자	상용근로자	174.8	16224	89.9	67.7
		임시근로자	107.2	8941	53.7	77.5
		일용근로자	75.6	2965	35.5	64.8
		합계	142.8	28130	84.8	65.6
아산시	남자	상용근로자	235.9	44479	105.0	
		임시근로자	140.0	6793	62.7	
		일용근로자	118.2	2567	54.9	
		합계	218.2	53839	106.1	
	여자	상용근로자	161.2	19927	76.3	68.3
		임시근로자	109.6	9218	96.6	78.3
		일용근로자	58.8	2870	28.5	49.8
		합계	137.1	32015	86.7	62.9
보성군	남자	상용근로자	245.7	2632	111.1	
		임시근로자	162.1	550	102.5	
		일용근로자	107.2	906	70.1	
		합계	203.7	4088	117.8	
	여자	상용근로자	135.8	2011	62.8	55.3
		임시근로자	85.3	816	32.5	52.6
		일용근로자	65.2	769	35.2	60.8
		합계	109.2	3596	60.4	53.6
합천군	남자	상용근로자	232.7	3039	98.5	
		임시근로자	92.9	288	37.7	
		일용근로자	93.2	337	50.6	
		합계	208.9	3664	105.6	
	여자	상용근로자	142.4	2761	72.0	61.2
		임시근로자	77.2	601	28.2	83.1
		일용근로자	62.5	584	16.6	67.1
		합계	120.6	3947	70.0	57.7

주: 여기서 임금은 지난 3개월 평균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KIHASA

6장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



제6장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

제1절 지역의 자원 현황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일 것이다. 보육시설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체계의 실질적 인프라이기 때문이고, 보육시설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등은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

2010년 기준으로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217개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시설은 7개소이며 민간시설은 107개 시설 그리고 부모협동시설은 1개, 직장보육시설이 1개, 가정보육시설 10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아산시는 전체 389개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시설은 11개, 민간보육시설 103개, 직장보육시설 5개, 가정보육시설 26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성군은 전체 12개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4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은 8개뿐이다. 합천군은 15개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국공립 시설은 3개, 민간보육시설은 7개,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4개뿐이다.

〈표 6-1〉 보육시설 현황(2010년)

(단위: 개)

구분	합계	국공립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법인외	법인			
춘천시	217	7	107	81	9	17	1	1	101
아산시	389	11	103	97	6	10	-	5	260
보성군	12	4	8	4	1	3	-	-	-
합천군	15	3	7	5	2	1	-	-	4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1.

2010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는 총 7,997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아산시는 11,060명, 보성군은 749명, 합천군은 615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2010년 0~4세 주민등록 인구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69.6, 아산시 60.8, 보성군 40.3, 합천군 43.2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시지역의 경우 60%대를 형성하고, 군지역은 40%대를 나타내고 있다. 시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가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더 높고, 군 지역에서도 저출산 지역인 합천군이 고출산 지역인 보성군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2〉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2010)

(단위: 명, %)

구분	합계 (0~4세 인구대비[1])	국공립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법인외	법인			
춘천시	7,997(69.6)	737	5,688	3,732	609	1,347	12	50	1,510
아산시	11,060(60.8)	536	5,811	5,484	327	857	-	412	3,444
보성군	749(40.3)	276	473	112	72	289	-	-	-
합천군	615(43.2)	169	337	198	139	50	-	-	59

주 1) 0~4세 인구는 춘천시 11,494명, 아산시 18,204명, 보성군 1,857명, 합천군 1,423명(KOSIS, 주민등록인구, 2010).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1.

지역의 민간자원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제 보육형태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보육 형태는 보육시설의 분포나 시설유형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가구에서 가용한 인적자원의 특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형태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보육형태로써 친인척에 대한 의존도이며, 친인척과 같은 인적자원 의존성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지역별로 보육형태의 총괄적 개요를 보여준다. 춘천시는 보육형태에서 부모가 관련되어 있는 비율이 40.3%(부모, 부모관련), 아산시는 45.9%, 보성군은 29.5%, 합천군은 34.9%로, 춘천시와 아산시가 보성군이나 합천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지역 춘천시보다 고출산 지역 아산시가 더 높고, 저출산 지역 합천군보다 고출산 지역 보성군이 더 낮게 나타난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에서, 춘천시는 42.2%(보육시설, 학교, 학원, 부모무관시설), 아산시 42.1%, 보성군 60.4%, 합천군 49.1%로 나타나, 보성군의 시설이용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6-3〉 보육형태

(단위: 명, %)

구 분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전체 (아동수)		100.0 (35,440)	100.0 (43,682)	100.0 (3,635)	100.0 (3,591)
단독	부모	26.2	30.0	19.4	23.5
	친인척	7.3	4.6	5.9	6.4
	도우미	0.8	0.2	0.1	0.0
	보육시설	17.2	18.0	21.4	17.4
	학교	3.6	4.8	14.4	10.3
	학원	14.3	12.1	15.8	12.9
	혼자	1.9	2.0	2.2	3.2
복합	부모 관련	14.1	15.9	10.1	11.4
	부모 무관 시설	7.1	7.2	8.8	8.5
	부모 무관 친인척	4.6	2.8	1.4	3.3
미상		3.0	2.2	0.5	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0%표본), 2010.

친인척 의존비율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11.9%(친인척, 부모 무관 친인척), 아산시는 7.4%, 보성군은 7.3%, 합천군은 9.7%를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에 비해서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이 상대적으로 친인척 의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형태를 성별 취업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분석표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관련 보육형태 비율은 춘천시 41.4%(부모, 부모관련), 아산시는 45.5%, 보성군 26.3%, 합천군 34.5%로 나타났다. 시 지역은 일하는 여성의 보육형태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비율이 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시설이용 비율(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학원, 부모무관 시설)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44.7%, 아산시는 45.7%, 보성군은 62.8%, 합천군은 53.8%로 나타났다.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시설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지역 춘천시와 보성군에 비해 고출산 지역 아산시와 합천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친인척 의존비율(친인척, 부모 무관 친인척)은 춘천시가 11.1%, 아산시는 6.6%, 보성군은 7.9%, 합천군은 9.7%로 나타났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비교에서 공통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보성군이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합천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형태를 비교해보면, 춘천시는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 의존성이 다소 높고, 친인척 의존성도 다소 높은 편이다. 아산시는 부모 의존성과 시설 의존성이 거의 유사하며, 친인척 의존성은 낮은 편이다. 보성군은 부모 의존성이 매우 낮고 시설 의존성이 높으며, 친인척 의존성은 낮은 편이다. 합천군은 부모 의존성이 낮고 시설 의존성이 높으며, 친인척 의존성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은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과 친인척 의존성이 높은 편이고,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은 부모 의존성이나 친인척 의존성 보다 시설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4〉 성별, 취업여부 별 보육형태

(단위: 명, %)

구분			단독							복합			계
			부모	친인척	도우미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학원	혼자	부모관련	부모무관시설	부모무관친인척	비율
춘천시	남자	일함	25.6	7.7	0.7	18.6	4.0	15.8	2.1	14.1	7.4	4.0	100.0
		일안함	26.9	7.0	0.6	15.2	8.1	7.7	1.1	19.0	4.3	10.1	100.0
		계	25.8	7.6	0.7	18.1	4.6	14.7	2.0	14.8	7.0	4.8	100.0
	여자	일함	27.3	6.7	0.7	17.6	2.5	16.4	2.1	14.1	8.2	4.4	100.0
		일안함	33.0	10.7	1.9	16.0	4.8	7.1	0.9	14.6	5.1	5.9	100.0
		계	28.3	7.4	0.9	17.4	2.9	14.8	1.9	14.2	7.7	4.6	100.0
	전체		27.0	7.5	0.8	17.8	3.8	14.7	1.9	14.5	7.3	4.7	100.0
아산시	남자	일함	30.8	4.8	0.2	17.6	4.2	12.7	2.1	16.8	7.5	3.3	100.0
		일안함	35.0	5.8	0.0	13.0	9.2	9.3	1.3	18.2	4.4	3.7	100.0
		계	31.2	4.9	0.2	17.1	4.8	12.3	2.0	17.0	7.2	3.3	100.0
	여자	일함	30.2	4.5	0.2	20.0	4.8	13.1	2.1	15.3	7.8	2.1	100.0
		일안함	30.2	5.6	0.0	18.9	6.8	6.4	1.6	18.3	6.4	6.0	100.0
		계	30.2	4.6	0.2	19.9	5.0	12.4	2.1	15.6	7.6	2.5	100.0
	전체		30.7	4.7	0.2	18.4	4.9	12.4	2.1	16.3	7.4	2.9	100.0
보성군	남자	일함	20.4	4.0	0.0	20.0	14.1	17.7	2.4	11.8	7.7	1.9	100.0
		일안함	18.0	12.9	0.0	18.7	28.8	11.9	0.0	9.0	0.7	0.0	100.0
		계	20.0	5.3	0.0	19.8	16.3	16.9	2.0	11.4	6.7	1.6	100.0
	여자	일함	17.8	6.5	0.1	22.9	12.8	15.3	2.7	8.5	11.8	1.4	100.0
		일안함	27.3	7.8	0.0	25.9	10.7	11.2	0.0	10.7	6.3	0.0	100.0
		계	18.9	6.7	0.1	23.3	12.6	14.8	2.4	8.8	11.2	1.2	100.0
	전체		19.5	5.9	0.1	21.5	14.5	15.9	2.2	10.1	8.8	1.4	100.0
합천군	남자	일함	21.9	5.6	0.0	20.2	9.1	14.7	1.3	14.8	10.2	2.2	100.0
		일안함	27.9	14.5	0.0	21.0	8.3	5.5	4.5	12.4	4.5	1.4	100.0
		계	23.0	7.2	0.0	20.3	8.9	13.1	1.8	14.4	9.2	2.0	100.0
	여자	일함	26.2	4.5	0.0	16.2	13.3	14.9	2.0	8.3	9.4	5.2	100.0
		일안함	22.5	12.4	0.0	15.1	7.4	7.9	14.6	13.8	4.5	1.9	100.0
		계	25.4	6.1	0.0	15.9	12.1	13.5	4.6	9.4	8.4	4.5	100.0
	전체		24.3	6.6	0.0	18.0	10.6	13.3	3.3	11.7	8.8	3.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0%표본), 2010.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역의 자원 중 병의원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병의원은 262개이고 병상은 3,826개로써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춘천시가 강원도청 소재지로써 기본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

의료기관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합계	병원	262	205	43	38
	병상	3,826	2,247	730	663
종합병원	병원	2	-	-	-
	병상	874	-	-	-
병원2	병원	7	4	1	2
	병상	1,072	541	120	610
의원	병원	131	99	25	18
	병상	526	356	139	52
특수병원	병원	3	3	1	-
	병상	792	880	418	-
요양병원	병원	4	3	1	-
	병상	468	470	113	-
치과병.의원	병원	66	55	7	7
	병상	-	-	-	-
한방병원	병원	1	-	8	-
	병상	78	-	-	-
한의원	병원	47	39	-	11
	병상	-	-	-	-
조산소	병원	-	-	-	-
	병상	-	-	-	-
부속병원	병원	1	2	-	-
	병상	16	-	-	-
보건의료원		-	-	-	-
보건소		1	1	1	1
보건지소		10	11	9	16
보건진료소		13	16	14	11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1.

아산시는 전체 병의원 205개, 병상은 2,247개를 보유하고 있고, 보성군은 전체 병의원 43개, 병상 730개, 합천군은 전체 병의원 38개, 병상 663개를 보유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지방의 중소도시로써 병원과 병상과 관련된 비교적 많은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보성군과 합천군은 40여개의 병의원과 660~730개 수준의 병상을 갖고 있어 춘천시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성군과 합천군을 비교해보면 보성군이 합천군에 비해서는 병원과 병상수가 다소 많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교육기관은 지역의 자녀 양육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학교수는 138개, 학급수는 2,121개, 전체 학생수는 83,505이나 된다. 도청 소재지로서 춘천시에 교육 인프라교육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은 전체 39개에 2,298명이 재학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아산시의 경우는 전체 학교수는 121개로 67,80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이 중 에서 유치원은 52개에 3,367명이 재학하고 있다. 보성군은 전체 학교 60개에 5,56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 22개 유치원에 29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합천군은 전체 57개 학교에 4,813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 중에서 20개의 유치원에 355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 6-6〉 학교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수	학급(과)수	학생계	교원당학생수
춘천시	학교총개황	138 (2)	2,121	83,505	19
	유치원	39	115	2,298	14
	초등	39 (2)	681	17,650	18
	중등	18	328	11,214	18
	고등	14	332	11,390	29
	특수	5	77	693	5
	대학교	7 (1)	263	35,657	71
	대학원	23	352	4,426	32
아산시	학교총개황	121	1,502	67,802	15
	유치원	52	158	3,367	16
	초등	42	748	19,334	18
	중등	17	237	9,351	17
	고등	8	221	7,842	18
	특수	1	27	175	3
	대학교	5	148	30,845	29
	대학원	-	-	-	-
보성군	학교총개황	60 (2)	315	5,560	10
	유치원	22	28	296	9
	초등	18 (2)	144	1,949	9
	중등	12	62	1,383	10
	고등	8	71	1,568	19
	특수	-	-	-	-
	대학원	-	-	-	-
	대학원	-	-	-	-
합천군	학교총개황	57	289	4,813	9
	유치원	20	27	355	11
	초등	20	152	2,045	9
	중등	11	64	1,249	8
	고등	6	46	1,164	18
	특수	-	-	-	-
	대학원	-	-	-	-
	대학원	-	-	-	-

주: ( )는 분교장수로 전체학교 수에 미포함.

주 2: 2010년 기준 5세 인구는 춘천시 2,320명, 아산시 3,005명, 보성군 233명, 합천군 227명(센서스 기준)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1.

학교뿐만 아니라 사설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0년 기준으로 춘천시 학원은 469개이고 수강인원은 50,077명으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의 경우는 175개로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아산시는 전체 337개의 학원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인원은 34,948명이었다. 이 중에서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은 139개였다.

보성군은 전체 43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며 학생 1,489명이 이용 중이었다. 이 중에서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은 20개 운영 중이었다. 합천군은 전체 45개 학원이 운영 중이며, 1,382명의 수강생이 이용 중이었다. 이 중에서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21개였다.

춘천시와 아산시는 군 지역에 비해 약 7배 이상 많은 학원이 운영 중이었고, 특히 춘천시는 도청 소재지로서 교육 관련 인프라가 매우 많이 확충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군 지역인 보성군과 합천군은 상대적으로 시 지역보다 매우 작은 규모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보성군과 합천군의 학원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7〉 사설 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 (학원수)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수강인원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기타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춘천시	469	175	81	167	18	24	2	2	50,077
아산시	337	139	38	105	6	5	44		34,948
보성군	43	20	3	16	2	2	0	0	1,489
합천군	45	21	3	15	5	1	-	-	1,382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1.

제2절 지역의 정책적 특성[3)]

출산율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학자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상반되게 분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추세의 관점에서는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유럽의 국가 사례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사회체계를 출산 및 가족 친화적으로 개선한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임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이나, 정부의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출산율 역시 인구대체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의 해당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한 사업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모자보건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모자보건사업을 제외하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예산 규모도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3억원에 해당한다. 아산시는 임신, 출산, 결혼 분야에 걸쳐 두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출산장려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2억원이다.

---

3) 이 절에서 분석한 지역 정책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의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일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한 것으로 실제 정책현황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6-8〉 지역별 자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구분	사업별 예산
춘천시	임신	초음파 검사 쿠폰지급	66,000
	출산	식품쿠폰 및 출생축하 카드 지급	44,000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75,000
	출산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비예산
	출산	유축기 대여	비예산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1,019,200
	육아	입양아동 보육료지원	60,000
	육아	취학전 어린이 안보견사업	비예산
	기타	출산교실 운영	20,000
		결혼이민자 출산육아용품	8,000
아산시	임신	임신초기검사	20,000
		임신성당뇨검사	50,000
		임산부교실	6,000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책자제공	20,000
	출산	출산 후 용품지원	15,000
		출산장려금	1,020,400
		영유아등록시 육아용품지원	50,000
		유축기 대여	3,300
		영양플러스사업 모집시 선물증정	5,000
	결혼	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4,375
	기타	아산시 부부의날 행사	15,000
보성군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1,320,000
		신생아 출산축하물품지원	4,000
합천군	출산	출산장려금	243,100
		출산(입양)축하상품권	46,985
		다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5,999
	육아	입양장려금	11,500
		영유아 양육비 및 학습비 지원	1,300,000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54,048
	기타	학자금 및 역사문화탐방비 지원	-

자료: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2011),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제공자료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음.

보성군의 핵심 정책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은 도입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도입 초기 지원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보성군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3억원에 해당하지만, 출산장려금 이외의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합천군은 출산, 육아 분야에 몇몇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에 편성한 예산 규모는 약 17억원에 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더 세세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춘천시의 저출산 지원사업은 춘천시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임신지원 분야에서 기형아 또는 초음파 검사 쿠폰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예산규모는 66,000천원으로 전액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써, 기형아 및 초음파검사 쿠폰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에게 1장, 둘째아에게 2장, 셋째아 이상에게는 2장을 지급하며, 2010년의 경우 3,302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출산지원 분야에서 식품쿠폰 및 출생축하 카드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1년 예산은 44,000천원 규모였고 전액 춘천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출생등록을 한 가정으로 약 2,000여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며, 2010년의 경우 2,216명이 혜택을 받았다. 출생 축하카드 및 2만원 상당의 식품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본 사업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며, 2011년 예산액은 75,000천원으로 전액 춘천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춘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서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0년에 245명이 수혜를 받은 바 있다.

모유수유 실천도우미파견 사업은 춘천시 보건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춘천시 주민 중 출산 후 가정방문을 원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2주 이내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기본교육, 수유자세 및 방법, 유두상처 관리법, 유방마사지방법, 유축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 67가구가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유축기 대여 사업은 많은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춘천시의 경우도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예산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40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2011년에는 25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사업은 산모의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축기를 1개월 간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춘천시의 자체 사업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위해 춘천시가 투입한 예산이 2011년의 경우 1,019천원으로 매우 큰 규모로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춘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를 출산한 가구이다. 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대상가구에 월 2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도록 지원하고 대상아동은 10년 동안 건강보장을 받는 사업이다. 보험기간 만기 시 보험료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되어 시의 재정 투입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2007년 5월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한 바 있다.[4] 2010년에 2,429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육아지원 분야에서 춘천시는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춘천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시자체 예산을 60,000천원 편성하였고 2010년에는 59명이 지원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자녀 및 입양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에 재원할 경우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2011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춘천시는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취학전 어린이 안보건사업을 추진중이다. 본 사업은 춘천시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은 춘천시 관내 취학전 만3세~6세 아동이며, 2010년에 1,98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4)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대상 아동의 가정에서 안검진 조사지로 1차 검진을 실시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검진 이상자는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타 분야에서 2개의 자체사업을 추진 중인데, 출산교실 운영과 결혼이민자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지급 사업이다. 출산교실 운영은 춘천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 자체 예산 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1,19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아기마사지교실, 임산부요가교실의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지급 사업 역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은 시 자체 예산으로 8,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 2개월 이내인 다문화가정 임산부로써, 이들에게 출산육아용품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에는 66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1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아산시의 저출산 지원사업은 아산시 여성가족과와 아산시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산시는 결혼지원 분야, 출산분야, 기타 분야에 11개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아산시 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2011년도에 시 예산 1,020,400천원을 편성하였고, 1,903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지원 내용은 둘째아에게 400천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천원을 지급한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2째아에게는 30만원을, 3째아 이상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 장려금을 증액시켰다.

또한 아산시 보건소는 아산시 모성 및 영유아 지원을 목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 임신초기검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빈혈 외 30종 자체검사를 지원해준다. 시 자체 예산으로 2011년도 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약 1,000명의 임산부를 지원하였다. 또한 임신성당뇨검사를 통해 1인당 20천원씩 위탁검사를 하며, 2011년 자체예산 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약 2,500명의 임산부에게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임신

20주에서 28주 사이의 아산시거주 산모이다. 이에 더불어,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월 2회씩 운영하며, 2011년 아산시 자체 예산 6,000천원으로 재료비 및 강사비를 제공한다.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책자제공 사업지원을 통해 이유식 및 산전후 체조, 차량부착용 스티커, 아기 키재기자를 제공한다. 이는 2011년 시 자체 예산 20,000천원이 투입되어 지원된다. 또한, 임산부 출산 후 용품지원은 자체 예산 15,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정제(좌욕시 사용) 및 아기 제대소독약을 지원한다. 영유아등록시 육아용품지원사업은 2011년 자체예산 50,000천원이 투입되었고, 영유아에게 물티슈, 로션 등을 제공한다. 유축기대여 사업 또한 시 자체 예산 3,300천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역류방지용 유축기를 관내 산모에게 대여해준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시 선물증정 사업은 2011년 자체예산 5,000천원을 편성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아산시 결혼지원 분야에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 시 자체 예산으로 4,375천원을 편성하였고, 20쌍 40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비스 수혜대상은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이다. 주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결혼관과 결혼생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분야로써 아산시 부부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3차를 맞이했으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시 자체 예산으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아산시 중 모범부부 125쌍 50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취지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부부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부부 및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등한 부부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미혼 남녀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전한 결혼관과 결혼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성군의 저출산 지원사업은 보성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산지원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사업을 보성군 보건소에서 추진 중이며, 군 자체 예산으로 355명 지원 규모로 1,32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아의 경우 2,400천원을 월 10만원씩 2년 동안, 둘째아의 경우 3,600천원을 월 15만원씩 2년 동안, 그리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 6,000천원을 월 25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2010년에는 6,595명에게 953,050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 사업을 위하여 보성군은 2006년 보성군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1884호)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적용은 200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출산지원을 위하여 신생아 출산축하물품지원 사업도 추진 중으로, 군자체 예산 4,000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성군 출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축하물품으로 신생아 내의 1벌을 지원하고 있고, 2010년의 경우 200명이 서비스를 받은 바 있다.

합천군에서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행정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과, 노인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산과 육아지원 관련 업무를 관할하여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합천군 자체사업으로 2011년 243,100천원 편성되어 있으며, 324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첫째아에게 50만원, 둘째아에게 7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500만원을 1년마다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첫째아에게 30만원, 둘째아에게 50만원이었으나, 2010년부터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합천군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입양)축하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 군비 46,985천원이 투입되었으며, 4,368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서비스는 2009년까지 입양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2010년 6월 3일 이후로 입양의 경우도 축하상품권 지원대상에 포함되

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록한 자로써,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과에서는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합천군 자체예산으로 11,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7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상이 없어서 집행실적은 없다.

합천군 행정과가 관할하는 사업으로 기타 분야에서 2개의 자체사업을 추진 중인데, 학자금 지원사업과 역사문화탐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천군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고·대학생에게 적용되며, 중학생은 분기별로 10만원, 고등학생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대학생은 연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이 지원된다. 역사문화탐방비 지원사업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중 셋째자녀 이상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제 서비스가 지원된 내역은 없다.

또한 합천군은 노인여성과가 관할하여 영유아 양육비 및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액 군비지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 출생자를 포함하여 6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중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써, 둘째아는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군 자체 예산 1,300,000천원이 투입되었고 총 85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 중 양육비는 653

명, 학습비는 199명이 지원받았다. 학습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둘째아에게 월 7만원, 셋째아 이상은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본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1,300,000천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노인여성과에서는 또한 도비와 군비 예산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만4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다. 2011년에는 군비 54,048천원이 투입되었고, 총 57명이 본 사업 지원을 받았다. 2012년에는 군비가 25,668천원으로 감소되는 반면 만0세~5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합천군 보건소에서도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 사업내용으로 다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1년 11월까지는 셋째아이상에게 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는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늘이도록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2011년에 군비 5,999천원이 투입되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신생아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셋째아 이상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에는 총 35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네 지역의 저출산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지원 관련 지원의 특성 및 차별성을 알 수 있다. 우선 춘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사업 수가 많은 편이다. 그 중 특징적인 사업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이다. 2007년부터 편성된 본 사업은 춘천시 예산 중 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2011년 기준으로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19곳의 시군구에서만 다자녀 및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타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지원 사업이다. 이는 춘천시 자체예산으로 시행되고 있고, 춘천시를 제외한 네 지역 - 서울 동작구, 부산 기장군, 부산 수영구, 군포시 - 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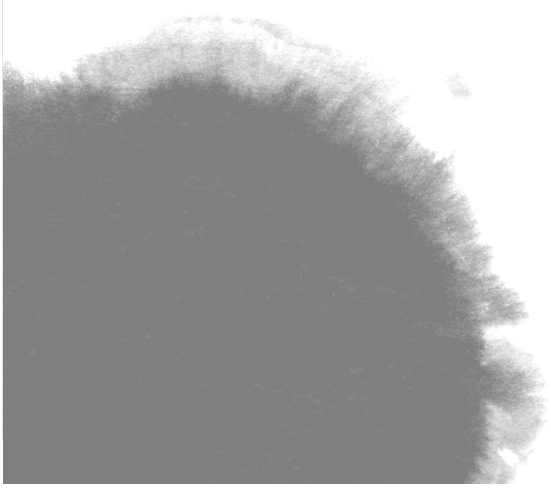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아산시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총 11개의 저출산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할하여 시 자체예산으로 다양한 모성 및 영유아 지원 사업이 국고지원 없이 시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성군은 저출산 관련 지원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과 신생아 출산축하물품지원 이외에 군 자체사업은 없다. 합천군 또한 저출산관련 사업에 있어서 군 자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행정과 관할인 출산장려금과 보건소 관할인 다자녀 출산 축하금이 중복수혜가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KIHASA

7장

사례비교와 정책적 함의



제7장 사례비교와 정책적 함의

제1절 지역 사례의 비교 분석

1. 지역의 구조적 특성 요소

본 연구는 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은 춘천시와 출산율이 높은 아산시, 그리고 군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은 보성군과 출산율이 낮은 합천시를 선정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서 중요한 요인은 가임여성의 구조와 혼인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출산행태와 인구이동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춘천시는 총인구 추이가 안정화된 상태이고, 가임여성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가임여성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 35세 이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임여성인구의 구조가 고령화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낮은 수준이며, 연령별 출산율에서 특징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출산에서 첫째아 출산 비중이 높고, 둘째아 출산 비중은 낮고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혼인행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평균초혼 연령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 20대의 인구는 순유출을 나타내는 반면 30대의 인구는 순유입 상태를 보인다.

아산시는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가임여성인구

는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대 후반과 30대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합계출산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 출산율이 매우 높고 30대 출산율도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 비중에서 첫째와 둘째아 출산 비중이 높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자의 평균초혼 연령이 매우 낮은 것이 아산시 혼인행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20대가 큰 폭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30대 중반 인구가 최근 들어 순유입되고 있고, 30대 후반 인구 역시 순유입상태로 아산시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보성군은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임여성인구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40대 가임여성의 비중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대 출산율은 전국 수준과 유사하지만, 30대 출산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 비중은 낮지만, 둘째와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나내고 있다. 혼인행태로써 평균 초혼연령은 변동 폭이 크고 최근 2년 사이 감소하고 있고 재혼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인구이동에서 20대 인구가 큰 폭의 순유출상태에서 점차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30대와 이외의 전연령층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합천군은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임여성인구 비율도 전국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40대 가임여성인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대 출산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낮은 상황이다. 첫째아 출산 비중과 둘째아 출산 비중이 낮고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만 높은 상황이다.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 변동 폭이 크고 만혼화 현상이 관찰된다. 인구이동에서 전연령층의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인구변동의 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 7-1〉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요소

구분		특징
시 지역	춘천	- 총 인구 안정화 - 가임여성인구 감소/비율 전국 수준 유지 - 가임여성비율 연령증가에 따라 점증, 35세 이후 비율 높음(고령화) - 합계출산율 낮은 수준(1.3) - 2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높음 - 3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다소 낮음 - 첫째아 비중 높고, 둘째아로 이어지는 비율 낮고, 셋째아로 이어지는 비율 매우 낮음 - 여자 평균초혼연령 매우 높음 - 20대 순유출, 30대 순유입
	아산	- 총 인구 지속 증가 - 가임여성인구 증가/비율 전국 수준 유지 - 가임여성비율 20대 후반, 30대 비율 높음(젊은 구조) - 합계출산율 높은 수준(1.8) - 2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높음 - 3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다소 높음 - 첫째아 둘째아 비중 높아 둘째아까지 출산지속, 셋째아 비중은 낮음 - 여자 평균초혼연령 매우 낮음 - 20대 큰 폭 순유입, 30대 중반 최근 순유입, 30대 후반 순유입
군 지역	보성	- 총 인구 지속 감소 - 가임여성인구 감소/비율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 가임여성비율 40대 비율 높음(고령화) - 합계출산율 높은 수준(2.0) - 20대 출산율 전국수준과 유사 - 3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높음 - 첫째아 비중 낮지만, 둘째 셋째 연속비중 높음 - 여자 평균초혼연령 변동 폭 크고, 최근 2년 감소 - 20대 큰 폭 순유출에서 점차 규모감소, 30대 작음 폭 순유출, 전 연령층 순 유출
	합천	- 총 인구 지속 감소 - 가임여성인구 감소/비율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 가임여성비율 40대 비율 높음(고령화) - 합계출산율 낮은 수준(1.4) - 2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높음 - 30대 출산율 전국수준에 비해 다소 낮음 - 첫째 둘째 비중 낮고 셋째 비중만 높음 - 여자 평균초혼연령 변동 폭 크고, 최근 1년 감소 - 전연령층 순유출, 변동 규모 매우 큼

생활세계의 구조적 특징으로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 발달 과정 및 가치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도시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월남 이주민이 대거 정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춘천시의 경제는 주로 원조경제와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도시 자체의 산업화 과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도심과 주변 농촌이 분절적으로 발전하여 생활세계 또한 분절적으로 발달하였다. 도심지는 수도권과 유사한 제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농촌 지역은 발달이 더딘 상태로 지속되었다. 가치관과 관련하여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있고, 양육환경에 관한 지역 안전도 또한 다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아산시는 역사적으로 물산이 풍부하고 온천과 문화재 등이 많아 관광자원도 풍부한 지역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1980년대까지 농어촌 생활세계를 비교적 유지하면서, 도심과 주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세계가 통합적으로 변화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래형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발전과정을 겪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지역사회가 공동체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는 특징도 일부 확인된다.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의식은 일부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개발이 활발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편이다. 이런 성과는 지역형 농업을 중심으로 관광시설 및 문화기능을 확충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역사 문화와 문학적 주제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략에 성공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며,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 역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가족가치관이 보수적이지만, 가사분담 공평성 인식이 성평등적이고 성역할 인식 또한 매우 성평등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합천군은 지리적으로 진주시와 대구시에 인접해 있고, 특히 도시 기능을 대구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 산업기반이 취약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점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근 도시 의존성으로 인한 토착인구와 이동인구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정 정도가 긍정적이고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 성불평등적이고 성역할 인식에서도 매우 성불평등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2〉 지역별 생활세계 구조의 특성 요소

구분		특징
시 지역	춘천	- 한국전쟁 이후 도시파괴 후, 월남이주민 대거 정착, 미군과 산업화 과정의 원조경제 중심으로 도시 자체 산업 미발전 - 도심의 도시적 특성과 외곽의 농촌 특성 분절, 생활세계도 도심과 농촌 지역 분절 - 2009년 경춘선 고속국도개통,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 2007년부터 관광레저도시발전에 주력 - 역사와 전통, 주민협동,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에서 전반적 부정적 태도
	아산	- 80년대까지 농어촌 생활세계 유지, 물산이 풍부하고 온천 등 관광자원 풍부 - 도심과 주변 농어촌지역 생활세계 통합적 유지 - 첨단미래도시, 산학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 건설 1997년부터 본격화 - 한 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485농가)은 단일 조직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생산지역 -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정인식 -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 다소 부정적
군 지역	보성	- 지역형 농업을 중심기능으로 관광시설 및 문화기능을 확충하여 발전 중, 역사문화와 문학적 주제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략 - 지역 공동체와 생활세계 유지 - 1990년대 후반부터 차밭조성 10년계획 착수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정,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 긍정적 - 이혼 가치관에 대해서 보수적 - 가사분담 공평성 인식, 성역할 인식 가장 평등
	합천	- 지역산업 육성기반 취약, 인근도시 의존 - 인구감소와 인근도시 의존성으로 인한 토착인구와 이동인구의 불균형 - 인구의 절대 다수가 통근 통학 인구로 분류됨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정 긍정적 -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도 긍정적 - 가사분담 공평성 인식, 성역할 인식 가장 불평등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문으로써, 출산율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은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그 영향요인이 더욱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과 노동시장 자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춘천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고, 산업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사업체의 종사자규모에 따른 분류에서 1~4명 규모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 고용률이 38%수준으로 매우 낮아 남녀 고용률 격차가 22%p로 큰 편이다. 종사상지위 분포는 임금근로자가 66.4%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전형적인 M 커브를 나타내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기 경력단절이 확인되고 있다.

아산시는 개인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산업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순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비중이 높은 편이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분포에서 1~4명 규모의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종사상 지위별 분포에서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구조를 나타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3%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남성 고용률과 31%p의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M 커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고원형태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높은 편이지만 시 지역에 비해 낮고 산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시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차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종사자 규모별 분포에서 1~4인 사업체가 전체의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 고용률은 65.5%로 남성과 10%p 차이를 나타내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작았다. 종사상지위별 분포에서 비임금로

자가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하여 M 커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임신 출산 기 경력단절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7-3〉 지역별 산업노동 구조의 특성 요소

구분		특징
시 지역	춘천	- 개인사업체 84.6%, 단독사업체 94.5% - 산업분포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비중 낮음 - 종사자규모 1~4명 85.4%, 1명 41.9% - 남녀고용률 60.0%, 38.1%로 격차 큼 - 취업자산업분포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4.2%, 도소매음식숙박 23.0% - 취업자 직업분포 서비스판매 25.8% 전문가 21.1% - 임금근로자 66.4% - 여성경활률 전형적 M 커브 - 남녀임금격차 임시근로자가 가장 작음
	아산	- 개인사업체 80.6%, 단독사업체 94.4% - 산업분포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비중 높음 - 종사자규모 1~4명 82.8%, 1명 38.3%, 5인이상 가장 높음 - 남녀고용률 75.5%, 44.3%로 격차 가장 큼 - 광공업 3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2.7% - 취업자 직업분포 기능 기계조작 36.1% 단순노무 14.6% 비중 높음 - 임금근로자 71.9% 집중 - 여성경활률 M 커브 추세 불명확 - 남녀임금격차 임시근로자가 가장 작음
군 지역	보성	- 개인사업체 78.5%, 단독사업체 91.2% - 산업분포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비중 높음 - 종사자규모 1~4명 88.4%, 1명 43.2% - 남녀고용률 75.7%, 65.5%로 격차 작음 - 취업자 직업분포 농림어업 53.3% 과밀 - 비임금근로자 70.5% 대다수 - 여성경활률 M 커브 추세 불명확 - 남녀임금격차 임시근로자가 가장 큼
	합천	- 개인사업체 78.2%, 단독사업체 95.5% - 산업분포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 제조업비중 높음 - 종사자규모 1~4명 87.2%, 1명 43.0% - 남녀고용률 74.0%, 56.9%로 격차 작음 - 취업자 직업분포 농림어업 54.4% 과밀 - 비임금근로자 72.3% 대다수 - 여성경활률 전형적 M 커브 - 남녀임금격차 임시근로자가 가장 작음

합천군은 사업체 분포에서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분포에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순으로 비중이 높고 제조업비중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고용률은 56.9%로 보통수준을 나타내며 남성 고용률과 17%p 차이를 나타내 시 지역에 비해서 격차가 작은 편이다.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72.3%로 대부분 자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전형적 M 커브를 확인할 수 있어, 임신과 출신 시기에 경력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에서 보육시설 및 보육실태, 교육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 자원과 정책적 특성에서 지역별 특성을 추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춘천시는 도청소재지로서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 아동보육 형태에서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 의존성이 다소 높고,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의 친인척 의존성은 매우 높다. 즉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비율과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에서 부모가 관여하는 비율보다 시설만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친인척 의존성이 4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은 체감도가 크지 않으며 보건의료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아산시는 중소도시로서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발달해있다. 아동보육 형태에서 부모 의존성과 시설 의존성이 거의 유사했다. 다만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의 친인척 의존성은 4 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인척 의존성은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아산시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지원이 매우 미약했다.

보성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 형태에서 부모 의존성 매우 낮고 시설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의 친인척

의존성은 낮게 나타났다. 정책 지원은 출산 장려금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보성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은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비교적 다른 지방 정부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합천군은 농어촌 지역으로써 보건의료 인프라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 형태에서 부모 의존성이 낮고 시설 의존성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의 친인척 의존성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책 지원은 출산 장려금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표 7-4〉 지역별 지역자원 및 정책의 특성 요소

구분		특징
시 지역	춘천	- 보육시설 인프라 도시중심으로 집중 -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 의존성 다소 높고, 친인척 의존성 낮음 - 도청소재지로서 병의원 인프라 밀집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시설 발달 - 정책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집중
	아산	- 보육시설 인프라 발달 -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과 시설 의존성 거의 유사, 친인척 의존성 낮음 - 중소도시로서 병의원 인프라 발달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시설 비교적 발달 - 정책지원 매우 미흡
군 지역	보성	- 보육시설 인프라 미흡 -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 매우 낮고 시설 의존성 높으며, 친인척 의존성은 낮음 - 병의원 인프라 미흡 - 교육시설 미흡 - 출산 장려금 중심의 정책 발달
	합천	- 보육시설 인프라 미흡 -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 낮고 시설 의존성 높으며, 친인척 의존성 다소 높음 - 병의원 인프라 미흡 - 교육시설 미흡 - 출산 장려금 중심의 정책 발달

2. 지역의 유형적 특성 비교

이상의 분야별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유형적 비교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비교는 지역 간 상대적 비교로써, 일부 내용은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일반화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방법론 자체가 상대적 특성의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상대적 비교를 통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 지역과 군 지역, 고출산 지역과 저출산 지역을 교차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군 지역 내부 비교 또는 시 지역 내부 비교를 따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을 상호 비교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는 4개 지역사례를 인구, 생활세계, 산업과 노동, 지역 자원과 정책이라는 4개 부분의 지역적 맥락을 비교한 내용이다.

우선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은 인구구조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20대 초반과 주출산 연령층에 속하는 30대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이 높으며, 출산 순위별 출생에서 둘째아 또는 셋째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평균초혼연령도 낮고 미혼율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 지역인 아산시와 군 지역인 보성군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산시가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보성군은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인구구조는 출산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구조이면서, 다른 사회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적 또는 현상적 구조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생, 혼인, 이동은 다른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후적 특성이 집약된 것이다.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혼인하고 출산하고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산율은 인구구조의 결과이지만, 인구구조는 또한 생활세계, 산업과 노동, 지역 자원과 정책

과 같은 다른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출산 지역인 아산시와 보성군의 생활세계적 공통점을 살펴보면, 지역 도심과 주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세계가 통합되어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 사회와 현대사회의 변화는 완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광이나 산업과 관련된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여 발전하였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비교적 계승되고 있었다. 다만 차별적 특성은 시 지역인 아산시의 개발과정에서 지역 안전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 태도가 더 우세한 반면, 보성군은 여전히 지역 안전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보성군은 가치체계에서 가장 성평등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생활세계의 지역 내 통합과 안정적 유지는 출산과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준다.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신뢰는 의식적 수준에서도 중요하고 현실사회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안정 상태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고출산 지역으로 아산시와 보성군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산업이 지역 내에서 잘 발달되어 있고, 지역 외부 의존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 커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산시와 보성군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임신과 출산 시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이 10%p 이내로 작을 뿐만 아니라, 하락 후 5세간 연령층이 경과하면 즉시 전 시점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다. 이는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두 지역의 차이점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아산시의 여성 고용률이 낮아 남녀 고용격차가 매우 큰 반면, 보성군의 여성 고용률은 매우 높아 남녀 고용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종사상지위 특성에서는 아산시가 임금근로자 중심구조, 보성군이 비임금근로자

중심구조를 나타낸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종사상지위 변동에서 아산시는 임금근로자 내에서 이동한다. 즉 상용근로자에서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이동한다. 반면 보성군은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이동한다.

이상의 특성을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도 아니고, 종사상지위와 같은 근로형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과 일가족양립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일터에서 나타나는 여성 또는 가족친화적 환경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출산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가족 생활의 병립문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족 돌봄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다음은 고출산 지역의 지역 자원과 정책지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아산시와 보성군은 아동에 대한 보육형태에서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친인척 의존성이 낮다는 점을 공유할 뿐이다. 반면 아산시는 부모가 돌보는 부모의존성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의존성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보성군은 특히 기관 의존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아동 돌봄체계는 지역 내 자원현황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20대와 3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보성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기관을 통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활동 특성과 아동돌봄 체계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자원이 현황도 같은 고출산 지역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산시는 제반 지역자원이 풍부한 반면, 보성군은 지역 자원이 매우 열악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의지 차원에서도 아산시는 지방정부의 관심이 부족하지만, 보성군은 지방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점도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의지가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고출산 지역의 유형적 특성

구분		공통점	차이점
고출산 지역 (아산시, 보성군)	인구	- 대부분 연령층(20~39)의 연령별 출산율 높음 - 둘째아(셋째아이상) 비중 감소폭 작음: 둘째아이상으로 이어지는 비율 높음 -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낮고, 출산간격 짧음 - 평균초혼연령 낮고, 미혼율 낮음	- 아산시 인구증가, 보성군 인구감소 - 아산시 가임여성인구 젊은 구조, 보성군 가임여성인구 구조 고령화 - 아산시 재혼·외국인신부비율 낮고, 보성군 재혼·외국인신부비율 높음
	생활세계	- 도심과 주변 생활세계 통합 - 전통적 농어촌중심에서 산업화로 자연스럽게 전환 - 결혼가치 긍정, 가사분담 낮음 - 역사와 전통의식 긍정	- 아산시 지역안전에 부정적, 보성군 지역안전에 긍정적
	산업노동	- 산업이 지역 내에서 잘 발달되어 있고, 외부 의존성이 낮음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M커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경력단절이 크지 않음	- 아산시 여성 고용률 낮아 남녀격차가 크고, 보성군 여성 고용률 높아 남녀격차가 작음 - 아산시 임금근로자 중심, 보성군 비임금근로자 중심 - 아산시 종사상지위변동 임금근로자 내에서 변동, 보성군 종사상지위변동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변동
	자원과정책	-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 시설 의존성, 친인척 의존성 중에서 친인척 의존성이 낮음	- 아산시는 보건의료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발달, 보성군은 보건의료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 미흡 - 아산시는 정책의지 미약, 보성군은 정책의지 강력

다음은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의 유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연령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임여성인구의 구조도 고령화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순위별 출산에서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출산순위별 모이 평균출산연령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평균초혼연령도 높고 미혼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두 지역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일반적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 지역인 춘천시는 인구 유입이 많은 반면, 군 지역인 합천군은 인구유출이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생활세계 구조에서 춘천시와 합천군이 공유하는 점은 도심 지역과 주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세계가 분절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고, 토착민과 이주민의 불균형도 확인된다. 가치체계에서 성불평등적 태도 또는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합천군은 가치체계의 불일치가 나타나며, 가족가치와 관련하여 4 지역 중 가장 보수적 특징과 성불평등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세계의 불안정이 미래에 대한 비관을 형성하여 출산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춘천시와 합천군이 공유하는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내 산업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M 커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임신가 출산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성이 명확하고, 이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특히 춘천시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합천군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 후 다시 복귀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노동시장 이탈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일가족양립이 불가능할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 중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결국 출산 결정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같은 저출산 지역이지만 춘천시와 합천군은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점도 나타낸다. 춘천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 지역 중에서 가장 낮고, 따라서 남녀 고용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 합천군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남녀 고용 격차도 크지 않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춘천시는 임금근로자 중심, 합천군은 비임금근로자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와 종사상지위 자체보다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로여건으로써 일가족양립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춘천시와 합천군은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 의존성이 높고, 친인척 의존성 또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춘천시와 합천군에 활용 가능한 아동 돌봄시설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춘천시와 합천군은 지역 자원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나타낸다. 춘천시는 아동 돌봄시설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 자원이 풍부한 반면, 합천군은 대부분의 지역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정책지원 측면에서 춘천시는 관심이 크지 않고, 합천군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저출산 지역의 유형적 특성

구분		공통점	차이점
저출산 지역 (춘천시, 합천군)	인구	- 대부분 연령층(20~39)의 연령별 출산율 낮음 - 가임여성인구 구조 고령화 - 둘째아(셋째아이상) 비중 감소폭 큼: 둘째아이상으로 이어지는 비율 낮음 -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높음 - 평균초혼연령 높고, 미혼율 높음	- 춘천시 인구정체, 합천군 인구감소 - 춘천시 재혼·외국인신부비율 낮고, 합천군 재혼·외국인신부비율 높음
	생활세계	- 도심과 농촌 생활세계의 분절 - 농어촌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 - 자체산업화 미흡, 인근 도시의존 - 결혼 부정, 여성의 가사부담 높음	- 춘천시 지역안전에 부정적, 합천군 지역안전에 긍정적
	산업노동	- 산업이 지역 내에서 잘 발달되지 않았고, 외부 의존성이 높음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M커브 현상이 분명하여, 경력단절이 심함	- 춘천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아 남녀격차 크고, 합천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아 남녀격차가 작음 - 춘천시 임금근로자 중심, 합천군 비임금근로자 중심 - 춘천 종사상지위변동 임금근로자 내에서 변동, 합천 종사상지위변동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변동
	자원과정책	- 저출산 지역인 춘천시와 합천군은 부모 의존성보다 시설과 친인척 의존성이 높은 편이고,	- 아산시는 보건의료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발달, 보성군은 보건의료와 보육 및 교육 인프라 미흡 - 아산시는 정책의지 미약, 보성군은 정책의지 강력

제2절 정책적 함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구조적 특성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적 맥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출산율 차이가 이와 같은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시의 경우 인구증가는 정체되어 있고, 인구구조 또한 고령화되어 있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매우 높고 가임여성의 미혼율도 높은 편이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고, 이후 발전과정에서 자립적 산업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채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다. 도심지와 주변 농촌지역의 분절이 심한편이며, 생활세계에서 도심지와 농촌지역의 분절이 관찰된다. 생활세계의 분절은 일상생활의 안정을 떨어뜨려 미래설계에 대한 의식적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고, 임신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일가족양립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나 공공서비스 등의 지역자원은 잘 발달해 있지만, 아동의 보육 인프라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형태에서 부모 의존성과 친인척 의존성이 높았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 또한 높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춘천시는 향후에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출산에 긍정적 요인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춘천시가 향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평등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아산시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도시로써, 최근뿐만 아니

라 향후에도 점차 더 발달한 첨단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조성될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매우 개방적 구조와 발전지속형 도시로서 그 특성이 안정화되고 있다. 인구증가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인구구조도 비교적 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혼인행태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혼인하는 경향이 있고, 출산 또한 조기에 종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아산시는 확장도시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도심과 주변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 일상생활 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안정은 출산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최근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의식이 부정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가족가치관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여성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남녀 고용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아 근로여건이 취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출산을 종료한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특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너무 미약하며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 시설이 비교적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육형태에서 부모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산시의 현재 높은 출산율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젊은 부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초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으로, 전형적인 1인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아동 양육 초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성의 돌봄노동에 기반한 출산율 유지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으며, 경제생활에서 1인생계부양자 형태를 지속하는데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비용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성군은 지리적으로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자체 산업의 발달을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구유출이 감소하는 등 인구의 안정화를 찾고 있다. 가임여성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이 높아서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참가율이 매우 높고, 주로 비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세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보수적이고 가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평등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성군이 가족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세계가 통합되어 있어 높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도, 보육형태에서 부모나 친인척 의존성이 낮고, 시설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보성군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돌봄은 시설에 의존하고, 성역할과 가사분담에서 성평등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여성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 취업자가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고, 아동 돌봄을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환경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성 취업자의 근로형태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천군은 교통이 발달했고, 인근 다른 도시와 밀접한 지형으로 매우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동인구 많다는 점과 인구 유출입의 변동이 커서 지역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인구구조는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가족가치에서 부정적이고 특히 가사분담이나 성역할에서 매우 성불평등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활세계의 분절이 나타날 수 있어 출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만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남녀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신 및 출산 시기와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비율이 매우 높고 이탈 지속기간도 매우 길게 나타난다. 합천군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 커브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었다. 다른 한편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동 양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 보육형태에서 친인척 의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합천군은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도 출산율 증가의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아동 돌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군 관할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사에서도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 구조가 연계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시와 합천군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성군의 경우 아동 양육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형태에서 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아산시의 경우처럼 아동 양육 인프라가 풍부함에

도 불구하고 보육의 부모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관찰된다. 젠더 관계에서 성역할과 가사분담에서 성평등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도 군 지역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은 마치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지역의 맥락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세밀한 제도 설계는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구조적 맥락의 취약부분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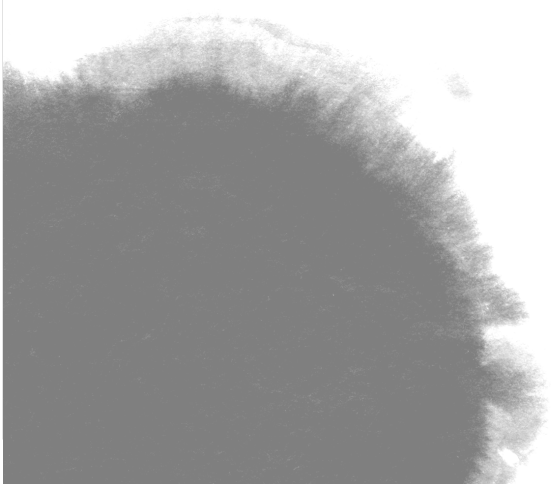
인구구조 측면에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형성 단계의 지원필요성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혼인 및 신혼초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첫째아에서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제도 설계과정에서 출산 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와 일상생활의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의 근현대적 변화과정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상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이것이 미래결정을 의미하는 출산결정을 지연 또는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겠지만 공동체의 복원과 유지, 주민의 연대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산업과 노동시장구조의 관점에서는 지역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족양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여 자체 또는 종사상지위와 같은 근로형태 등보다도 임신과 출산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였다. 지역 단위에서도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 커브현상과 출산율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비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가족돌봄의 문제가 여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가족양립구조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고용정책과 관련된 몇몇 제도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가족양립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은 고용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계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KIHASA

8장

결론



제8장 결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1983년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대 초반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일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현상의 원인 및 파급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연구는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전국수준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지만,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현상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제 지역별 출산율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실정이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고, 지역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출산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구조, 생활세계 구조,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지역자원과 정책이 그것이다.

4 가지 영역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 및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귀납적 접근을 통한 지역 특성 일반화를 시도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는 향후에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출산에 긍정적 요인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춘천시가 향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평등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아산시의 현재 높은 출산율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젊은 부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초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으로, 전형적인 1인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아동 양육 초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성의 돌봄노동에 기반한 출산율 유지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으며, 경제생활에서 1인생계부양자 형태를 지속하는데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비용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보성군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돌봄은 시설에 의존하고, 성역할과 가사분담에서 성평등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여성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 취업자가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고, 아동 돌봄을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환경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성 취업자의 근로형태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천군은 지역의 구조적 맥락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발견되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도 출산율 증가의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아동 돌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군 관할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사에서도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지역의 출산율 격차가 각각의 서로 다른 구조적 짜임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출산지원 정책이 일부 한 두 가지 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노동시장, 생활세계와 인식의 개선, 지역자원의 활용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권태환 · 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원동(2006). **춘천시 읍면지역의 사회적 현실과 5 · 31 지방선거**. 농촌사회, 16(2).

김원동(2009). **춘천시 도농지역 주민의 사회의식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 10(1), pp. 63-93.

김은설 · 이정원 · 지성애 · 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김정호 · 박문호 · 김태연(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6.

김태연·이철우·장동필(2008). **농촌 커뮤니티의 지역별 다양성에 관한 연구: 아산시와 청도군 농촌마을 사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6(1), pp. 91-113.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민말순(2007). **문화마케팅 전략을 통한 도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박범조 · 고석찬(1998).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요인**. 지역연구, 14(2), pp. 35-50.

박지형 · 홍준현(2007). 시 · 군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335-362.

박창규(2006). **생태·문화·체험자원을 활용한 전남농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농촌관광연구. 13(1).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손준수(2002). **전남 보성군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양지수(2008). **아산신도시 개발 현황 및 비전**. 한국건축시공학회지, 8(3), pp. 38-45.

유영주 외(2000). **가족 관계학**. 교문사.

은기수(1997). 「지역, 교육 및 직업별 차별출산력」, 권태환 · 김태현 · 김두섭 · 전광희 · 은기수, 『**한국출산력변천의 이해**』, 일신사.

은기수(1997). 「한국 인구의 변동」, 한국사회사학회(편), 『**한국 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이동필 · 이상문(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 16.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2005a).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2005b).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석권 · 이낙운(2008). **신도시 개발후의 춘천시 도시공간구조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2).

이석권(2009), **춘천시 도시공간 구조와 예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로(2003). **도농통합이 주민의 정치적 행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 한국행정학보, 37(1), pp. 165-182.

이웅규(2009). 아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 **국제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69-98.

이형상(2011), **아산시의 도시 내부구조의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석

사학위논문

이희연(1990). 『**인구지리학**』, 법문사.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작과비평.

장경섭(2011a).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pp. 63-91.

장경섭(2011b).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pp. 1-23.

전영옥(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옥(2006). 신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조명래(2000). **문화경제화와 문화도시계획**. 도시연구, 6, 한국도시연구소.

조상필(1995).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1). pp.119-134.

주현식(2006). LOHAS중심의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방안 -2010년 "세계레저총회와 레저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춘천을 중심으로 -. **2006년 제60차 강원국제관광학술대회**.

최석호(2010). 춘천시 관광자원 연계성 향상 - 네오투어리즘을 중심으로 -. **한국관광학회 제 67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pp. 185-217.

하창현(2002).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 분석-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남지역의 공간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37(6).

하창현(2007). **기능적·공간적 측면에서의 경남지역 공간계획권역의 설정**.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1), pp. 81-107.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1990).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Ⅰ**. 열음사.

홍준현(2005). **시·군 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 299-324.

통계청(2009). **지역별 차별출산력 보도자료**, 11월.

Blossfeld, H.-P.(1987). "Labor-Market Entry and the Sexual Segregation of Care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89-118.

Brewster, K.L., and R.R. Rindfus ㄴ(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Gillis, J. R., Tilly, L. A., Levine, D(1992). *The European experience of declining fertility, 1850-1970: the quiet revolution.* Cambridge[etc]: Blackwell.

Hank, K.(2001a). "Regional Fertility Differences in Western Germany.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ent Descriptive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243-257.

Hank, K.(2001b).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Women's Residential District on Their Risk of Entering Motherhood and First Marriage: *A Discrete-Time Multilevel Analysis of Western German Panel Data*, 1984-1999. Mimeo, MPIDR, Rostock.

Hank, K.(2001). Regional Social Contexts and Individual Fertility Decisions: A Multilevel Analysis of First and Second Births in Wester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MPIDR Working Paper WP 2001-015.

Kravdal, Ø.,(1996). "How the local supply of day-care centers influences fertility in 26 Norway: A parity-specific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5: 201-218

Kreyenfeld, M., and K. Hank, (2000). "Does the availability of child

care influence the employment of mothers? Findings from western German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317-337.

Kwon, Tai-Hwan(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Seoul).

Lesthaeghe, Ron and Johan Surkyn(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pp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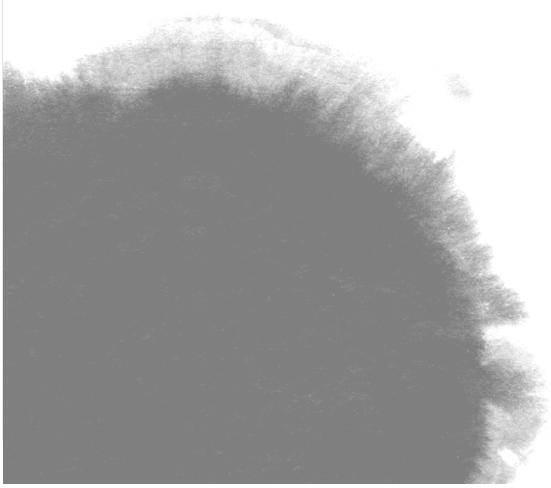
Preston, Samuel H(1986). Changing Values and Falling Birth R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pp.176-195.

Robert A. Pollak and Susan Cotts Watkins(1993).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e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 467-496.

Ronald Rindfuss(2012). Why such Wide Fertility Variation among Low Fertility Countr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of Low Fertility to Socio-economic Environments.*

Stolzenberg, R.M., and L.J. Waite(1984). "Local Labor Markets, Childre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ives," *Demography* 21: 157-170.

부 록



부록 1. 조사표

저출산 관련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인식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자녀출산·결혼·지역사회에 관하여 주민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가족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출산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02-380-8190)
윤여원(02-380-1678)

주소		동 / 읍 / 면	조사원 이름	
시군구	명칭			
	코드	('춘천시=1, 아산시=2, 합천군=3, 보성군=4'로 기입)		
읍·면	명칭			
	코드	(읍=1, 면=2)		
결혼여부	① 배우자있음 ② 사별 ③ 이혼(별거) ④ 미혼			
응답자 연령	① 20-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④ 35-39세 ⑤ 40-44세 ⑥ 45-49세		취업유무	①취업 ②비취업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출생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도/ _____ 시군구)

2. 귀하는 현재거주지(시, 군, 구 기준)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까? 만약, 중간에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이사하였다면, 가장 최근에 거주를 시작하신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_____ 년 ____ 월

결혼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함 □② 하는 편이 좋음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④ 하지 않는 게 좋음 □⑤ 모르겠음 □⑧ 무응답

4. 귀하는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4-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 ①	□ ②	□ ③	□ ④
4-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출산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⓪ 0명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⑥ 모르겠음 □⑧ 무응답

6. (여성) 귀하는 지금까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까?
(현재 임신 불포함, 자녀없는 경우는 0명으로 기입)

(남성) 귀하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까?
총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7. 귀하는 향후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현재의 임신 포함)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8. 귀하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가져야 함 □② 갖는 것이 좋음 □③ 없어도 무관함
□④ 모르겠음 □⑧ 무응답

가사분담 및 성역할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않음 (설문 문항 9 ~ 11 까지 해당)

9. 귀하는 평소 남편과 가정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평소 남편과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을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부인이 □② 대체로 부인이
□③ 부부가 함께(비슷하게) □④ 대체로 남편이
□⑤ 전적으로 남편이 □⑥ 부부 이외 다른 사람이

11.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중 남편과 부인은 각각 가사노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부인	_____시간 _____분	남편	_____시간 _____분

12.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12-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12-2.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13-1. 우리 마을은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13-2. 우리 지역 또는 우리 마을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3-3. 우리 지역 또는 우리 마을 주민은 필요한 경우 서로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기본항목과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귀하의 동거 가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4-1. 가구원 수 (본인 포함 1명 이상)	전체		명

14-2. 가구원 번호	**14-3. 응답자와 관계 코드**		**14-4. 성별**	**14-5. 만나이**	**14-6. 혼인상태**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만 질문**	
						14-7. 취업여부	**14-8. 종사상지위**
17-1 가구원수와 아래 연번 일치해야	아래 보기		①남 ②여		①배우자있음 ②사별 ③이혼 (별거) ④미혼	①예 ②아니오	①상용근로자 ②임시근로자 ③일용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비해당
본인	응답자	**10**					
동거2	( )						
동거3	( )						
동거4	( )						
동거5	( )						

14-3. 응답자와의 관계

1. 응답자의 배우자	2.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3.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4.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5.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	6.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증)손자녀	7.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8.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기타 친인척 또는 비혈연 가구원

15. 귀 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 만원

(※ 가구원 모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칩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